

2025 인천교육정책연구

연차보고서



인천광역시교육청 정책기획조정관
교 육 정 책 연 구 소

발간사

2025 인천교육정책연구 연차보고서

변화의 결을 읽고,

인천교육의 미래를 논하다!



교육정책연구소에서 수행한 연구 결과를 공유하고, 향후 정책 개선과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2025 인천교육정책연구 연차보고서 발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지난 3년간 인천교육은 체계적인 정책연구를 기반으로 인천만의 교육적 성과와 서사를 차근차근 쌓아왔습니다. 이제 우리는 변화의 흐름을 정확히 읽고, 인천교육이 나아갈 새로운 길을 함께 모색하며, 미래교육의 완성을 향한 더 높은 도약을 준비하고자 합니다.

학교는 학생들의 실제적 경험을 품어내는 삶의 터전이 되어야 하고, 지역은 학생과 함께 성장하는 배움의 장이 되어야 합니다. 인천교육은 이러한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학교 현장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고, 교육공동체와 더 깊이 소통하며, 함께 걸어가는 교육을 만들어가겠습니다.

2025년 인천교육정책연구는 학교 현장 지원 강화, 교육균형발전, 인구·경제 축소 및 기후위기 시대에 대응하는 인천교육의 방향 탐색, 학생 정신건강, 종단연구 등 미래를 위한 굵직한 과제를 폭넓게 다루었습니다. 이번 연차보고서에 담긴 연구 결과가 교육 정책 전반에 걸친 활발한 논의로 이어져, 인천교육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열어가는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끝으로 연차보고서 발간을 위해 애써주신 연구진 여러분과 교육정책연구소 모든 구성원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2025년 12월

인천광역시교육감 도 성 훈

CONTENTS

2025 인천교육정책연구 연차보고서

1 기본 연구

-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 현장 지원 강화 방안 연구 9
- 특수교육지원센터 중심의 인천형 특수교육 지원체계 연구 16

2 수시 연구

- 이주배경학생 밀집학교 지원 방안 연구
- 학생들의 학교생활을 중심으로 29
- 유·초 연계 기반의 취학 전후 교육을 위한 지원 방안 연구 36
- 인천광역시 학생생활종합실태조사Ⅱ(4차년도) 46

3 현안 연구

- 교육균형발전학교 선정 지표에 대한 학교 현장 인식 조사 61
- 미래 사회 변화와 교육적 대안 연구
- 특색교육 정책을 중심으로 68
- 인구·경제 축소 시대의 인천교육 방향 탐색 77
- 기후위기 시대의 인천교육 방향 탐색 84
- 늘봄지원실장 지원 동기 및 경험에 관한 연구 93

4 현장 연구

-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원 복지 증진 방안 연구 103
- 인천광역시교육지원청 초등 보결전담 순회강사 실태 분석 및 개선 방안 연구 110
- 초등학교 교육과정에 기반한 현장체험학습 유형화 및 코스 개발 연구 117

5 협력 연구

- 시·도교육청 데이터 기반 교육정책 운영 현황 및 발전 방안 125

6 종단 연구

- 인천교육종단연구 1차 연도(2025) 역량검사 문항 개발 연구 135
- 인천교육종단연구 1차 연도(2025) 조사 개요 연구 143

7 위탁 연구

- 인천형 학생 지속가능 정신건강 역량 강화 통합모델 구축과 확산 연구 15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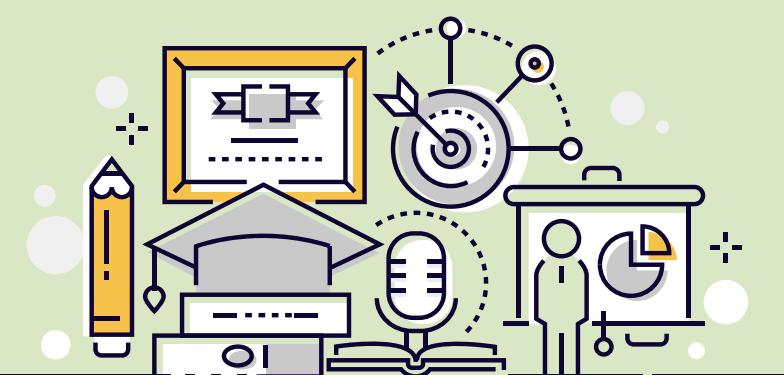
8 교육정책연구소 소개

- 소개 및 현황, 사업 개요 164
- 2025 연구 성과 및 연구 방향 166
- 2026 인천교육정책 연구 방향 168
- 연도별 교육정책 연구과제 목록(2015~2025) 169

1

기본 연구

-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 현장 지원 강화 방안 연구
- 특수교육지원센터 중심의 인천형 특수교육 지원체계 연구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 현장 지원 강화 방안 연구

연구책임자 : 문영진
공동연구원 : 권순형
협력연구원 : 주현성, 함유선
연구보조원 : 김효은, 최혜인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학교의 역할이 다변화함에 따라 과거 학교가 수행했던 교육활동의 범위와 내용은 확대되고 확장되고 있음. 학교는 교육행정체계의 말단에 위치해있으나 교육활동이 실제 이루어지는 현장이기에, 학교 현장에서 교육활동과 교육정책이 효과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교육행정기관의 지원이 강화되어야 함. 이에, 인천광역시교육청(이하 “인천시교육청”)은 학교지원 전담기구로서 인천광역시교육청학교지원단(이하 “학교지원단”)을 직속기관 형태로 설치하여 학교를 지원하고 있음.
- 그러나 실제 학교 현장에서는 학교지원에 대한 체감이 그리 크지 않았고, 2025년 인천시교육청은 학교 현장 지원 강화를 정책 기조 강조하며 현장이 체감하는 실질적인 현장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이를 위하여, 학교현장지원 과제발굴단 운영, 대규모 설문조사, 학교현장지원 전담기구 운영, 대토론회, 저경력 교사 간담회, 교직원 단체 및 노조 간담회, 공청회 등을 거쳤고, 7월 학교지원단을 중심으로 “학교다음을 채우는 인천 학교현장지원 방안 100선”을 공표함.
- 본 연구는 이러한 흐름에 발맞춰 인천광역시교육청의 학교 현장 지원 강화 방안을 탐색하는 데 목적이 있음. 대규모 설문조사와 각종 문서자료를 통해 교직원, 학생, 학부모의 다양한 요구를 분석하여 교육청 차원에서 학교 현장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지에 대해 탐색하고자 함.
-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연구문제를 설정하였음.
 - 첫째, 학교 현장 지원 강화에 대한 교육주체(교직원, 학생, 학부모)의 요구는 무엇인가?
 - 둘째, 인천광역시교육청의 학교 현장 지원 강화 방안은 무엇인가?



2. 연구 내용 및 방법

가. 연구 내용

- 첫 번째 연구 내용은 학교 현장 지원 강화 요구 분석임. 이는 설문조사와 문서자료를 분석하여 교직원, 학생, 학부모의 요구를 확인하는 과정임. 연구진에서 설정한 9가지 영역(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학생 심리·정서 및 생활지도, 교육활동 보호, 행정업무 수행, 학교안전 및 학생 건강, 학교시설 및 환경, 학교구성원 복지, 학교구성원 소통, 법적·제도적 개선)에 기초하여 영역별로 요구의 경향성과 특징을 살펴보았고, 이에 따른 시사점을 도출함.
- 두 번째는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 현장 지원 강화 방안 탐색임. 앞선 요구 분석 결과 및 시사점을 바탕으로 학교 현장 지원 목표 및 방향 설정, 학교 현장 지원 요구사항의 특성 분석, 학교 현장 지원 과제 ‘발굴·선별·실행·점검’ 체계화로 구분하여 교육청 차원의 학교 현장 지원 강화를 위한 방안을 제시함.

나. 연구 방법

- 문헌분석은 학교 현장 지원의 의미와 범위, 학교 현장 지원의 실태와 쟁점을 살펴보기 위해 실시함. 분석 자료는 학교지원 및 학교지원 전담기구와 관련한 선행연구를 중심으로 선정함.
- 설문조사는 학교 현장 지원 강화에 대한 교육주체의 요구 분석을 목적으로 수행함. 조사 대상은 인천 관내 유·초·중·고·특수·각종학교의 교직원, 학생, 학부모이며, 조사 내용은 인천시교육청 소속 교육전문직원 8명과 협의를 통해 선정함. 구체적으로, 9개 영역(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학생 심리·정서 및 생활지도, 교육활동 보호, 행정업무 수행, 학교안전 및 학생건강, 학교시설 및 환경, 학교구성원 복지, 학교구성원 소통, 법적·제도적 개선)에 대한 지원 요구사항을 서술형으로 조사하는 문항으로 구성함. 설문조사는 교육청 설문조사 시스템을 활용한 온라인조사로 진행되었고, 전 기관에 공문 발송 및 교육청 홈페이지, 블로그 등의 홍보를 통해 조사 참여를 독려함. 수집한 자료는 EXCEL을 활용하여 빈도분석을 실시함.
- 문서분석 역시 학교 현장 지원 강화에 대한 요구를 확인하고자 실시함. 수집한 문서는 총 7가지이며, 학교지원단에서 실시한 대토론회, 저경력교사 간담회, 교직원 단체 및 노조 간담회 결과, 학교현장지원 과제발굴단의 제안서, 인천교육정책연구소 연구두레에서 생산한 교육정책제안서 등을 분석함. 분석은 지원 요구사항 추출 → 목록화 → 범주화(9개 영역 및 영역별 세부 내용) 과정을 거침.

3. 연구 결과

가. 학교 현장 지원 의미와 실태

- 학교 현장 지원과 유사개념인 학교지원에 관한 선행연구를 분석하여, 학교지원의 정의에 비추어 학교 현장 지원의 개념을 살펴봄. 본 연구에서는 학교 현장 지원을 “단위학교의 구체적 상황과 실질적 요구에 기반하여 교육행정기관이 학교 현장에 필요한 지원과 여건을 다차원적으로 제공하고 조성함으로써 학교가 교육의 본질에 집중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문제해결 중심의 지원 체계”로 정의함. 학교 현장 지원과 학교지원의 차이는 그 범위로, 학교 현장 지원의 범위는 기존 학교지원의 범위(학교업무 경감 중심)를 확장하여 학교가 핵심적으로 수행하는 교육활동 자체와 이를 가능케 하는 제반 여건을 포괄함.
- 현행 학교 현장 지원은 학교지원 전담기구인 학교지원단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음. 특히 2021년 개관 이후 학교지원의 중요성과 교육청의 정책 의지가 강화되면서 학교지원단의 지원 범위와 조직은 확대되었으나, 학교구성원이 체감하는 지원 효과와 인지도는 여전히 낮은 실정임. 또한 직속기관이라는 법적 권한의 한계와 학교지원에 대한 기관 간 역할의 모호성, 교육활동 중심의 전문적 지원 부족 등이 학교 현장 지원의 실효성과 관련한 주요 쟁점으로 자리하고 있음.

나. 학교 현장 지원 강화를 위한 요구 분석

- 설문조사의 전반적인 결과를 주제별로 살펴보면, 설문조사 결과, 교직원은 학교 현장에서 가장 시급한 지원 영역으로 법적·제도적 개선(23.5%)과 행정업무 경감(21.0%)을 꼽았으며, 교육활동 보호, 학교안전, 학생 정서 및 생활지도 역시 주요 요구로 제기함. 학생은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35.5%), 학교안전 및 학생 건강(24.8%)에 가장 많은 요구를 집중하였고, 학부모 역시 교육과정 운영(40.9%)과 학교안전·돌봄 환경(25.6%)에 가장 높은 관심을 보임. 즉, 교직원은 업무와 제도 개선에, 학생과 학부모는 교육과정과 생활환경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집단 간 요구의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남.
- 요구의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교직원의 경우 특히 고교학점제 운영 부담, 기초학력 보장, 교육활동 침해 문제, 반복적 행정업무, 인력 부족 등이 공통적으로 지적됨. 반면 학생들은 수업 방식 개선, 교실 환경, 급식·화장실·냉난방과 같은 생활 기반 지원, 상담 및 안전 인력 확충 등을 요구함. 학부모는 자녀의 학습권 보장, 방과후 및 돌봄 서비스 확대, 교원 수업 전문성, 학교폭력 및 정신건강 대응 체계 강화 등을 요청함.



○ 문서분석 결과도 행정업무 수행(33.5%), 법적·제도적 개선(17.6%),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11.0%), 교육활동 보호(10.4%)가 가장 많이 언급됨. 이는 설문조사 결과와 유사하게, 교육주체들이 단순한 편의 제공이 아니라 제도 구조와 행정 시스템의 근본적 변화를 요구하고 있음을 보여줌.

○ 집단별 요구 분석 결과에 기초하여 본 연구에서는 학교 현장 지원 강화 방안 탐색에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함. 첫째, 교직원의 요구는 학교급, 직위, 경력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나 요구의 차이를 고려한 맞춤형 학교 현장 지원이 이루어져야 함. 둘째, 학생과 학부모의 요구 중 가장 높은 요구도를 보인 사항들은 우선 지원을 고려해야 함. 셋째, 교직원, 학생, 학부모가 요구하는 것들이 상충되지 않도록 조정하는 과정이 필요함.

다.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 현장 지원 강화 방안 탐색

○ 학교 현장 요구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 현장 지원 강화 방안을 학교 현장 지원 목표 및 방향 설정, 학교 현장 지원 요구사항의 특성 분석, 학교 현장 지원 과제 ‘발굴-선별-실행-점검’ 체계화로 제시함.

○ 학교 현장 지원 목표 및 방향 설정은 다음과 같음. 학교 현장 지원의 목표는 학교 현장 지원의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며, 세부 목표를 1) 교육과정의 안정적 운영, 2) 학교공동체의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 조성, 3) 학교 현장의 자율적 문제해결역량으로 제시하였음. 이를 세부 목표는 즉시성(학교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 민감성(학교 현장의 다양한 요구와 상황을 세심하게 감지하고 반영하는 것), 지속가능성(학교 운영의 안정성과 발전을 지속가능하게 하는 지원)의 세 가지 가치에 기초하여 달성되어야 함.

○ 이어, 설문조사와 문서분석에서 수집한 현장 요구들의 특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16,660건의 요구사항을 주체별(요구사항의 지원 주체)과 영역별(요구사항의 내용)로 구분함. 주체와 영역을 교차분석한 결과, 주체별로는 지역(교육청) 차원에서 지원해야 할 요구사항이 12,905건(77.5%)으로 가장 많았고, 영역별로는 콘텐츠(교육과정 및 교육프로그램 등)에 대한 요구사항이 9,628건(57.8%)으로 가장 많았음. 지역(교육청) 차원에서 지원해야 할 요구사항이 가장 많이 나타난 결과는 학교 현장 지원에 있어 교육청의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됨을 의미함. 다만, 학교 현장의 요구들 교육청이 모두 해결하는 것에는 행·재정적 한계가 있음을 명확히 인지해야 하며, 학교 현장 지원 체제의 다층적 구조(교육부, 교육청, 학교의 역할을 중심으로)를 구축해야 할 것임.

○ 이상의 연구 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학교 현장 지원 과제의 ‘발굴-선별-실행-점검’을 체계화하는 인천형 ‘현.장.현.답(現場賢答)’ 체계 구축 및 운영 방안을 제안함. ‘현.장.현.답(現場賢答)’은 ① 학교 현(現)장에서 제기되는 문제점(과제)을 즉시 발굴·선별하며, ② 학교 현장

(場) 구성원이 민감하게 체감할 수 있는 현(賢)명한 실행 방안을 통하여, ③ 학교 현장에 답(答)이 될 수 있는 실행방안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체계를 의미함. ‘현.장.현.답(現場賢答)’의 운영 원리는 현장성의 원리, 즉시성의 원리, 민감성의 원리, 지속가능성의 원리로 제시하였다. 아울러, ‘현.장.현.답(現場賢答)’ 체계 운영 과정을 사례(교복업무전담기구 설치, 도서지역 소규모학교 교원정원 증원 요구)로 살펴보았으며, 운영 체계의 실효성 확보 방안과 제도 운영을 위한 법적·제도적·조직적 측면의 고려사항도 제안함.

○ ‘현.장.현.답(現場賢答)’은 학교 현장의 문제와 요구를 출발점으로 삼아, 교육청이 이를 지혜롭게 분석하고 적시에 지원한다는 뜻의 상향식 지원 체계로, ‘발굴-선별-실행-점검’의 순환 구조를 갖춘 것이 핵심임. 기존처럼 교육청이 일방적으로 지원 사업을 내려보내는 방식이 아니라, 교사·학생·학부모가 제기한 실제 요구를 데이터 기반으로 수집하고, 이를 정책화 가능한 과제로 선별한 뒤, 부서 간 협업을 통해 실행하고 그 결과를 다시 현장에 환류하는 구조임. 이 체계는 행정 편의 중심의 지원을 넘어 교육활동·생활지도·정서지원 등을 포함하는 실질적 문제해결형 지원 모델이며, 교육행정기관의 지원 기능 강화, 법·제도 정비, 성과 관리 체계 구축 등을 통해 지속가능한 학교 현장 중심 거버넌스로 정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을 것으로 기대함.

4. 연구 제언

가. 정책 제언

○ 먼저, 「(가칭) 학교 현장 지원 조례」 제정임. 이는 조례 제정을 통해 학교 현장의 요구에 기반한 상향식 지원을 제도화하는 것으로, 본 연구에서 제안한 ‘현.장.현.답(現場賢答)’ 체계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확보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될 것임. 해당 조례에는 ① 학교 현장 요구 수렴 절차, ② 교육지원청의 역할과 책무, ③ 교육청 본청의 조정·지원 기능, ④ 성과 환류 및 공개 절차 등을 포함함. 참고로 학교 현장 지원 조례 제정 시 학교지원 전담기구 운영에 관한 조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민할 필요가 있음.

○ 다음으로, ‘현.장.현.답(現場賢答)’ 체계로부터 수집되는 데이터의 지속적인 관리와 활용을 위한 데이터 기반 현장 지원 시스템 구축임. 데이터 기반 교육정책의 중요성을 날이 갈수록 더욱 강화되고 있으며, 현장으로부터 수집된 요구 역시 교육행정기관의 직무 수행에 유의미한 데이터가 됨. 따라서 본 연구에서 제안한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며, 현재 학교지원단에서 구축 중인 ‘인천 학교지원서비스’에 연계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을 것임.



- 시스템 구축 시 ‘수집-분석-환류’의 3단계 구조를 생각해 볼 수 있음. 수집 단계에서는 학교 지원단에서 별도로 요구조사를 시행해도 되고, 교육청 각 부서가 운영하는 요구조사나 설문조사를 연계하여 데이터를 수집하는 방법도 있을 것임.
- 분석 단계에서는 시스템 내에 빈도분석, 키워드분석, 텍스트마이닝 등 데이터 분석 도구를 탑재하여 자동 분석이 가능하도록 하며, 분석을 통해 지역·학교급·주제별 요구를 분류하고 정책의 우선순위를 도출함.
- 환류 단계에서는 분석 결과를 기반으로 분기별로 지원 과제를 점검하고, 결과를 교육청 각 부서로 공유하는 순환 구조를 정착하는 것임.

○ 끝으로, ‘현.장.현.답(現場賢答)’ 체계의 실행연구를 제안함. 교육청 내 몇 개 부서를 대상으로 ‘현.장.현.답(現場賢答)’의 프로세스를 적용해보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와 효과를 파악하여 프로세스의 수정·보완 방안을 탐색하는 것임. 이는 ‘현.장.현.답(現場賢答)’ 체계를 실현 가능하도록 정교화하는 데 의미있을 것으로 판단됨.

나. 후속 연구 제언

○ 첫째, 「(가칭) 학교 현장 지원 조례」 제정의 타당성 연구임. 이 조례는 학교 현장의 요구 기반 지원 체계를 제도화하기 위한 핵심적 장치이므로 제정 이전에 법·제도적 타당성을 검증하는 연구가 필요함. 앞서 제시했던 ① 학교 현장 요구 수렴 절차, ② 교육지원청의 역할과 책무, ③ 교육청 본청의 조정·지원 기능, ④ 성과 환류 및 공개 절차 등을 포함하는 조례안을 구성하고, 현장 교원 및 관련 전문가 대상 검토를 거칠 필요가 있음. 아울러, 「인천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29조에 근거한 학교지원단의 설치·운영 규정을 분석하고, ‘학교 현장 지원 조례’와의 연계 가능성도 검토해야 할 것임.

○ 둘째, 데이터 기반 현장 지원 시스템 구축 및 활용 방안 연구임. ‘현.장.현.답(現場賢答)’ 체계의 실질적 작동을 위해서는 수집된 현장 요구 데이터를 정책 의사결정에 반영할 수 있는 데이터 기반 행정 시스템의 구체적 설계와 검증이 필요함.

- 후속연구에서는 학교지원단과 교육청 각 부서에서 생산되는 요구조사·설문·민원·컨설팅 결과 등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데이터 구조를 설계하고, 메타데이터와 키워드 체계를 표준화하여 중복·누락 없는 수집체계를 마련해야 함. 이때, 인천 학교지원서비스에 탑재할 것인지 또는 별도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함. 또한, 수집된 데이터를 분석해 유형별·학교급별·지역별 등 패턴을 도출하고, 우선 지원 과제를 자동 산출 할 수 있는 분석·환류 프로세스를 모델링함으로써 정책화의 효율성을 높여야 함. 더불어 시범 주제나 부서를 선정하여 시스템을 적용하고, 지원 요청 처리속도·정책 반영률·현장 만족도 등 주요 성과지표를 기반으로 효과성을 검증하는 과정이 필요함. 마지막으로, 개인정보 보호와 요구 왜곡 방지, 책임 주체 명확화를 위한 데이터 윤리 및 거버넌스 기준을 수립하고, 「(가칭) 인천 학교 현장 지원 위원회」를 구성하여 지속가능한 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함. 이는 앞서 제시한 조례 제정에 포함해야 할 것임.



특수교육지원센터 중심의 인천형 특수교육 지원체계 연구

연구책임자 : 임태원
공동연구원 : 이희연, 주교영, 진미영
협력연구원 : 김윤미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교육적 배려 대상자에 대한 지원을 국가의 책무이자 주요 정책 방향으로 인식하는 우리나라에서는 「특수교육 발전 5개년 계획」을 수립·추진하여 특수교육 지원 체계의 꾸준한 개선을 시도하고 있음. 현행 제6차 계획(2023~2027)에서는 ‘모두가 존중받는 국가책임 맞춤형 특수교육 실현’을 비전으로, 특수교육 수요자를 위한 다양한 교육환경 조성과 교육 격차 완화에 주력함(교육부, 2022). 이를 위하여 상정된 4대 주요 과제는 ‘학생 중심 특수교육 전달체계 내실화, 모두를 위한 통합교육 지원 강화, 개별 맞춤형 특수교육 확대, 장애인 고등·평생교육 기회 확대’이며, 이는 특수교육을 둘러싼 직접적 수요자인 학생, 교사, 학부모 등을 위한 지원체계 강화 및 개선을 목적으로 함.
- 국가 차원에서 추구하는 특수교육 발전은 다수의 관계 부처 협조하에 추진되며, 시·도교육청의 정책 실현을 통해 실천됨. 이때 지역별 정책이 실천되는 맥락은 비단 특수학교나 특수학급에만 국한되지 않으며, 일반학급(통합학급 포함)을 포함하여 특수교육대상자와 함께 생활하고 성장하는 모든 이(학생, 교사, 학부모 등)가 정책 수요의 주체가 됨. 이와 같은 배경에서 인천광역시교육청은 2021년 6월 「인천광역시교육청 특수교육 진흥 조례」를 제정한 바 있으며, 이를 토대로 매해 특수교육운영계획을 수립·시행하여 현장을 지원하고 있음.
- 위와 같은 특수교육의 진흥과 지원체계 강화를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난 2024년 10월 인천교육이 맞이한 비극적인 사건은 특수교육 여건에 대한 개선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수면 위로 올려놓았음. 이에 대하여 인천광역시교육청은 적극적인 후속 조치로 「2025 인천 특수교육 계획」과 더불어 「인천 특수교육 개선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였고, 이를 통해 특수교육 지원체계

변화에 시동을 걸었음. 해당 계획에서 인천광역시교육청은 교육공동체 구성원들과의 숙의를 통해 9개 추진 과제 및 33개 세부 과제를 설정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추가 탐색할 것을 예고함(인천광역시교육청, 2025).

- 인천광역시교육청이 고시한 9개 추진 과제의 골자는 현행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운영 방식 개선과 전문성에 기반한 특수교육대상자 지원, 특수교사의 교권 향상 및 업무 경감 등임. 이러한 골자는 개별 과제의 내용을 염밀하게 따져볼 때 특수교육에 관한 제도적, 행·재정적, 구조적 변화를 요구하며, 성격에 따라 즉시 이행 가능한 것과 장기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로 구분됨. 또한 학교 안팎의 지원 과제가 유기적으로 구성된 만큼, 현행 특수교육 여건에 관한 통찰을 기반으로 과제 수행에 적합한 지원체계로의 개편이 선행될 필요가 있음.
- 특수교육지원 전달체계에서 중추적인 역할의 주체는 특수교육지원센터이며,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른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역할은 ‘특수교육대상자의 조기발견, 특수교육대상자의 진단·평가, 정보관리, 특수교육 연수, 교수·학습활동의 지원,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 지원, 순회교육 등’임(박유정, 고혜정, 2023). 관련하여 인천광역시교육청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의 특성 중 하나는 배정된 특수교사를 중심으로 조직이 구성·운영되고 있다는 것임. 이와 같은 조직 구성은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직무가 교육, 진단, 행정, 복지 등 다양한 성격을 포함하고 있는 것과 대조적이며, 구조적으로 전문성에 기반한 업무 수행을 어렵게 하는 원인이 됨.
- 위와 같은 배경에서 본 연구는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조직 구성과 직무 수행’에 초점을 두어 현황을 파악하고, ‘가정-단위 학교-특수교육지원센터-전문 기관-지역사회’가 선순환하는 특수교육 지원체계 개선안을 도출하고자 함. 본 연구의 목적에 따른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음.

연구 문제

- ▶ 특수교육지원센터의 학교교육 지원 유형과 기대 역할은 무엇인가?
- ▶ 특수교육지원센터의 기능 강화를 위한 조직 구성 및 협력 체계는 어떠해야 하는가?
- ▶ 특수교육지원센터 중심의 인천형 특수교육 지원체계 개선안은 어떠해야 하는가?



2. 연구 내용 및 방법

가. 연구 내용

- 연구 내용은 3개 영역으로 구성되며, ‘특수교육지원센터의 기대 역할과 학교교육 지원 현황 탐색’,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조직 구성과 협력 체계(안) 개발’, ‘인천형 특수교육 지원체계 개선안 도출’을 주요 내용으로 함.
- ‘특수교육지원센터의 기대 역할과 학교교육 지원 현황 탐색’에서는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특수교육지원센터에 대한 기대 역할을 분석하고, 이에 대응하는 특수교육지원센터의 학교교육 지원 현황을 파악하였음. 분석 자료는 ‘특수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설문조사(총 1,785명 교사 참여)’의 응답과 ‘특수교육지원센터의 학교교육 지원에 관한 기초조사(모집단 총 120명 중 45명 참여)’의 응답을 활용함. 주된 조사 내용은 특수(통합)교육의 어려움과 지원 요구,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운영과 직무 수행, 개선 방안에 관한 인식임.
-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조직 구성과 협력 체계(안) 개발’은 국내·외 특수교육지원 운영 사례 분석의 시사점과 앞선 설문조사의 분석 결과를 토대로 수행함. 구체적인 안은 인천광역시교육청이 제시한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방식 개선’의 세부 과제 5개와 중점적으로 논의되어야 할 주요 주제 세 가지를 다음과 같이 상정하여 개선안(초안)을 도출함.
 - 본청-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 간 기능 분리 및 운영 방향 검토
 -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조직 구성과 구성원의 배치·근무 형태 유형화
 - 특수교육지원센터-단위 학교-전문 기관의 기능 및 역할 수행 검토
- ‘인천형 특수교육 지원체계 개선안 도출’은 연구진이 구안한 특수교육 지원체계 개선안을 3차례 걸친 델파이조사를 통해 타당성과 실현 가능성 검토하여 수정·보완함. 구체적인 결과는 1) 기능이 확장된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모형, 2) 기능별 전문성 기반 조직 구성(안), 3) 세부 개선 내용에 따른 운영 원리(안), 4) 특수교육지원센터 중심의 인천형 특수교육 지원체계로 제시함.

나. 연구 방법

- 본 연구에 적용된 연구 방법은 문헌분석, 설문조사, 델파이조사이며 연구 절차와 방법은 다음 [그림 1]과 같음.



- 문헌분석은 인천형 특수교육지원센터의 개선 방향을 정립하기 위하여 국내·외 특수교육 지원체계를 분석함. 국내 지원체계는 17개 시·도교육청의 특수교육 운영계획을 기초 자료로 하여 운영 현황 및 차별화된 지원을 비교·분석함. 국외 지원체계는 특수교육 지원체계가 비교적 잘 정립되어 있다고 평가되는 일본, 독일, 미국의 세부 운영 내용과 사례를 분석함. 분석 결과의 세부 내용은 지원체계 개요, 국가별 특수교육 지원체계의 기능 및 역할, 주요 지원 영역, 협력 체계 등으로 나누어 기술하였으며, 이에 따른 시사점을 소결 형태로 종합하여 제시함.
- 설문조사와 활용 자료는 크게 2가지로 구분됨. 먼저, 교육공동체 구성원이 인식하는 특수교육지원센터에 대한 기대 역할을 분석하기 위하여 ‘특수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설문조사’의 데이터를 활용함. 조사 결과 분석은 일반교사와 특수교사 총 1,785명의 응답을 분석 자료로 하였으며, 주된 조사 내용은 통합 및 특수학급 운영의 어려움과 특수교육지원센터에 대한 기대 역할 등임.
-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조직 개편 방향을 수립하기 위하여 특수교육지원센터 구성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함. 조사에는 센터 소속 교사 및 치료사 총 45명이 참여하였으며, 선택형과 개방형 문항을 혼합하여 다양한 영역에 대한 인식을 파악하고자 하였음. 주된 조사 내용은 수행 직무 및 전문성 인식, 순회교육 현황 및 어려움, 조직 구성과 선발·배치에 관한 의견 등임.



○ 델파이조사는 지원체계 개선안에 대한 수정 사항 및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함. 조사 참여자는 일반 및 특수교육 전문가와 유관기관 담당자 등 총 31명임. 델파이조사 차수(round)에 따른 주요 조사 내용은 다음과 같음.

- 1차: 주제별 특수교육지원센터 개선에 대한 개방형 의견 수렴
- 2차: 주제별 특수교육지원센터 개선(안) 타당성 검토
- 3차: 2차 비합의 문항에 대한 추가 평정 및 종합 의견

○ 델파이조사의 결과는 CVR, 합의도, 수렴도로 제시하였으며, 개방형 문항의 의견은 주요 내용을 중심으로 요약하여 제시함.

3. 연구 결과

가. 특수교육지원센터의 기대 역할과 학교교육 지원 현황

○ 특수교육지원센터의 기대 역할과 학교교육 지원 현황은 2개의 설문조사 데이터를 분석하여 파악하고자 하였음. 특수(통합)교육에 참여하는 교육공동체 구성원들의 응답을 통해 확인한 기대 역할에는 다양한 현장의 요구가 포함되어 있으며, 이에 대응하는 특수교육지원센터의 학교교육 지원 현황은 향후 특수(통합)교육 지원이 확대·개선되어야 할 필요성이 나타남. 이와 관련한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음.

- 1) 특수학급과 통합학급을 운영하는 교사들은 특수교육대상학생들의 도전 행동으로 인한 피해 경험과 지도의 어려움을 공통적으로 호소하였으며, 이를 예방 및 해소하기 위한 행동중재 지원 등에 관한 요구가 강하게 나타남.
- 2) 통합학급을 운영하는 교사들은 희망하는 학교교육 지원으로 ‘특수교육지원센터 특수교사의 학교 배치를 통한 통합교육 지원’에 대한 요구를 상대적으로 높게 보였으며, 통합교육을 위한 협력교사를 배치해야 한다는 내용도 높은 우선순위를 두어 지지하고 있었음.
- 3) 특수학급을 운영하는 교사들은 학생의 장애 정도를 고려하지 않은 보호자의 무리한 요구나 민원에 대한 문제의식을 형성하고 있었으며,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장애 유형 다양화와 장애 정도의 중증화도 현장의 어려움을 가중하고 있다고 응답함. 이러한 어려움에 대하여 특수교사들은 수업 시간의 교수·학습활동 지원에 대한 요구가 높았으며, 학생의 신변 처리나 점심 식사 지도 등 일상생활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실제적인 지원을 요구함.

4) 인천 관내 특수교육지원센터 구성원 대상의 기초조사에서는 다수의 응답자가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순회교육 및 치료지원,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를 주무로 하고 있었음. 이 외에도 특수교육지원센터에 부여된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었으나, 각 기능에 대한 응답률은 8~20% 수준에 머물러 하나의 기능당 소수의 인력이 투입되는 구조를 확인함. 이와 관련하여 특수교육지원센터 구성원들은 직무 중 외부 협력을 통해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은 축소·이관하고, 학교를 직접 지원하는 교육활동을 강화해야 한다고 응답함.

5) 해당 조사에서는 지역적 특성, 특수교육지원 수요, 지원 주체의 전문성을 고려한 센터 운영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조사함. 그 결과 연구진이 제시한 모든 운영 원리에 대해서 긍정 응답과 부정 응답이 유사한 비율로 혼재되어 나타났으며, 센터별로 인식 경향에도 차이를 보임. 이러한 배경에서 특수교육지원센터 소속 교사들은 전문성에 기반한 조직 구성 개편과 기능 강화를 위한 세부안에 대해 동의하는 양상을 보였으며, 구체적인 방법과 개선안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함.

나. 특수교육지원센터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조직 구성과 협력 체계

○ 본 연구에서는 국내·외 사례 분석의 시사점과 선행 조사의 분석 결과를 토대로 개선안의 초안을 구인함. 구체적으로 논의된 주제는 총 7개이며, 주제별로 도출된 개선의 주안점과 쟁점은 다음 <표 1>과 같이 종합할 수 있음.

<표 1> 특수교육지원센터 개선안(초안)의 주제별 주안점과 쟁점

주제	주안점 및 쟁점	
본청과 교육지원청의 역할 정립	주안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청과 교육지원청 산하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중복 업무 해소 및 기능 분화 • 본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문성이 요구되는 영역에 대한 체계 정립 및 외부기관 협력 주도 - 민감도가 높은 사안에 대한 직무 전담 • 교육지원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장 접근성이 높은 학교교육 지원에 집중
	쟁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지원청 산하 특수교육지원센터가 전 학교급(특수학교 제외)의 학교교육 지원을 전담하는 데 대한 부담 기증 우려
전문성 기반의 조직·인적 구성 쇄신	주안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수교사 중심으로 구성된 조직을 직무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구조로 개편 • 직무 분야에 따른 특화된 인력 충원 필요
	쟁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 전담 인력, 행동중재전문관 등 인력 충원에 대한 적정 규모 산정 필요



주제	주안점 및 쟁점	
순회교육의 범위 확대 정립	주안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범위 확대: 교사 교육 지원, 가족지원, 진로·진학 지원 등을 포함한 교육활동 일체를 순회교육으로 인정 대상 확대: 특수교육대상학생이 교육을 받는 특수학교, 특수학급, 통합학급을 지원 대상화
	쟁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교 현장 수요에 따른 순회교육의 점진적 확대 계획 필요 현장 요구도가 높은 특수교사 결·보강에 대한 지원 여부 검토 필요
특수교육지원센터 및 거점학교(원)에 순회교사 배치·근무 확대	주안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특수교육지원 수요에 근거한 기본 운영(현행)과 지역 특화형(센터 다원화)의 선택적 운영
	쟁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거점학교(원)를 중심으로 한 클러스터 운영의 필요성 검토
진단·평가 기능 강화를 위한 해당 업무의 외부기관 연계·위탁	주안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초 진단은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하되, 심층 진단의 경우 교육적 맥락을 평가에 반영하기 위하여 특수교육지원센터 내에서 자체 운영
	쟁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특수교육지원센터 소속 교사의 진단·평가 전문성 확보
특수학교 입학 희망자 선정·심사 운영 체계 개선	주안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선정·심사의 고도화와 전담 인력의 전문성을 고려한 운영 체계 구축
	쟁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특수교사의 교육 전문성과 임상심리사의 병리 해석 전문성을 고려한 심사 주체 논의 필요
특수학급 미설치교에 대한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지원 확대	주안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특수교사가 부재한 특수학급 미설치교에 대한 다원적 지원 희망교에 대한 특수교육지원센터 교사 파견
	쟁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특수교육지원센터 소속 교사의 권한과 지위, 지원의 효과성에 대한 검토 필요

○ 위 표에서 제시하고 있는 주제별 주안점과 쟁점은 특수교육지원센터의 개선과 인천형 특수교육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논의가 필요한 사항들이 망라되어 있음. 특수교육지원센터의 개선은 특수(통합)교육에 대한 지원 요구를 기반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단순히 행정·서무를 안내하는 기관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학교교육 현장을 지원하는 주체로서 자리매김해야 함. 이를 위하여 인적 구성의 혁신과 다양한 협력 주체와의 연계성 강화를 주요 과제로 제시할 수 있음.

다. 특수교육지원센터 중심의 인천형 특수교육 지원체계 개선안

○ 연구 결과를 종합하여 도출한 특수교육지원센터 중심의 인천형 특수교육 지원체계의 흐름은 다음 [그림 2]와 같음.



[그림 2] 인천형 특수교육 지원체계 흐름

○ ‘인천형 특수교육 지원체계’라 함은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위상을 제고하고, 학교교육 지원의 주체로서 특수교육지원센터가 기능하도록 구상한 것을 의미함. 구체적으로는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센터 분화, 관내 특수교육대상자의 요구에 대응하는 지원 운영, 전문성 기반의 조직 구성과 직무 수행 등을 골자로 함.

○ 인천형 특수교육 지원체계는 특수교육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작동하며, 본청의 특수교육지원청과 교육지원청의 특수교육지원청은 기관 운영 목적에 따라 분화된 고유의 기능을 수행함. 이와 더불어,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전문성이 필요한 영역의 지원과 지역사회 차원의 장애인식 개선 등이 동시에 이루어지도록 해야 함. 특히 인천의 특수교육지원센터가 제공하는 특수교육지원은 학교교육 지원에 중점을 두되, 특수교육대상학생들이 필요로 하는 보편적 지원을 병행하여 단위 학교와 가정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함.

○ 인천형 특수교육 지원체계의 운영은 학생, 학부모, 교사로 하여금 체감도 높은 지원을 제공하도록 하며, 이에 따른 기대효과는 다음 [그림 3]과 같음.



[그림 3] 인천형 특수교육 지원체계의 기대효과

- 특수교육대상학생들은 개별화교육계획에 기반한 질 높은 교육을 제공받을 수 있으며, 학교 안팎의 복합 지원을 통해 학교 생활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이와 더불어 적극적인 순회교육을 지원하여 특수교육대상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장애인식 개선 교육 등의 활성화를 통해 사회구성원으로서 원활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식을 제고할 수 있음.
- 학부모의 경우 자녀와 관련하여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진단·평가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개별화교육계획에 기반한 협력 교수·학습을 통해 자녀의 성장을 기대할 수 있음. 또한 특수교육대상 자녀가 취학한 다양한 환경에 대한 적합성 높은 지원을 통해 교육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고, 가족지원을 통해 건강한 가정을 유지할 수 있음.
- 교사의 경우 특수(통합)학급 운영에 있어 협력 교수·학습을 통해 학생 지도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으며, 특수교육대상학생에 대한 치료와 행동중재 지원 등을 통해 안전한 환경에서 교육활동을 전개할 수 있음. 이 외에도 직·간접적인 특수교육 및 통합교육 운영에 관한 다각적 지원을 통해 학습권과 교권이 모두 보호되는 교육활동 여건 조성을 기대할 수 있음.

4. 연구 제언

가. 정책 제언

-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개선과 현장 인식 제고
- 특수교육지원센터 기능 활성화를 위한 인적 자원 확보
- 특수교육지원의 질 제고를 위한 협력 체계 구축
- 특수교육지원에 관한 정책 평가 및 개선 운영

나. 후속 연구 제언

- 특수(통합)교육 수요 예측에 따른 특수교육지원 조직 개편에 관한 연구
- 특수(통합)교육지원을 위한 거버넌스 운영 모델 연구
- 특수(통합)교육지원에 관한 모니터링 및 평가 방안 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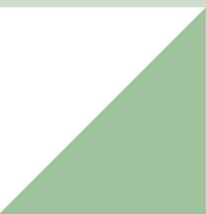


2



수시 연구

- 이주배경학생 밀집학교 지원 방안 연구
-학생들의 학교생활을 중심으로-
- 유·초 연계 기반의 취학 전후 교육을 위한 지원 방안 연구
- 인천광역시 학생생활종합실태조사Ⅱ(4차년도)





이주배경학생 밀집학교 지원 방안 연구

- 학생들의 학교생활을 중심으로 -

연구책임자 : 문영진
공동연구원 : 박희진, 장민
협력연구원 : 노미주
연구보조원 : 김효은, 최혜인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인천 관내 이주배경학생 비율은 2015년 약 1.3%(4,516명)에서 10년 후인 2024년 약 4.5%(13,773명)로 3.2%p 증가함(인천광역시교육청, 2025.2.). 이주배경학생 비율이 점차 증가하면서 전체 재학생 수가 100명 이상인 학교 중 이주배경학생 비율이 30% 이상인 “이주배경학생 밀집학교”가 등장함. 2024년까지 인천 내 이주배경학생 밀집학교는 2개교였으나 2025년부터 3개교가 늘어 5개교가 되었고, 일부 학교는 이미 이주배경학생 비율이 60%를 넘어섰음.

○ 이주배경학생 밀집학교가 겪는 어려움은 일반학교의 어려움과는 다름. 이주배경학생 다수가 한국어 의사소통 자체에 대한 어려움을 겪으면서 수업과 교육활동, 학교생활 전반에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학교 운영에 있어서도 학부모의 협조나 학교 참여가 저조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임(박철희 외, 2016; 박희진, 최수진, 2022, 연보라 외, 2021; 윤치권 외, 2020; 장인실, 박영진, 2018; 장인실, 이은혜, 2019). 아울러, 교직원이나 비이주배경학생 및 학부모에게 기피학교로 치부되는 경향이 있으며, 실제로 찾은 교원 이동, 한국학생의 입학 기회 및 전학 증가 현상 등이 발생하고 있음(윤현희, 이재창, 2024). 향후 인천 내 밀집학교가 증가할 전망에 비추어보면 밀집학교의 실태를 면밀히 파악하여 대비할 필요가 있음.

○ 본 연구는 학생들의 학교생활을 중심으로 이주배경학생 밀집학교의 실태를 파악하여 지원 방안을 탐색하는 데 목적이 있으며, 이를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연구문제를 설정하였음.

- 첫째, 인천 이주배경학생 밀집학교의 현황은 어떠하며, 선행연구를 통해 살펴본 이주배경학생 밀집학교의 현안은 무엇인가?





- 둘째, 이주배경학생 밀집학교 학생들의 학교생활 실태는 어떠한가?
- 셋째, 학생들의 학교생활 실태 분석을 통해 도출한 이주배경학생 밀집학교 지원 방안은 무엇인가?

2. 연구 내용 및 방법

가. 연구 내용

- 본 연구의 내용은 1) 이주배경학생 밀집학교 현황 및 현안 분석, 2) 학교구성원이 바라본 이주배경학생 밀집학교 학생들의 학교생활, 3) 이주배경학생 밀집학교 지원 방안 탐색으로 구성됨.

나. 연구 방법

- 문헌분석은 이주배경학생 밀집학교 관련 선행연구, 인천시교육청 및 교육부에서 생산한 다문화교육 관련 정책 문서 등을 분석하는 데 활용함.

- 통계분석은 학교알리미 자료, 교육부 2024 시도별 다문화학생 밀집학교 현황 자료, 인천시교육청 2025학년도 다문화교육 지원 계획 내 통계자료 등을 분석하여 인천지역 이주배경학생 밀집학교 현황을 살펴보기 위해 실시함.

- 면담분석은 학생과 학부모가 바라본 이주배경학생 밀집학교 학생들의 학교생활을 파악하기 위해 실시함. 인천 소재 이주배경학생 밀집학교 5개교 학생(40명) 및 학부모(26명)를 대상으로 선정함. 초등학교는 6학년, 중학교는 3학년으로 대상 학년을 선정하였고, 이주배경과 비이주배경으로 집단을 구분하였음. 면담 내용은 반구조화된 질문지로 구성하였고, 학교생활을 학습 측면과 생활 측면으로 구분하여 내용을 구성함. 자료수집은 2025년 5월부터 7월까지 2개월간 실시하였고, 학생은 배경에 따라 4명씩 집단면담, 학부모는 개별면담과 집단면담을 병행함. 면담은 전체 참여자들의 동의를 받아 녹음하여 전량 전사하였음. 전사 자료는 연구진이 반복하여 읽고, 공통 내용을 중심으로 범주화함.

- 초점집단면접(Focus Group Interview; FGI) 역시 교원이 바라본 이주배경학생 밀집학교의 모습을 확인하기 위해 실시함. 이에, 인천 소재 이주배경학생 밀집학교 5개교 교원(교장, 교감, 교사) 28명을 참여자로 선정하였음. 면담 내용은 반구조화된 질문지로 구성하였음. 자료수집은 2025년 7월 14일(월)부터 18일(금)까지 5일간 진행되었으며, 학교별 교장, 교감 그룹과 (부장)교사 그룹으로 구분하여 집단 FGI를 실시함. 면담은 참여자들의 동의를 받아 녹음하여 전량 전사하였고, 전사 자료는 연구진이 반복하여 읽고, 공통 내용을 중심으로 범주화하였음.

- 전문가협의회 및 자문은 면담 및 FGI 계획, 방안 마련 등을 위해 필요 시 실시함.

3. 연구 결과

가. 이주배경학생 밀집학교 현황 및 현안 분석 결과

- 이주배경학생 밀집학교의 현황 및 현안 분석 결과, 인천의 이주배경학생 비율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일부 학교에 집중되는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남. 선행연구로 살펴본 이주배경학생 밀집학교의 현안을 보면, 이러한 밀집은 지역의 사회·경제적 조건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었고, 학습 결손 누적, 한국어능력 부족으로 인한 수업 이해도 저하, 교사 업무 부담 증가, 보호자와의 소통 문제 등 다차원적 어려움을 야기하였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사의 협력적 문화, 지역사회와의 연계, 맞춤형 수업 운영 등을 통해 자율적 회복력을 보여줌. 이는 밀집학교가 새로운 학교혁신의 가능성을 내포한 공간임을 시사함.

나. 학교구성원이 바라본 이주배경학생 밀집학교 학생들의 학교생활

- 밀집학교 구성원의 경험과 인식을 살펴본 결과, 학생의 경우 이주배경학생과 비이주배경학생은 동일한 학교 환경 안에서 학습활동과 생활을 공유하고 있으나, 수업 참여와 학교생활에 대한 경험은 상이하게 나타남. 학습 측면에서 이주배경학생들은 대체로 학교생활에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며 교사의 관심과 배려를 높게 평가함. 그러나 수업 중 교사의 설명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거나 교과별 개념 이해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았으며, 그로 인해 학습 참여가 수동적이거나 단편적으로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었음. 반면, 비이주배경학생들은 수업 중 언어소통의 문제로 인해 교실의 집중도가 떨어진다고 인식하였으며, 교사가 이주배경학생을 지도하는 데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함으로써 자신의 학습권이 침해된다고 느끼는 경우도 있음. 이로 인해 수업의 공정성에 대한 인식 차가 발생하였고, 일부는 역차별에 대한 불만을 표하기도 함.

- 생활 및 관계 측면에서도 양 집단의 인식은 다소 상이하였음. 이주배경학생들은 대체로 학교 생활을 즐겁게 여기며 또래 관계에 만족한다고 응답하였으나, 언어 표현의 제약으로 깊은 친밀감을 형성하기 어렵다고 인식함. 이에 반해, 비이주배경학생들은 일부 이주배경학생의 규칙 위반이나 수업 방해를 지적하며 학교생활의 불편함을 호소하였고, 학교 소속감이 낮아지는 경향을 보임. 또한 교사와의 관계에서도 비이주배경학생은 교사가 이주배경학생을 더 배



려한다고 느낀 반면, 이주배경학생은 교사의 관심과 정서적 지원이 충분하지 않다고 인식하는 등 상반된 시각을 드러냄.

○ 학부모의 경험 역시 배경에 따라 상이한 양상을 보임. 비이주배경 학부모는 교실 내 언어 문제로 인해 수업 분위기가 산만해지고 교사가 이주배경학생을 지원하는 데 집중함으로써 자녀의 학습권이 침해되고 있다고 인식함. 이들은 학교가 모든 학생의 수준을 고려한 수업 운영과 학습지원체제를 마련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함. 반면, 이주배경 학부모는 학교를 통한 자녀의 한국어 능력 향상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교과 학습의 내용 이해나 평가에서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진술함. 특히, 한국어 습득이 늦을수록 학습격차가 누적된다 고 지적하며, 한국어교육과 교과학습을 통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체계적 접근의 필요성을 강조함.

○ 또한, 일부 학부모는 자녀의 또래 관계 형성에서 언어와 문화의 차이가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응답함. 친구 관계에서 역할이 불균형하게 분담되거나, 언어 소통이 가능한 학생에게 반복적으로 책임이 집중되는 상황을 목격하고 있었음. 이러한 경험은 교사와 학생 간의 상호작용뿐만 아니라 학급 내 관계 형성에서도 언어 능력의 격차가 구조적 문제로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줌.

○ 끝으로 교원 FGI 결과, 이주배경학생 밀집학교의 교원들은 공통적으로 기존의 전문성이 통하지 않아 수업과 생활지도의 어려움을 겪고 있었음. 급격히 변화한 학급 구성과 언어 수준의 격차로 인해 기존의 교수 경험이 무력화되며, 교사들은 “모두가 신규교사처럼” 느껴질 만큼의 혼란과 좌절을 경험함. 이런 상황에서 학교는 교사의 현신으로 지탱되고 있었고, 이에 대해 교사들은 개별 교사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음을 지적함. 이는 이주배경학생 밀집학교에 대한 지원이 교원의 수업 전문성 향상과 더불어, 학교 차원의 협력적 대응 구조와 제도적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함을 시사함.

○ 한편, 교사들 사이에는 이주배경학생에 대한 무의식적 편견과 동화주의적 시각이 잔존하고 있었음. 모국어 사용, 이주민의 모문화 향유와 커뮤니티 형성 등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있었고, 이주민의 소수자다움에 대한 기대와 “역차별”이라는 용어를 다소 무비판적으로 사용하기도 함. 이는 다양성에 대한 포용적 관점보다 동질적 학교 질서로의 편입을 교육의 목표로 인식하는 경향을 보여주는 것이기에 교원들의 인식 제고가 필요함.

다. 이주배경학생 밀집학교 지원 방안 탐색

○ 본 연구는 이주배경학생 밀집학교의 지원 방안을 3가지로 제안함. 첫 번째는 한국어학습자 지원 방안임. 한국어학습자 지원은 단순한 언어교육이 아니라 학습권 보장을 위한 핵심 과제

로서, ‘진단-맞춤형 지원-전인적 성장 도모’의 3단계로 지원 체계를 제안함. 구체적으로는 입학 전 정확한 한국어능력·기초학력·정서행동특성을 진단하고, 수준별 맞춤형 교육과정과 교과 연계 학습을 제공하며, 심리·정서적 안정 및 사회적 관계 형성을 통합 지원해야 함을 강조함. 또한 지역사회와 연계한 한국어교육 체계 마련, 이중언어 전문상담사 배치 등 지속 가능한 학교체계 기반의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시함.

○ 두 번째는 국내출생 및 한국국적 이주배경학생 지원 방안임. 이들은 언어적 어려움보다는 정체성 혼란과 진로 불안, 학교생활의 소속감 결여를 주요 문제로 경험하고 있었음. 이에 학생의 심리·정서적 지원과 함께 정체성 형성 및 소속감 향상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심리·정서적 지원, 교육과정 및 학교문화, 진로 탐색 지원, 지역사회·가정 연계 측면에서 세부 지원 내용을 제안함.

○ 세 번째는 모든 학생 지원 방안임. 이는 모든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는 학교교육의 정상화를 지향함. 학교는 학생 구성의 다양성을 전제로 한 교육과정 운영과 수업 내실화를 추진해야 함. 이를 위하여, 국가 수준 교육과정의 개정과 이주배경학생 밀집학교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학교 교육과정 개발·운영, 다수준 수업 운영의 내실화 및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이중언어 수업 활성화, 밀집학교 역량 강화를 위한 교원 인식 개선 및 역량 강화, 이중언어강사·통역보조원 등의 전문성 강화를 제시함.

4. 연구 제언

가. 정책 제언

○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8가지의 정책 제언을 제안함. 첫째, “(가칭)인천세계로초등학교” 설립임. 교육국제화특구로 지정된 연수구의 밀집학교 2개교를 통합하여 1교 2캠퍼스 체제로 새로운 다문화교육 중심의 공교육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임. (가칭)인천세계로초등학교의 비전은 “다양성과 포용 기반의 세계도시형 학교”로 설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중점 방향으로 △모국어 기반 맞춤형 교육, △한국어교육, △인천형 세계시민교육, △AI 및 디지털 기반 교육, △학교 공간 및 환경 혁신을 제안함.

○ 둘째, 다문화 벨트형 기반 인천형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임. 교육국제화특구로 지정된 연수구의 밀집학교 2개교를 포함한 인근 3개교 등 총 5개교를 묶어 “인천 다문화 벨트구역”으로 지정하고, 다문화 벨트형 기반 인천형 교육과정 운영 모델을 제안함. 5개교는 행정적으로는 독



립된 학교이나, 교육과정·공간·교수 인력·학생 지원체계를 공유하는 1권역 다중캠퍼스형 운영체제를 구성함. 5개교가 동일한 교육과정을 각각 운영하기보다 기능과 역할에 따라 캠퍼스 별 중점교육을 특화하여 운영하는 것을 제시함. 또한 5개 캠퍼스 내에 권역형 다문화교육지원센터 설립을 통해 학교교육 지원 체계 마련도 제안함.

- 셋째, 이중언어강사 인력풀 확대 및 전문성 제고임. 이주배경학생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이중언어강사 인력풀의 다층적 확대 전략 수립이 필요함. 가령, 밀집학교 졸업생, 인근 대학의 재학생 및 졸업생, 이중언어가 가능한 학부모 등 다양한 인적 자원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야 하며, 나아가 해외 자매결연학교 교사 파견도 고려할 수 있음. 또한, 언어권별 교육 방법론, KSL 이해, 기초학력 지원, 아동 발달, 학교문화 이해, 상담 기초 등을 포함한 연수 모듈을 개발해 제공함으로써 이중언어강사의 전문성 제고도 필요함.
- 넷째, 다양한 성장 경로 제공임. 이주배경학생들이 교육 분야에서 활약할 수 있도록 초등교사 임용시험과 교육행정직 임용시험에 다문화인재전형을 신설하여 일정 인원을 선발하고 밀집학교에 우선 배치할 필요가 있음.
- 다섯째, 이주배경학생 밀집학교 여건 개선임. 밀집학교가 학교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업무 경감과 인센티브 제공이 필요하며, 인사제도 개선과 학급당 학생 수 감축이 단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임.
- 여섯째. 교원 인식 제고임. 예비교사 단계부터 현직교사와 관리자까지 전반적인 인식과 전문성 제고를 위한 체계적인 연수가 제공되어야 함. 예비교사 대상으로는 다문화교육에 관한 교과를 필수 교직과목으로 지정하고, 단기 실습이나 수업관찰의 형태로 밀집학교를 직접 경험해보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음. 현직교사 대상으로는 ‘길이-넓이-깊이’를 확장하는 관점으로, 경력에 따른 모듈 구성, 역할과 학교 맥락에 따른 모듈 구성, 기초-실천-전문으로 이어지는 단계별 심화체계를 제안함. 교장·교감 대상으로는 학교경영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주제 중심으로 연수 운영이 필요함.
- 일곱째, 소규모학교 유휴공간 활용 권역별 다문화교육지원센터 설치임. 이주배경학생 밀집학교가 있는 동부와 북부를 중심으로 소규모학교의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다문화교육지원센터를 설치하고, 한국어교육, 다문화교육, 기초학력 지원, 정서·적응 지원 등 통합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학교 밖 기관(지역대학, 이주민지원센터, 지역사회기관 등)과 연계하여 지속 가능한 지원 체계 구축을 제안함.
- 여덟째, 국가 수준 교육과정 개정 건의임. 시도교육감협의회를 중심으로 국가 수준 교육과정에 다언어·다문화 요소(세계시민교육, 상호문화교육, KSL 기반 교육과정 등)를 반영하여 명확히 제시하고, 기본 요소를 중심으로 교육과정을 간소화하여 교원의 수업 부담을 완화함으

로써 학생의 배움의 질을 높이며, 한국어학습자·기초학력 부진 학생에게 적용 가능하도록 최소성취기준을 유연화하는 등의 방안을 교육부에 공동 건의할 필요가 있음.

나. 후속 연구 제언

- 첫째, 이주배경학생 밀집학교 맞춤형 교육과정 개발 연구임. 모든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이주배경학생 밀집학교에 특화된 맞춤형 교육과정 개발이 필요함. 개별 학교는 지리적 위치, 인적 구성, 학교문화 등에 따라 그 특성과 상황, 환경이 각각 다르기에 표준화된 교육과정을 개발하는 것은 어려우며, 개발하더라도 학교마다 그 특징에 맞게 재구성해야 함. 따라서 이주배경학생 밀집학교별 교육과정 전문가들로 구성된 TF팀을 구성하여 실제적이고 실행 가능한 교육과정 모델을 개발할 필요가 있음.
- 둘째, 인천 다문화교육 정책 진단 연구임. 인천교육청은 수년간 다문화교육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왔으나, 본 연구의 면담 결과, 정책에 대한 현장의 체감 효과는 드러나지 않았음. 이는 정책이 어떻게 투입되고, 어떤 과정을 거쳐 현장에 구현되며, 실제로 목표한 효과를 내고 있는지를 구조적으로 점검할 필요성을 시사함.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인천의 다문화교육 정책 전반을 대상으로, 정책 설계·집행·성과의 전 과정을 분석하는 정책 진단 연구를 수행할 필요가 있음.

유·초 연계 기반의 취학 전후 교육을 위한 지원 방안 연구

연구책임자 : 임태원
공동연구원 : 김호, 정재원, 한진호
협력연구원 : 김주민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우리나라에서 ‘교육’ 가지는 의미는 ‘지식과 기술 따위를 가르치며 인격을 길러 줌(표준어국어대사전, 2025)’이라는 사전적인 뜻을 넘어, 국가와 사회를 발전시키고 그 가운데 개인의 성공적인 삶을 보장하는 수단으로 여겨짐. 이에 따라 국가의 교육을 주관하는 부처(현 교육부)는 주된 정책 목표를 대대적으로 교육 기회의 균등과 결과적 평등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수립해 왔음. 이처럼 우리나라에서는 교육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 의미에 따라 ‘교육’ 자체가 평등의 목표이자 수단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관심이 학령기 이전의 생애 초기 단계로 확장되고 있음.
- 생애 초기 교육은 영유아를 대상의 교육을 통칭하며, 유아기의 교육 경험이 취학 이후의 발달을 예측한다는 연구 결과들은 유아교육과 연계한 초등학교로의 안정적 전이의 중요성을 뒷받침함. 이러한 맥락에서 최근 정책적 확산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유·초 이음교육’이며,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주도로 시범사업을 운영하여 유아교육기관과 초등학교가 연계한 교육 지원의 실행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음(문무경 외, 2022). 그러나 현행 체제에서 이음교육 운영 방법의 결정과 질 관리는 교사에게 일임됨. 이러한 운영 방식은 본질적으로 이음교육의 목표와 내용, 방법이 교육 공동체 구성원에 의해 적확하게 요구되었는가에 대한 답변을 내어놓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음.
- 취학 준비와 학교생활 적응의 책무를 교사와 기관에 위임하는 실태에 대해서도 비판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음. 현행하는 취학에 관한 논의는 ‘학생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이를 위한 교육 또한 교사의 역할 수행을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는 형국임. 그러나 학생의 개인적 특성과 더불어 가정·변인(부모의 사회·경제적 수준, 교육에 대한 관심도 등)이 취

학 준비와 학교 적응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김진미, 2019; 정연아, 박해미, 2022)를 고려할 때, 취학에 대한 관점이 ‘교육 주체는 학생의 취학과 적응을 위해 무엇을 준비하고 지원해야 하는가?’로 변화할 필요가 있음. 이러한 질문에 따르면 다양한 배경을 가진 학생들의 취학을 지원하기 위한 가정과 지역사회의 역할을 강화하는 방안 마련도 시급함.

- 현시점에서 유아의 전인 발달과 전환기에 발생하는 교육 격차를 완화해야 한다는 방향에는 이견이 없을 것임. 그러나 취학 전후 교육의 범위나 이를 위한 지원 요구 파악, 구체적인 지원 방안에 대한 논의는 미흡한 수준임.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에서는 교육공동체 구성원의 취학에 관한 인식과 경험을 살펴보고, 취학 전후 교육에 대한 지원 요구를 탐색한 결과를 토대로 지원 방안을 도출하여 제언하고자 함.

연구 문제

- ▶ 교육 주체(보호자와 교사)의 취학에 관한 인식과 지원 경험은 어떠한가?
- ▶ 교육 주체(보호자와 교사)의 취학 전후 교육에 대한 요구와 지원 방안은 무엇인가?

2. 연구 내용 및 방법

가. 연구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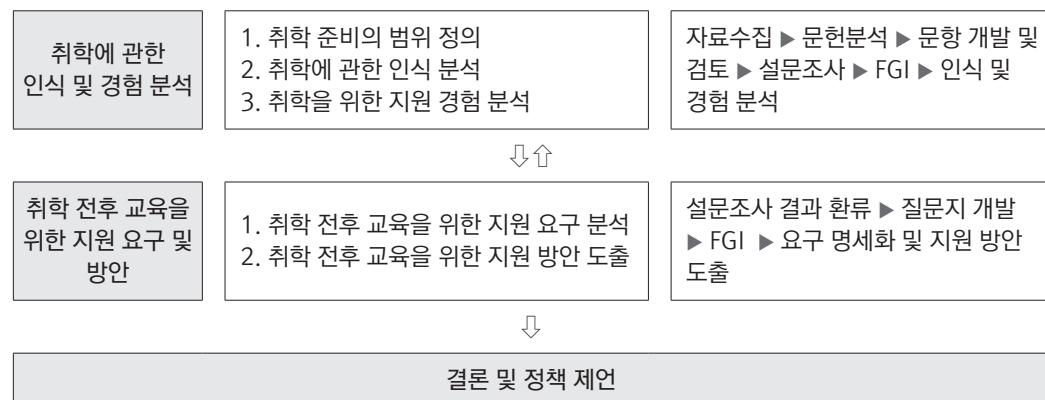
- 연구 내용은 연구 문제에 따라 2개 영역으로 구성되며, ‘취학에 대한 인식과 경험’, ‘취학 전후 교육을 위한 지원 요구와 방안’을 주요 내용으로 함.
- ‘취학에 대한 인식과 경험’에서는 선행연구 분석을 통해 연구진이 조작적으로 정의한 취학 준비의 개념을 바탕으로 교육공동체 구성원의 인식을 조사하였음. 또한 취학 전후 과정에서 학생, 보호자, 교사가 경험하는 어려움의 양상을 종합적으로 탐색하고, 이를 위해 수행한 지원 경험을 설문조사와 FGI를 통해 수집함. 연구 참여자는 연구 참여가 가능한 실질 요건(연령 등을 고려하여 학생 제외)을 고려하여 보호자와 교사를 대상으로 한정함.
- 기존에 수행된 취학 준비 및 유·초 이음(연계)교육에 관한 논의는 일회성 행사(초등학교 견학 등)나 생활 적응을 위한 연습(오래 앉아 있기 연습 등)에 머무르는 등 범위의 한계를 보임(장명립 외, 2014). 이와 관련하여 김호(2024)가 제시한 것과 같이 유·초 연계의 개념을 확장하고, 장기적 관점에서 유아교육과 초등교육을 유기적으로 구성하는 방안 모색이 필요함. 또한 선행연구



에서 도출한 시사점과 같이 취학 전후 교육을 위한 지원 및 가이드라인의 부재, 확장된 교육 생태계의 관점에서 지역사회의 역할 명료화의 필요 등에 따라 관련 방안 마련이 시급함. 이에 본 연구에서는 보호자와 교사의 취학 전후 교육을 위한 지원 요구를 파악하고, 이에 근거한 지원 방안을 제시하였음.

나. 연구 방법

○ 본 연구의 주요 내용에 따라 적용된 연구 방법은 문헌분석, 설문조사, FGI이며 연구 절차와 방법은 다음 [그림 1]과 같음.



[그림 1] 연구 절차 및 방법

○ 문헌분석은 취학 준비의 범위를 조작적으로 정의하고, 국외 유·초 이음의 동향을 통해 시사점을 도출하려는 목적으로 실시하였음. 먼저, 취학 준비의 범위와 내용을 조작적으로 정의하기 위하여 학교준비도의 개념과 교육 격차에 관한 선행연구를 분석하여 제시함. 다음으로 국외 유·초 연계교육의 방향성과 동향은 핀란드, 영국, 호주, 뉴질랜드를 중심으로 살펴보았음. 각 국가의 유·초 연계는 개요와 더불어 교육과정 체계와 법적 기반, 연계 철학과 접근법, 실천 방법과 지원 체계 등을 분석하였으며, 이를 종합하여 아동 중심의 전이를 비롯한 6개의 핵심 가치와 시사점을 도출하여 제시함.

○ 설문조사는 ‘취학에 관한 인식 및 경험’과 ‘취학 전후 교육을 위한 지원 요구와 방안’을 탐색하기 위한 목적으로 2025년 7월 중 12일에 걸쳐 온라인 설문 시스템을 통해 수행함. 조사 참여자는 유아교육기관과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양육·지도하는 보호자 1,431명과 교사 509명(유아 150명, 초등 359명)임. 설문조사의 영역은 1) 취학에 관한 인식과 지원 경험, 2) 취학 전후 교육을 위한 지원 요구와 방안으로 구분되며, 문항의 세부 구성은 다음 <표 1>과 같음.

<표 1> 설문조사 문항 구성

대상	영역	내용	문항 수
보호자	취학에 관한 인식과 지원 경험	취학을 위한 교육 지원의 필요성	1
		취학 준비 영역과 내용별 익혀야 하는 수준	23
		초등학교 취학 시 영역별 준비 정도	5
		(초등 보호자) 초등학교 취학 후 학생이 경험한 어려움	2
		가정 차원의 취학을 위한 교육 지원 경험	1
		행복한 유아교육기관에서 초등학교로의 이음	1
	취학 전후 교육을 위한 지원 요구와 방안	학생의 취학 준비에 대한 고민 정도	1
		취학 전후 교육에 관한 지원 주체별 역할 수행	19
		(주관식) 취학 전후 교육에 관한 지원 주체별 지원 역할	1
		취학 지원을 위한 교육 운영 방안	1
		(주관식) 취학 전후 교육에 관한 지원 방안 제안	1
총계			56
교사	취학에 관한 인식과 지원 경험	취학을 위한 교육 지원의 필요성	1
		취학 준비 영역과 내용별 익혀야 하는 수준	23
		초등학교 취학 시 영역별 준비 정도	5
		취학 전후 학생이 경험한 어려움	2
		교사 차원의 취학을 위한 교육 지원 경험	1
		기관 차원의 취학을 위한 교육 지원 경험	1
	취학 전후 교육을 위한 지원 요구와 방안	행복한 유아교육기관에서 초등학교로의 이음	1
		취학 전후 교육에 관한 지원 주체별 역할 수행	19
		(주관식) 취학 전후 교육에 관한 지원 주체별 지원 역할	1
		취학 지원을 위한 교육 운영 방안	1
총계			56

○ 설문조사 결과는 조사 참여자의 특성을 주요 변인으로 t-검정을 실시함. 한편, 개방형 ChatGPT를 활용하여 1차적으로 의미 단위별 코딩과 군집화한 뒤, 빈도 및 공기어(co-occurrence) 기반의 패턴을 검토하여 상위 주제를 도출함.

○ FGI는 설문조사 분석 결과를 심층적으로 이해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었으며, 보호자, 유아교사, 초등교사를 참여자로 2025년 8~9월 중 ZOOM을 활용하여 실시함. 연구 참여자는 총 53명(보호자 26명, 유아교사 13명, 초등교사 14명)으로, 설문조사 참여자 중 자발적 면담 참여 희망자와 유·초 이음의 주관 부서에서 추천한 인사를 조합하여 최종 참여자를 구성하였음. 면담 내용은 참여자의 동의를 얻어 전체 녹음·전사하였으며, 전사된 자료는 MAXQDA를 사용



하여 내용 분석 및 코드화를 수행함. 면담 자료의 분석은 공동연구진의 교차 검토를 통해 재범 주화 및 합의 과정을 거쳐 제시함.

3. 연구 결과

가. 교육 주체(보호자, 교사)의 취학에 관한 인식과 지원 경험

- 취학을 위한 교육 지원의 필요성은 보호자와 교사 모두 높게 인식하고 있었으며, 기관을 기준으로는 유아교육기관 학생의 보호자와 교사가 상대적으로 지원의 필요성을 더 높게 인식하고 있었음. 동일한 주제에 대하여 FGI에서는 다양하고 불확실한 취학에 관한 정보가 혼재하고 있어, 취학을 앞둔 학생을 양육하고 지도하는 주체들은 구조적으로 막연한 불안감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는 것에 공감대가 형성되었음.
- 취학 준비에 관한 인식은 5개 영역의 23개 하위 문항을 통해 확인하였으며, 주체들이 희망 또는 경험한 준비 정도의 평균을 요약한 것은 다음 <표 2>와 같음.

<표 2> 취학을 위한 영역별 준비 희망/경험 정도(전체)

영역	유아 보호자	초등 보호자	유아 교사	초등 교사
1) 자기 이해와 주체성	3.69	3.71	3.49	3.14
2) 공동체 생활	3.87	3.90	3.59	2.86
3) 배움과 성장	3.74	3.83	3.59	3.10
4) 친구와의 소중한 만남	3.86	3.90	3.74	3.16
5) 선생님과의 따뜻한 만남	3.93	3.92	3.93	3.32

○ 조사에 참여한 모든 주체는 취학을 위해서 ‘선생님과의 따뜻한 만남’이 가장 잘 준비되어야 한다고 인식하거나, 취학 당시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으로 준비되어 있었다고 인식하고 있었음. 그러나 주목해야 할 것은 가정에서 학생을 양육하는 보호자들이 대체로 취학 준비 정도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반면, 교사들의 경우 소속된 기관에 따라 특정 영역에 대해서 다르게 인식하고 있다는 점임. 특히 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을 지도하는 초등교사들은 전체 영역에 대해서 3점 내외의 상대적으로 낮은 평균을 보임과 동시에 학생들이 공동체 생활을 위한 준비가 미흡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러한 결과는 취학을 지원하는 주체 간에 인식이 불일치하는 영역이 있음을 잘 드러냄.

○ 보호자와 교사들은 학생들이 경험하는 어려움을 가까이에서 관찰하는 관찰자 역할도 수행하는데, 취학 직후 학생들이 경험한 어려움에 대한 시선이 초등 보호자와 초등교사 사이에 차이가 있음이 확인되었음. 전체 경향에서 취학 시 양육하고 있는 학생이 어려움을 경험했다는 초등 보호자는 267명(31.7%)이었던 반면, 초등교사는 219명(61.0%)이 지도하는 학생이 어려움을 경험했다고 응답함. 이와 같은 인식 차이는 FGI에서도 확인되었는데 보호자와 교사들은 서로의 어려움과 노고를 존중하고 있었으나, 학교 담벼락을 사이에 두고 취학 준비에 대한 원활한 소통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는 인식이 강하게 형성되어 있었음.

○ 취학에 관한 보호자와 교사의 인식 차이에도 불구하고, 두 주체는 가정과 교육 기관에서 학생의 취학을 지원하기 위한 자체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음. 가정 차원에서는 응답자 중 약 80%의 보호자가 ‘적합한 기본생활습관 및 기초 능력 지도(학습, 생활)’를 주된 방법으로 학생을 지원하고 있었으며, 보호자 스스로 진학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 정보를 수집하거나 교육에 참여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음. 한편, 교사와 기관 차원에서는 상대적으로 가정보다 소극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유아교사들은 ‘취학 예정 학교에 방문하거나 학교 생활을 체험하는 프로그램(74명, 24.0%)’을 운영한다는 응답 비율이 가장 높았고, 초등교사들은 ‘기본생활습관과 기초 능력 지도(229명, 18.8%)’에 중점을 두어 지원한다는 응답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남.

○ 취학을 위한 교사와 기관 차원의 지원과 관련하여 FGI 참여자들은 적극적인 방식으로 학생들을 지원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는데, 유아교사와 초등교사를 막론하고 변화하는 환경에 대한 적응 기회 부여와 학생의 가지고 있는 특성에 대한 보호자와의 소통이 취학 지원의 기반이라는 점이 재차 강조되었었음. 또한 이러한 적극적인 지원이 보편화되기 위해서는 교육과정 설계·운영 측면에서 구조적인 변화가 이루어져야 하며, 보호자와 교사 간의 신뢰를 기반한 관계 형성이 무엇보다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이 공통된 의견이었음.

나. 교육 주체의 취학 전후 교육을 위한 지원 요구 및 방안

○ 교육 주체(보호자, 교사)의 취학 전후 교육을 위한 지원 요구를 파악하고, 이에 대응하는 방안을 도출하기 위하여 첫 번째 연구 문제와 마찬가지로 설문조사와 FGI의 결과를 연계 분석하였음. 주요 결과는 취학 전후 교육을 위한 지원 주체별 역할 수행과 시·도교육청 차원의 직접 지원을 위한 교육 운영 방안으로 나누어 종합할 수 있음.

○ 본 연구진이 제시한 취학 전후 교육의 지원 주체는 가정, 유아교육기관, 초등학교, 지역사회로 구분되며, 각 주체의 역할은 실행 연구와 해외 사례 분석 결과를 토대로 4~5개의 지원 역할을 제시함. 이와 관련하여 보호자와 교사들로 하여금 각 주체가 어떠한 역할 수행에 중점을 두어야 하는지 물은 결과는 다음 <표 3>과 같음.



〈표 3〉 취학 전후 교육 지원 주체별 주요 역할

구분	지원 주체	주요 역할
보호자	가정	1 선생님을 우리 아이를 함께 사랑하는 파트너로 신뢰하기
		2 우리 아이만의 특별함과 성장 과정을 이해하고 존중하기
		3 우리 아이의 관심사, 강점, 좋아하는 것들을 선생님과 나누기
	유아 교육 기관	1 가정과 함께 아이의 성장 과정을 공유하고 협력하기
		2 초등교육(기본 습관 및 능력)과 연계하여 아이의 고유한 흥미와 강점을 발견하고 개별적으로 지원하기
		3 아이의 발달과 생활에 대한 자료를 작성하여 가정-초등학교에 제공하기
	초등 학교	1 아이의 놀이와 배움을 자연스럽게 연결할 수 있는 환경 만들기 예) 안전, 시설, 놀이 교구 등
		2 새로운 환경이 안전하고, 자신이 환영받는다고 느낄 수 있도록 맞이하기 예) 학교 방문 및 선생님 만나기 등
		3 가정과 함께 아이들의 행복한 학교생활을 만들기 위한 방법 나누기 예) 권리, 의무, 참여 등
교사	지역 사회	1 모든 아이의 배경과 경험을 존중할 수 있는 포용적 환경 조성하기 예) 다양성 존중에 관한 사업, 교육 자료 개발·보급 등
		2 아이들의 성장과 발달의 다양성에 따라 이를 이해하고 지원하는 가이드라인 개발하기 예) 가정, 학교 등에서 활용 가능한 체크리스트 등
		3 학습자·놀이 중심의 유아교육기관-초등학교 이음을 위한 교육 기간 확보 및 교육과정 개발·보급
	가정	1 선생님을 우리 아이를 함께 사랑하는 파트너로 신뢰하기
		2 유아교육기관과 초등학교의 특성 차이에 대한 이해를 위한 활동 예) 학습, 교육, 연수 참여 등
		3 우리 아이의 관심사, 강점, 좋아하는 것들을 선생님과 나누기
	유아 교육 기관	1 가정과 함께 아이의 성장 과정을 공유하고 협력하기
		2 초등교육(기본 습관 및 능력)과 연계하여 아이의 고유한 흥미와 강점을 발견하고 개별적으로 지원하기
		3 초등학교로의 전이 직전 적응 준비를 위한 사전 교육 운영하기 예) 초등 교실과 유사 환경 생활 등

구분	지원 주체	주요 역할
교사	초등 학교	1 아이의 놀이와 배움을 자연스럽게 연결할 수 있는 환경 만들기 예) 안전, 시설, 놀이 교구 등
		2 가정과 함께 아이들의 행복한 학교생활을 만들기 위한 방법 나누기 예) 권리, 의무, 참여 등
		3 새로운 환경이 안전하고, 자신이 환영받는다고 느낄 수 있도록 맞이하기 예) 학교 방문 및 선생님 만나기 등
교사	지역 사회	1 유아교육기관과 초등학교 간 정보 공유를 위한 제도 및 시스템 구축하기
		2 아이들의 성장과 발달의 다양성에 따라 이를 이해하고 지원하는 가이드라인 개발하기 예) 가정, 학교 등에서 활용 가능한 체크리스트 등
		3 모든 아이의 배경과 경험을 존중할 수 있는 포용적 환경 조성하기 예) 다양성 존중에 관한 사업, 교육 자료 개발·보급 등

○ 가정 차원의 지원에서 보호자는 ‘우리 아이만의 특별함과 성장 과정을 이해하고 존중하기’를 중요한 지원으로 인식하는 반면, 교사들은 가정에서 학생을 양육하는 보호자들이 ‘유아교육 기관과 초등학교의 특성 차이를 이해하기 위한 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상대적으로 더 중요한 역할로 인식함. 가정의 지원 역할 수행은 FGI에서도 논의되었으며, FGI 참여자들 중 보호자들은 학생이 사랑받는 존재로 스스로 긍정적인 인식을 형성하도록 지원하는 것을 중요한 과제로 인식함. 한편 교사들은 보호자가 유아교육기관과 초등학교의 차이를 정확하게 인지할 때, 취학 전후의 적응 지원이 더욱 원활할 것이라고 강조함.

○ 유아교육기관의 지원 역할 수행과 관련하여 보호자들은 ‘아이의 발달과 생활에 대한 자료를 작성하여 가정-초등학교에 제공하기’에 대한 요구가 높았던 반면, 교사들의 경우 학생들의 취학 준비를 직접 지원하는 ‘초등학교로의 전이 직전 적응 준비를 위한 사전 교육 운영하기’에 대해 높은 중요도를 부여함. 이러한 차이는 보호자들의 경우 양육하는 학생을 기준으로 개별화된 취학 지원에 대한 요구가 높은 것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교사들의 경우 체계화된 취학 준비 교육을 통해 보편적으로 취학 준비가 이루어지는 것을 상대적으로 더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다고 설명할 수 있음.

○ 초등학교의 취학 전후 교육 지원 역할 수행은 보호자와 교사의 인식이 유사하게 나타났으며, 학생들이 놀이와 배움을 자연스럽게 연결할 수 있는 교육환경의 개선에 대한 요구가 높게 나타남. 이 외에도 취학 시기에 초등학교가 긍정적인 공간으로 인식될 수 있도록 따뜻한 맞이 문화가 형성되어야 하며, 가정과의 소통을 통해 협력적으로 학생들의 취학 준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공통의 인식이 확인됨.



○ 지역사회의 취학 전후 교육 지원 역할 수행으로 보호자는 ‘학습자·놀이 중심의 유아교육기관-초등학교 이음을 위한 교육 기간 확보 및 교육과정 개발·보급’에 높은 중요도를 부여하였으며, 교사들의 경우 ‘유아교육기관과 초등학교 간 정보 공유를 위한 제도 및 시스템 구축하기’를 가장 주요한 역할로 인식하고 있었음. 이와 같은 보호자들의 인식은 공교육 시스템을 통해 학생들의 취학 지원이 이루어지길 바라는 요구를 드러내며, 교사들의 경우 실제 학생을 지도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하여 제도적 요건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요구가 투영되어 있다고 할 수 있음.

○ FGI를 통해 확인한 보호자와 교사들의 취학 전후 교육을 위한 지원 요구는 설문조사의 응답 경향과 유사하게 나타났으며, FGI 참여자들은 이러한 요구와 함께 적극적으로 각 요구에 대한 지원 방안을 제언함. 개인의 경험에 기초하여 제언된 지원 방안들은 연구진의 교차 검토를 통해 범주화하였으며, 주체별로 강조되는 지원 방안이 다르게 나타남. FGI의 결과를 토대로 도출한 취학 전후 교육을 위한 지원 방안은 다음 <표 4>와 같음.

<표 4> 취학 전후 교육을 위한 지원 방안

구분	지원 방안
보호자	학생의 취학 준비를 지원하는 보호자를 위한 교육 지원
	학생의 발달 특성에 따른 맞춤형 취학 교육 지원
	교육 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가정-기관-지역사회 협력 지원 체계 구축
유아교사	이음교육 활성화를 통한 취학 교육 지원
	학생의 기초 능력 보장을 위한 교육 지원
	취학을 위한 보호자 및 교사 교육 활성화
초등교사	가정-학교-지역사회가 협력하는 지원 환경 조성
	학생의 기초 능력 보장을 위한 교육 지원
	초등학교 신입생을 위한 교육환경 조성

○ 연구에 참여한 보호자와 교사들은 학생의 취학 전후 교육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보호자와 교사 모두가 배움의 주체가 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가정과 기관에서 학생을 올바르게 지원해야 한다는 성찰을 보임. 이는 본 연구의 서두에서 밝힌 것과 같이 취학과 관련하여 ‘학생만을 준비시키면 된다’는 관점이 ‘교육 주체는 학생의 취학과 적응을 위해 무엇을 준비하고 지원해야 하는가’로 전환될 가능성을 보여줌. 이와 더불어 교육 주체들의 요구가 수렴되는 취학을 위한 교육환경 조성, 학생들의 기초 능력 보장을 위한 교육 지원 등에 대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정책 발굴과 실행이 필요한 시점임.

4. 연구 제언

가. 정책 제언

- 취학 전후 교육환경 구축을 위한 기반 마련
- 교육기관이 연계한 취학 전후 교육 지원 활성화
- 취학 전후 교육을 위한 교육공동체 구성원 역량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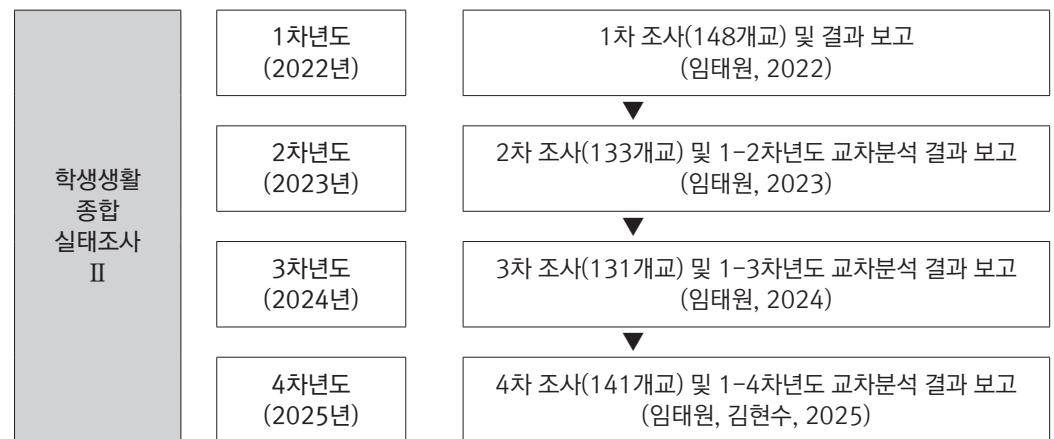
나. 후속 연구 제언

- 놀이 중심의 유·초 연계를 위한 교육 공간 혁신에 관한 연구
- 유·초 이음 체계 정립 및 확산을 위한 가이드라인 개발 연구
- 취학 전후 교육을 위한 교육공동체 구성원 교육과정 개발 연구
- 상급학교 진학 및 전환기(유, 초, 중, 고) 적응 지원을 위한 방안 연구



인천광역시 학생생활종합실태조사 II (4차년도)

연구책임자 : 임태원
공동연구원 : 김현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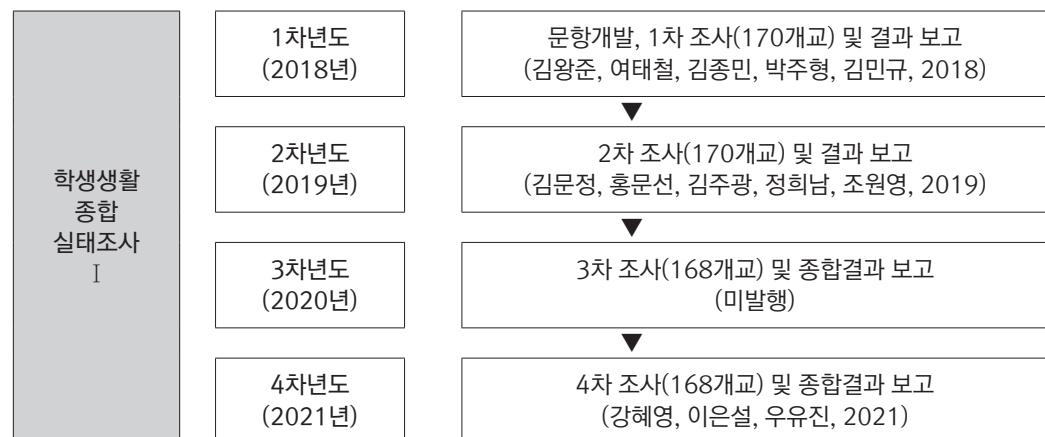


[그림 2] 학생생활종합실태조사 II 추진 경과

1. 조사 개요

가. 추진 목적 및 경과

- 인천광역시교육청은 데이터 기반의 교육 정책 수립을 위하여 학생생활종합실태조사를 기획하고, 2018년부터 2025년까지 8년에 걸쳐 조사 및 결과 보고를 수행함.
- 본 보고서는 학생생활종합실태조사 II -4차년도 기초 분석과 2기 조사(2022년~2025년)의 유의한 학생 생활 변화를 분석하는 데 목적이 있음.
- 학생생활종합실태조사에서는 8년간 약 255개 문항을 통해 데이터를 수집하였으며, 조사 추진 경과는 다음 [그림 1], [그림 2]와 같음.



[그림 1] 학생생활종합실태조사 I 추진 경과

나. 조사 내용

- 본 조사는 학생생활을 5개 대영역(개인생활, 가정생활, 학교생활, 사회생활, 여가생활)으로 구분하고, 하위 28개의 중영역으로 세부 내용을 구성함. 제시된 문항은 255개이며, 이를 종합한 내용 체계는 다음 <표 1>과 같음.

<표 1> 학생생활종합실태조사 내용 체계

대영역	중영역	세부 내용	문항 번호
개인 생활	주된 고민과 상담 대상	1) 주된 고민과 걱정거리 2) 고민이나 걱정거리를 상담하는 대상	1 2
	진로 선택과 희망 최종 학력	1) 진로나 희망 직업 선택 기준 2) 진로에 대한 자기 이해 3) 희망하는 최종 학력	3 4.1~4 5
신체건강과 정신건강	1) 자신의 신체건강에 대한 인식 2) 자신의 정신건강에 대한 인식	6 7	
	자존감과 정서 안정	3) 평소의 건강관리 1) 자존감 및 자기만족 2) 정서 안정(우울감)	8.1~9 9.1~6 10.1~5
	문제행동 경험	1) 오프라인 문제행동 경험 2) 온라인 문제행동 경험 3) 학교폭력 피해 경험 4) 성인매체 이용 경험	11.1~5 12.1~5 13.1~7 14.1~5
개인생활 만족도	-	-	15



대영역	중영역	세부 내용	문항 번호
가정 생활	아침식사와 수면	1) 아침식사 실태	16
		2) 아침식사를 하지 않는 이유	17
		3) 평균 수면 시간	18
		4) 평균 귀가 시간	19
부모(보호자)의 지원	1) 부모(보호자)의 학업지원에 대한 인식	20.1~5	
	2) 부모(보호자)의 정서지원에 대한 인식	21.1~5	
부모(보호자)와의 관계	1) 아버지와의 관계에 대한 인식	22.1~3	
	2) 어머니와의 관계에 대한 인식	22.4~6	
	3) 부모와의 대화 시간	23.1~2	
미래 가정에 대한 인식	-	24.1~4	
가정생활 만족도	-	25	
학교 생활	학업 유지	1) 학교를 그만두고 싶다는 생각 경험 유무	26.1
		2) 학교를 그만두고 싶은 이유	26.2
	학교 수업과 선생님	1) 선생님의 수업과 평가에 대한 인식	27.1~9
		2) 선생님들에 대한 인식	28.1~4
	안전 및 인권교육	1) 학교(주변)의 안전에 대한 인식	29.1~6
		2) 안전 및 인권교육의 효과성에 대한 인식	30.1~9
	진로교육	1) 진로교육 경험 여부(초등학교)	31.1e
		2) 진로교육의 도움 정도(초등학교)	31.2e
		3) 진로교육의 효과성에 대한 인식	31.1~8
	교과 수업과 학업태도	1) 활동참여와 대인관계	32.1~6
		2) 교과 수업 이해도	33.1~10
		3) 학습 습관 및 태도	34.1~7
자치활동과 동아리활동	자치활동과 동아리활동	1) 학생자치활동의 참여 정도	35.1~6
		2) 동아리활동 여부	36.1
		3) 동아리활동의 적극성	36.2
		4) 참여 동아리의 유형	36.3
	학교생활 만족도	-	37
사회 생활	지역사회참여활동	-	38.1~4
	봉사활동	-	39.1~4
	아르바이트 경험과 노동인권 이해	1) 아르바이트 경험 유무	40
		2) 아르바이트를 한 이유	41
		3) 주당 아르바이트 시간	42.1~5
		4) 노동인권과 권리에 대한 이해	43.1~6
	민주시민의식과 평등의식	1) 민주시민의식	44.1~3
		2) 평등의식	45.1~5
	우리나라(사회)에 대한 인식	-	46
	사회생활 만족도	-	47.1~6

대영역	중영역	세부 내용	문항 번호
여가 생활	문화활동	문화활동 경험 실태	48.1~9
	방과 후 여가활동	1) 방과 후 여가활동 실태	49.1~10
	스마트폰/휴대전화 및 컴퓨터 사용	2) 사교육 참여 유형	50
		1) 스마트폰/휴대전화 소유 여부	51.1~8
		2) 스마트폰/휴대전화 사용 목적에 따른 사용 시간	52.1~5
		3) 스마트폰/휴대전화 의존에 대한 인식	53.1~8
	정보습득과 윤리	4) 컴퓨터 사용 목적에 따른 사용 시간	54
		1) 학습을 위한 정보 습득	55.1~4
	여가생활 만족도	2) 정보보호와 윤리의식	56
		-	56

다. 조사 설계 및 방법

- 본 조사의 모집단은 인천광역시 소재 초등학교(272개), 중학교(145개), 고등학교(128개) 총 545개교(분교 포함)에 속한 302,550명의 학생임(2025. 4. 1. 기준). 표본집단은 초등학교(63개), 중학교(47개), 고등학교(31개) 총 141개교에 속한 66,503명의 학생이며, 초등학생은 4~6학년, 중학생과 고등학생은 1~3학년을 대상으로 함.
- 조사 대상 설계 및 방법을 종합한 내용은 <표 2>와 같음.

<표 2> 학생생활종합실태조사 조사 방법

구분	내용
조사일정	2025. 9. 1.(월)~9. 19.(금) 19일간
조사학교	총 141개교 (초등학교 63개, 중학교 47개, 고등학교 31개교)
설문방법	온라인 자기기입식 조사
모집단	인천광역시 소재 초·중·고 545개(분교 포함) 학교에 속한 302,550명의 학생(25. 4. 1. 기준)
표본집단	총 66,503명 (초(4~6학년) 21,187명, 중 26,087명, 고 19,229명)
표본 추출 방법	유종표집 (구·군별, 학교급별, 학생 수 비례 산정하여 표집)
응답자 분포	총 14,518명 (초등학생 5,233명, 중학생 7,197명, 고등학생 2,088명)

- 조사 결과의 분석은 하위 문항별로 전체 응답 경향과 집단별 응답 경향(학교급별, 성별, 다문화가정 여부별)을 파악하기 위하여 통계 분석을 실시함.

2. 조사 결과

가. 학생생활 영역별 주제로 알아보는 주요 결과

○ 2024년에 수행된 학생생활종합실태조사(3차년도)의 결과 중 정책적으로 유의미한 5개 주제에 대한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음.

1) 개인생활: 나는 무엇을 잘할 수 있을까? 진로 그리고 공부와 학업

○ 개인생활에서는 학생들의 주된 고민과 걱정거리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으며, 이를 함께 공유하고 나누는 대상에 대한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음.

〈표 3〉 주된 고민과 걱정거리(주요 문항)

구분	빈도(명)	비율(%)
공부·학업	9,853	67.9
진로	6,776	46.7
친구와의 관계	4,548	31.3
없음	2,233	15.4

○ 학생들의 주된 고민과 걱정거리는 ‘공부·학업 > 진로 > 친구와의 관계’ 순으로 응답 비율이 높게 나타남. 이러한 결과는 학령기를 보내는 학생들이 미래와 진로, 이를 위한 공부와 학업에 대해 치열하게 고민하고 있음을 잘 드러냄.

○ 학생들이 고민과 걱정거리를 주로 상담하는 대상은 ‘어머니(59.5%) > 친구·선후배(45.1%) > 아버지(29.1%)’ 순으로 나타남. 학생들은 여전히 가정에서 정서적 지지를 받으며 성장하고 있으며, 이를 함께 공유하고 논의하기 위해 학부모들의 진로와 학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줄 필요가 있음.

○ 한편, 다문화가정 학생들의 주된 상담 대상은 ‘친구·선후배(44.7%) > 어머니(44.4%) > 아버지(26.8%)’ 순으로 나타남. 다문화가정의 학생들은 친구나 선후배 관계에서 정서적 지지를 얻고 있으며, 이에 따라 또래 관계나 공유하는 문화가 개인생활의 전반에 걸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 학생들의 주된 고민인 진로와 관련한 문항 중 ‘진로에 대한 자기 이해’의 전체 평균은 3.85임. 학생들은 ‘즐겁게 할 수 있는 일(M: 4.01)’과 ‘자신이 소중하게 여기는 가치(M: 4.10)’를 잘 알고 있다고 인식함. 반면, ‘잘하는 일(M: 3.58)’은 보통 수준으로 알고 있다고 인식함.

○ 이상의 ‘주된 고민과 걱정거리’에 관한 조사 결과는 현재 인천 학생들이 마주하고 있는 어려움을 상징적으로 나타냄. 따라서, 향후 인천교육 정책에서는 학생들이 스스로 잘하는 일에 대한 이해를 돋는 기회를 적극적으로 제공하고, 진로와 학업 등에 대한 고민과 걱정이 해소될 수 있도록 공동체 차원의 정서적 지지 토대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가정생활: 학생들의 정서적 지지자 ‘부모’

○ 가정생활에서는 부모(보호자)의 정서지원에 관한 학생들의 인식을 살펴볼 수 있으며, 가정에서 나누는 대화 시간에 관한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음.

○ 부모(보호자)의 정서지원 평균은 3.81임. 주된 정서지원으로 ‘나를 있는 그대로 이해해 주신다’가 평균 4.02로 가장 높게 나타남. 응답 비율은 ‘매우 그렇다’ 5,592명(38.6%), ‘그렇다’ 4,768명(32.9%), ‘보통이다’ 3,230명(22.3%) 순으로 높았음.

〈표 4〉 부모(보호자)의 정서지원 인식

문항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평균	표준 편차
1) 내 일은 내가 선택하도록 믿어주신다.	빈도(명)	333	610	3,235	5,220	5,074	3.97	0.97
	비율(%)	2.3	4.2	22.4	36.1	35.1		
2) 내가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신다.	빈도(명)	333	603	3,195	4,784	5,557	4.01	0.99
	비율(%)	2.3	4.2	22.1	33.1	38.4		
3) 나를 있는 그대로 이해해 주신다.	빈도(명)	309	573	3,230	4,768	5,592	4.02	0.98
	비율(%)	2.1	4.0	22.3	32.9	38.6		
4) 나와 취미나 여가를 함께 하신다.	빈도(명)	1041	2,462	4,407	3,234	3,328	3.37	1.21
	비율(%)	7.2	17.0	30.5	22.3	23.0		
5) 친구 관계 등 학교생활에 대해 자주 대화를 나눈다.	빈도(명)	656	1,367	4,248	4,102	4,099	3.66	1.12
	비율(%)	4.5	9.4	29.4	28.3	28.3		
전체							3.81	0.84

○ 부모와 자녀의 대화는 소통하는 기본을 유지하는데 기본이 됨. 인천 학생들은 하루를 기준으로 다음 〈표 5〉, 〈표 6〉과 같은 시간 동안 아버지, 어머니와 대화를 나누고 있었음.

〈표 5〉 아버지와의 대화 시간

구분	거의 하지 않음	1시간 미만	1시간 이상 ~2시간 미만	2시간 이상 ~3시간 미만	3시간 이상 ~4시간 미만	5시간 이상~	합계
빈도(명)	1,143	3,135	3,321	2.162	1,474	2,136	13,371
비율(%)	8.5	23.4	24.8	16.2	11.0	16.0	100.0



〈표 6〉 어머니와의 대화 시간

구분	거의 하지 않음	1시간 미만	1시간 이상~2시간 미만	2시간 이상~3시간 미만	3시간 이상~4시간 미만	5시간 이상~	합계
빈도(명)	460	1,879	2,749	2,720	2,116	4,046	13,970
비율(%)	3.3	13.5	19.7	19.5	15.1	29.0	100.0

○ 앞선 생활 영역과 연계할 때 학생들은 부모님을 주된 고민과 걱정거리를 상담하는 대상이자, 자신을 있는 그대로 이해해 주는 정서적 지지자로 인식하고 있음이 잘 드러남. 또한 하루에 1시간 이상 아버지 또는 어머니와 대화하는 학생들의 빈도가 높게 나타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가 여전히 학생의 모든 생활 영역에서 중요한 기반으로 자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3) 학교생활: 우리는 모두 ‘인천 학생’

○ 8년 동안 수행되어 온 학생생활종합실태조사에서 꾸준히 목도된 것은 다문화가정 학생들의 인식이 일반가정의 학생들과 다름이 없어지고 있다는 것임. 이와 관련하여 학교생활영역에 대한 집단별 응답 경향의 유의성을 종합하면 다음 〈표 7〉과 같음.

〈표 7〉 학교생활-집단별 응답 경향 유의성

집단별 응답 경향 유의성(통계적 차이 유무)				
영역	학교급별	성별	다문화가정 여부별	
학교를 그만두고 싶다는 생각 경험과 이유	○	○	-	
선생님의 수업과 평가에 대한 인식	○	○	-	
선생님에 대한 인식	○	-	-	
학교(주변)의 안전	○	○	-	
안전 및 인권교육의 효과성	○	○	-	
진로교육의 효과성	○	○	-	
활동참여와 대인관계	○	-	○	
교과 수업 이해도(초등학교)	-	○	○	
교과 수업 이해도(중등학교)	○	○	○	
학습 습관 및 태도	○	-	○	
학교생활 만족도	○	○	-	

○ 학교생활을 묻는 11개 영역에서 집단별 응답 경향의 차이는 학교급과 성별에 따라서는 10개 영역에서 차이를 보이며, 다문화가정 여부에 따라서는 4개 영역에서 차이를 보임. 다문화가정 여부에 따른 인식의 차이가 확인된 영역은 2023년부터 점차 감소하고 있음.

- 2022년 5개 영역 ▶ 2023년 7개 영역 ▶ 2024년 5개 영역 ▶ 2025년 4개 영역

○ 4개년 동안 ‘교과 수업 이해도’에 관해서는 여전히 다문화가정 학생들이 상대적으로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다고 인식하였으나, 학교생활 만족도 평균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음. 이러한 결과는 다문화가정 학생들이 ‘다름’으로 인식되어야 할 영역이 점진적으로 줄어들고 있음을 나타내며, 향후 다문화가정 학생에 대한 지원은 직접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안에 대한 집중 지원이 이루어져야 함을 시사함.

4) 사회생활: 높은 민주시민의식과 평등의식을 갖춘 시민

○ 교육의 궁극적인 목적 중 하나는 바른 가치관과 사회 인식을 갖춘 시민을 양성하는 것임. 이러한 교육 목적과 관련하여 인천 학생들의 민주시민의식과 평등의식에 대한 자기 인식을 다음과 〈표 8〉, 〈표 9〉와 같이 확인할 수 있음.

〈표 8〉 민주시민의식에 대한 인식(전체)

문항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평균	표준 편차
1) 규칙은 공동의 합의를 통해 만들어져야 한다.	빈도(명)	181	188	3,062	5,574	5,513	4.11	0.86
	비율(%)	1.2	1.3	21.1	38.4	38.0		
2) 공익을 추구하는 토론과 활동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	빈도(명)	207	347	4,738	5,038	4,188	3.87	0.91
	비율(%)	1.4	2.4	32.6	34.7	28.8		
3) 서로 공감하고 협력하며 연대해야 한다.	빈도(명)	140	173	3,405	5,619	5,181	4.07	0.85
	비율(%)	1.0	1.2	23.5	38.7	35.7		
4) 인권(노동)에 대해 알고 서로의 인권을 존중해야 한다.	빈도(명)	109	118	2,776	5,189	6,326	4.21	0.83
	비율(%)	0.8	0.8	19.1	35.7	43.6		
5) 평화의 중요성을 알고 지키려고 노력해야 한다.	빈도(명)	125	115	2,856	5,194	6,228	4.19	0.84
	비율(%)	0.9	0.8	19.7	35.8	42.9		
6) 기후위기나 생태환경 파괴 등은 모두가 함께 해결해야 하는 문제다.	빈도(명)	131	152	2,766	4,640	6,829	4.23	0.85
	비율(%)	0.9	1.0	19.1	32.0	47.0		
전체							4.11	0.74



〈표 9〉 평등의식에 대한 인식(전체)

문항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평균
1) 모든 인간은 태어난 곳이나 환경과 관계없이 평등하다.	빈도(명)	388	616	2,684	3,966	6,864	4.12
	비율(%)	2.7	4.2	18.5	27.3	47.3	
2) 모든 사람은 자신이 가진 문화를 존중받아야 한다.	빈도(명)	130	175	2,338	4,345	7,530	4.31
	비율(%)	0.9	1.2	16.1	29.9	51.9	
3) 나는 사람을 대할 때 편견 없이 대한다.	빈도(명)	402	560	3,637	4,687	5,232	3.95
	비율(%)	2.8	3.9	25.1	32.3	36.0	
전체							4.13

○ 민주시민의식에 대한 인식은 평균 4.11임. ‘기후위기나 생태환경파괴 등은 모두가 함께 해결 해야 하는 문제다’는 인식이 평균 4.23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매우 그렇다’라고 응답한 학생이 6,829명(47.0%)으로 비율이 가장 높았음.

○ 평등의식에 대한 인식은 평균 4.13임. ‘모든 사람은 자신이 가진 문화를 존중받아야 한다’는 인식이 평균 4.31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매우 그렇다’라고 응답한 학생이 7,530명(51.9%)으로 비율이 가장 높았음.

○ 민주시민과 평등의식 모두 전체 문항에 대한 응답 분포가 ‘그렇다’와 ‘매우 그렇다’에 집 중되어 학생들의 인식이 높은 편임을 알 수 있음. 이러한 결과는 인천교육이 추구하는 ‘다양성을 존중하고, 함께 공존하는 세계시민 양성’의 바로미터로 이해할 수 있음.

5) 여가생활: 다양한 문화활동 경험은 곧 학생의 자산

○ 오늘날 교육 패러다임이 강조하는 ‘학생 맞춤형 교육’은 학생의 흥미, 요구, 적성 등에 대한 존중을 내포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학생들은 다양한 경험을 통해 자신의 관심과 흥미 등을 파악할 수 있음. 여가생활 영역에서는 인천 학생들의 연간 문화활동 경험 실태가 다음 〈표 10〉과 같이 나타남.

〈표 10〉 문화활동 경험 실태

문항	구분	전혀 없음	1~3회	4~6회	6~10회	10회 이상
1) 과학관이나 박람회 관람	빈도(명)	4,732	6,524	1,774	560	928
	비율(%)	32.6	44.9	12.2	3.9	6.4
2) 공연(음악회, 전시회 등)이나 예술 관람	빈도(명)	3,505	7,012	2,205	762	1,034
	비율(%)	24.1	48.3	15.2	5.2	7.1

문항	구분	전혀 없음	1~3회	4~6회	6~10회	10회 이상
3) 도서관이나 서점 방문	빈도(명)	1,815	4,320	2,823	1401	4,159
	비율(%)	12.5	29.8	19.4	9.7	28.6
4) 운동경기장에 가서 운동경기 관람	빈도(명)	5,930	4,705	1,569	626	1,688
	비율(%)	40.8	32.4	10.8	4.3	11.6
5) 극장에서 영화 관람	빈도(명)	1,679	5,430	3,108	1,451	2,850
	비율(%)	11.6	37.4	21.4	10.0	19.6
6) 위의 문화활동 외의 것(기타)	빈도(명)	4,590	4,714	2,396	881	1,937
	비율(%)	31.6	32.5	16.5	6.1	13.3

○ 연간 문화활동 경험의 횟수를 묻는 문항에서 학생들은 ‘과학관이나 박람회 관람’, ‘공연(음악회, 전시회 등)이나 예술 관람’, ‘도서관이나 서점 방문’, ‘극장에서 영화 관람’, ‘위의 문화활동 외의 것(기타)’에 대하여 1~3회 참여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음.

○ 반면, ‘운동경기장에 가서 운동경기 관람’ 활동은 경험이 전혀 없다고 응답한 비율(5,930명, 40.8%)이 가장 높았음. 이와 함께 과학관이나 박람회 경우에도 4,732명(32.6%)이 경험한 적이 없다고 응답하여 다양한 문화 지원에 대한 필요성을 시사함.

○ 문화활동 경험은 학생들의 진로 탐색과 연계하여 교육적으로 지원될 필요가 있음. 이는 학생의 흥미와 적성에 따라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고자 하는 교육 목표와도 연계되며, 다양한 경험을 통해 자신의 관심과 능력을 탐색하는 기회를 교육 차원에서 제공하여야 함.

나. 학생생활 변화(2022~2025년)

○ 학생생활종합실태조사 시행 결과 2022년부터 2025년까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변화 내용은 다음 〈표 11〉과 같음.

〈표 11〉 학생생활에 변화가 있는 문항 내용

대영역	중영역	세부 내용
개인생활	진로 선택과 희망 최종 학력	진로에 대한 자기 이해
		희망하는 최종 학력
	신체건강과 정신건강	자신의 신체건강에 대한 인식
자존감과 정서 안정	자신의 정신건강에 대한 인식	평소의 건강관리
	자존감 및 자기만족	자존감과 정서 안정
		정서 안정(우울감)



대영역	중영역	세부 내용
개인생활	문제행동 경험	오프라인 문제행동 경험
		온라인 문제행동 경험
		학교폭력 피해 경험
	성인매체 이용 경험	성인매체 이용 경험
		개인생활 만족도
가정생활	아침식사와 수면	아침식사 실태
		평균 수면 시간
		평균 귀가 시간
	부모(보호자)의 지원	부모(보호자)의 학업지원에 대한 인식
		부모(보호자)의 정서지원에 대한 인식
	부모(보호자)와의 관계	아버지와의 관계에 대한 인식
		어머니와의 관계에 대한 인식
		부모와의 대화 시간
	미래 가정에 대한 인식	
	가정생활 만족도	
학교생활	학업 유지	학교를 그만두고 싶다는 생각 경험 유무
		학교를 그만두고 싶은 이유
	학교 수업과 선생님	선생님의 수업과 평가에 대한 인식
		선생님들에 대한 인식
	안전 및 인권교육	학교(주변)의 안전에 대한 인식
		안전 및 인권교육의 효과성에 대한 인식
	진로교육	진로교육의 도움 정도(초등학교)
		진로교육의 효과성에 대한 인식
	교과 수업과 학업태도	활동참여와 대인관계
		교과 수업 이해도
		학습 습관 및 태도
사회생활	자치활동과 동아리활동	학생자치활동의 참여 정도
		동아리활동 여부
		동아리활동의 적극성
	학교생활 만족도	
사회생활	지역사회참여활동	
	봉사활동	

대영역	중영역	세부 내용
사회생활	아르바이트 경험과 노동인권 이해	1) 아르바이트 경험 유무
		2) 아르바이트를 한 이유
여가생활	민주시민의식과 평등의식	4) 노동인권과 권리에 대한 이해
		1) 민주시민의식 2) 평등의식
여가생활	우리나라(사회)에 대한 인식	
	사회생활 만족도	
	문화활동	문화활동 경험 실태
여가생활	방과 후 여가활동	1) 방과 후 여가활동 실태
		2) 사교육 참여 유형
여가생활	스마트폰/휴대전화 및 컴퓨터 사용	2) 스마트폰/휴대전화 사용 목적에 따른 사용 시간
		3) 스마트폰/휴대전화 의존에 대한 인식
		4) 컴퓨터 사용 목적에 따른 사용 시간
	정보습득과 윤리	2) 정보보호와 윤리의식
여가생활 만족도		

○ 구체적인 항목별 변화 사항은 〈학생생활종합실태조사Ⅱ -4차년도〉 보고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음.



3



현안 연구

- 교육균형발전학교 선정 지표에 대한 학교 현장 인식 조사
- 미래 사회 변화와 교육적 대안 연구
 - 특색교육 정책을 중심으로 -
- 인구·경제 축소 시대의 인천교육 방향 탐색
- 기후위기 시대의 인천교육 방향 탐색
- 늘봄지원실장 지원 동기 및 경험에 관한 연구





2025 인천교육정책연구 연차보고서

교육균형발전학교 선정 지표에 대한 학교 현장 인식 조사

연구책임자 : 문영진
협력연구원 : 박현정
연구보조원 : 김효은, 최혜인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인천 교육균형발전학교 선정 지표는 당시 상황과 교육주체 요구에 따라 변화해왔음. 2018년부터 2022년까지 4가지 지표(학교 건립 시점, 학생 수 감소 비율, 교육비 지원 비율, 학업중단 비율)가 활용되었고, 2023년 ‘교육비 지원 비율’과 ‘학업중단 비율’이 삭제, ‘학교 특색사업 계획서 제출학교’가 신설되어 총 3가지 지표가 활용됨. 2024년에 ‘교육비 지원 비율’과 ‘다문화 학생 비율’이 신설되고, 3가지로 유형화(A, B, C유형)되면서 3개 유형 및 6개 지표로 체계화되어 현재까지 유지됨.
- 인천광역시교육청(2024)은 교육균형발전사업 효과성 검증 및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2024년 교육균형발전학교 구성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응답자의 80.7%가 현행 지표와 기준이 적절하다고 응답하였음. 그러나 비교적 높은 수준의 수치와 별개로 선정 지표의 적절성에 대한 부정응답 및 개선 요구사항은 현행 지표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을 시사함.
- 이 조사는 교육균형발전학교 교직원, 학생, 학부모를 대상으로 다양한 인식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나 교육균형발전학교 구성원으로서 선정 지표에 대해 긍정적으로 판단하는 응답의 편향성 문제와 학생 및 학부모는 상대적으로 학교의 전반적인 환경과 운영에 대해 충분히 알지 못할 수 있기에 응답의 신뢰성을 저하시키는 한계가 존재함.
- 본 연구는 미운영교를 포함하여 인천 관내 초·중·고등학교 교장, 교감, 교무부장, 업무담당부장을 대상으로 교육균형발전학교 선정 지표에 대한 인식을 살펴봄.
- 본 연구는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연구문제를 설정하였음.



- 첫째, 교육균형발전학교 선정 지표의 적절성에 대한 학교 현장의 인식은 어떠한가?
- 둘째, 학교 현장 인식을 반영한 교육균형발전학교 선정 지표의 개선 방향은 무엇인가?

2. 연구 내용 및 방법

가. 연구 내용

- 본 연구는 인천시교육청 교육균형발전학교 선정 지표에 대한 학교 현장 인식 조사를 목적으로 함. 이에, 먼저 인천시교육청에서 추진한 교육균형발전사업 현황에 대해 살펴본 후, 교육균형발전학교 선정 지표의 변화 과정을 파악함.
- 다음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교육균형발전학교 선정 지표에 대한 학교 현장 인식을 확인함. 인천 초·중·고등학교 교원을 대상으로 현행 선정 지표 및 기준, 지원 방식의 적절성에 대한 인식과 개선 요구사항을 조사함. 설문조사를 통해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교육균형발전학교 선정 지표의 개선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함.

나. 연구 방법

- 문헌분석은 인천시교육청 교육균형발전사업 현황과 교육균형발전학교 선정 지표의 변화 과정을 분석하는 데 목적이 있음. 분석 자료로는 인천시교육청에서 생산한 정책 자료와 선행연구(김왕준 외, 2022; 박현미 외, 2019)를 활용함.
- 설문조사는 교육균형발전학교 선정 지표에 대한 현장의 인식을 조사하기 위해 실시함.
 - 조사 대상은 인천 관내 초·중·고등학교 교장, 교감, 교무부장, 업무담당부장으로 설정함. 또한 최근 3년 이내 교육균형발전학교를 한 번이라도 운영했던 학교와 교육균형발전학교로 지정된 적이 없는 학교까지 모두 포함함.
 - 설문조사는 2025년 3월 31일(월)부터 4월 4일(금)까지 5일간 교육청 설문조사 시스템을 활용하여 온라인조사로 실시하였고, 조사 안내는 공문을 통해 진행함.
 - 조사의 주요 내용은 1) 교육균형발전학교 선정 시 고려해야 할 사항, 2) 현행 지표의 적절성, 3) 현행 선정 유형의 적절성으로 구성함.
 - 수집 자료는 SPSS 29.0을 활용하여 문항별 빈도분석(빈도, 비율)을 실시함. 서술형 응답은 유사 내용을 주제별로 범주화하여 분석함.

3. 연구 결과

가. 인천 교육균형발전학교 선정 지표 변천 과정 및 현황

- 교육균형발전사업의 시작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 추진된 「원도심지역 교육발전계획」(인천광역시교육청, 2012)임. 이는 원도심지역이 공동화 현상을 겪으며 학교 간 교육격차가 발생하는 시의적 상황에 따라, 원도심지역의 노후한 교육시설 등 교육환경을 개선하여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교육력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이었음. 그러나 지속적인 원도심지역의 쇠퇴에 따라 지속적·체계적 지원을 위한 정책이 필요하게 됨. 이에,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라 2018년 1월 「인천광역시 교육균형발전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었고, 인천시교육청은 「2018~2022 교육균형발전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함.
- 1차 사업 추진 이후, 인천시교육청은 2022년 11월 「2023~2027 교육균형발전 기본계획」을 발표함. 교육균형발전 비전과 목표, 4가지 중점 과제 영역은 1차와 동일하게 설정하였으나, 영역별 세부 추진 과제는 일부 변경됨. 이후 다양한 교육환경 및 여건 변화를 반영할 수 있는 학교 선정 기준에 대한 재검토와 세부 추진 과제 변경 및 신규 발굴을 통해 2023년 10월 1차 변경계획이 수립됨. 이어 2024년 9월 인천시교육청은 일부 지표와 세부 과제 및 사업내용의 수정에 기초하여 2차 변경계획을 수립함.
- 1차 교육균형발전사업인 「2018~2022 교육균형발전사업 기본계획」에서는 교육균형발전학교 선정 지표로 학교 건립 시점, 학생 수 감소 비율, 교육비 지원 비율, 학업중단 비율의 4가지를 제시함. 선정 기준으로는 초·중학교의 경우 학교 건립 시점, 학생 수 감소 비율, 교육비 지원 비율에 해당하는 학교를, 고등학교의 경우 4가지 지표 중 3가지 이상에 해당하는 학교를 교육균형발전학교로 선정함.
- 2차 교육균형발전사업(2023~2027) 계획을 수립하기 전, 공청회와 TF협의를 통해 2차례에 걸친 선정 지표 개정이 이루어짐. 2023년에는 학교 건립 시점은 유지하되, 학생 수 감소 비율 중 중학교의 비율이 “30% 이상”에서 “10% 이상”으로 수정되었고, 교육비 지원 비율과 학업중단 비율은 삭제, 학교 특색사업 계획서 제출학교가 신설됨. 이후 2024년도부터 현재까지는 유형을 3개로 구분하고 유형별로 지표를 달리 설정함. 특히 C유형은 다문화학생 비율을 신설하여 재학생 수 100명 이상인 학교 중 다문화학생 비율이 30% 이상인 학교로 명시함.
- 2025년도 기준 교육균형발전학교 선정 기준은 3개 유형 6개 지표로 구성됨.

〈표 1〉 2025년도 기준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균형발전학교 선정 기준

구분	A유형	B유형	C유형
지표1	(공통) 학교 건립 시점(개교 25년 이상)		
지표2	학생 수 감소 비율 (초·고 20% 이상, 중 10% 이상)	-	-
지표3	교육비 지원 비율 (10% 이상)	-	-
지표4	-	교육비 지원 비율 (25% 이상)	-
지표5	-	-	다문화 학생 비율 (30% 이상)
지표6	(공통) 학교 특색사업 계획서 제출학교		
선정기준	지표 1, 2, 3 & 6	지표 1, 4 & 6	지표 1, 5 & 6

나. 교육균형발전학교 선정 지표에 대한 학교 현장 인식 분석 결과 및 시사점(교육균형발전학교 선정 지표 개선 방향)

- 설문조사 분석 결과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첫째, 교육균형발전학교를 선정할 때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하는 사항 1순위로 응답자들은 ‘취약계층 학생 비율이 높은 학교 우선(43.3%)’을 가장 많이 선택함. 이어, ‘학생 수 급감 학교 우선(25.4%)’, ‘학교 주변 교육환경 및 여건이 열악한 자치구에 속한 학교 우선(13.4%)’ 등의 순으로 나타남. 배경변인별 분석 결과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남.
- 둘째, 현행 교육균형발전학교 선정 지표 5가지에 대하여 70% 이상의 교원들이 적절하다고 응답하였음. 현행 지표 외 필요한 추가지표를 조사한 결과, ‘학교 주변 혹은 학교가 속한 지역의 여건을 고려해야 한다(16.7%)’가 가장 많았음. 이어, ‘학급 수 또는 학급당 학생 수(12.7%)’, ‘학생의 경제적 여건(기초생활수급대상자, 차상위계층, 복지시설 거주 학생 비율 등) 고려(11.8%)’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셋째, 현행 교육균형발전학교 선정 기준 3가지 유형 구분에 대하여 응답자의 약 82.1%가 적절하다고 응답함. 적절하지 않다고 응답한 교원(7.6%)을 대상으로 그 이유를 조사한 결과, ‘다양하고 종합적인 판단 필요(17.0%)’, ‘유형 및 지표 재조정(15.1%)’ 등의 순으로 나타남.
- 넷째, 현행 교육균형발전학교 지원 방식(120개교 선정, 교당 4,000만 원 이내 지원)의 적절성에 대해 응답자의 52.2%가 ‘선정된 학교의 전체 학생 수 등에 따라 학교별 차등 지원’을 선택함.
- 분석 결과에 따라 향후 교육균형발전학교 선정 지표의 개선을 위한 시사점을 다음과 같이 도출함. 첫째, 현행 선정 지표의 적절성 제고를 위해 지표 체계 재조정이 필요함. 먼저 지표별 세

부 기준 조정임. 5가지 지표에 대해 전체적으로 약 70% 이상의 교원들이 적절하다고 응답했기에 지표를 폐지하거나 새로운 지표로 변경하기보다 현행 지표의 세부 기준을 조정하는 것 이 보다 효율적인 개선 방향일 것임.

- 다음으로 지표별로 구간을 설정하고 구간별로 배점화하여 총점으로 교육균형발전학교를 선정하는 것임. 이는 현행 지표가 세부 기준의 충족 여부에 따라 교육균형발전학교 대상 여부를 결정하는 적부(cut off)의 기준으로 작용(김왕준 외, 2022)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교육균형발전학교를 선정할 때 다양한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방향으로 개선이 필요함.

〈표 2〉 교육균형발전학교 선정 지표별 세부 기준 수정(안) 제안

구분	기준 세부 지표	수정(안)
지표1	(공통) 학교 건립 시점: 개교 25년 이상 (2000.12.31. 이전 개교)	(수정안1) 개교 20년 이상 (수정안2) 공통 적용 삭제
지표2	학생 수 감소 비율: 초·고 20% 이상, 중 10% 이상 (2020년 기준 2024년 학생 수 감소 비율)	일정 기간(예: 3년 등)을 기준으로 학생 수 감소 비율 설정
지표3	교육비 지원 학생 비율: 10% 이상 (2024년 기준)	현행 유지
지표4	교육비 지원 학생 비율: 25% 이상 (2024년 기준)	현행 유지
지표5	다문화 학생 비율: 30% 이상 (2024년 기준 전체학생 수 100명 이상교)	다문화 학생 비율 하향 조정 (예: 20% 이상)
지표6	(공통) 학교 특색사업 계획서 제출학교 (5개 중 택1)	‘교육균형발전을 위한 운영 과제’로 수정, 양식 간소화 ※ 지정 후 제출 방식 개선 필요

〈표 3〉 교육균형발전학교 지표별 구간화 및 구간별 배점화(안) 제안

구분	세부 지표	배점
지표1	25년 이상(10점), 20년 이상(8점), 15년 이상(6점), 10년 이상(4점), 10년 미만(2점)	10
지표2	(최근 3년간 학생 수 감소 비율 - 학교급별 기준 상이) 초·고: 20% 이상(20점), 19~20%(19점), … 10~11%(10점), 10% 미만(9점) 중: 10% 이상(20점), 9~10%(19점), … 1~2%(10점), 1% 미만(9점)	20
지표3	10% 이상(20점), 9~10%(19점), … 1~2%(10점), 1% 미만(9점)	20
지표4	25% 이상(20점), 24~25%(19점), … 15~16%(10점), 15% 미만(9점)	20
지표5	30% 이상(20점), 27~30%(18점), … 15~18%(10점), 15% 미만(8점)	20
지표6	학교 특색사업 계획서 제출학교 10점	10
총점		100



- 둘째, 현행 선정 기준의 적절성 제고를 위해 선정 기준의 재유형화가 필요함. 가령, A유형은 ‘학생 수 급감 학교(학생 수 감소 비율)’로, B유형은 ‘취약계층 비율이 높은 학교(교육비 지원 비율)’로, C유형은 ‘다문화 학생 비율이 높은 학교(다문화 학생 비율)’로 설정하는 것임. 이때, 공통지표 2 가지는 그대로 유지하거나 유형별로 세부 기준을 조정하는 방향을 고려할 수 있음. 또한 유형별로 선정교 수를 설정함으로써 유형별 비중을 고려하는 방안도 생각해볼 수 있음.

〈표 4〉 교육균형발전학교 선정 기준의 재유형화(안) 제안

구분	학생 수 급감 학교	취약계층 비율이 높은 학교	다문화학생 비율이 높은 학교
선정기준	일정 기간 기준 학생 수 감소 비율	교육비 지원 학생 비율	다문화학생 비율
	(공통1) 학교 건립 시점(개교 25년 이상)		
	(공통2) 학교 특색사업 계획서 제출(교육균형발전을 위한 학교 운영 과제 제출)		
선정교 수 (120개 기준)	30개교	50개교	40개교

- 셋째, 현행 지원 방식의 변경에 대한 재고가 필요함. 설문조사 결과, 과반수의 교원은 학교의 전체 학생 수 등과 같이 별도 기준을 설정하고 그 기준에 근거하여 학교별 차등 지원하는 방식이 더 적절하다고 보았음. 이에, 전체 학생 수 또는 지원받는 사업의 수와 규모 등을 기준으로 설정하여 차등 지원하면서 대상교 수를 확대하는 방향을 고려할 수 있을 것임.

4. 연구 제언

가. 정책 제언

- 첫째, 현행 지표 및 기준의 수정·보완이 필요함. 현행 지표의 세부 기준을 재조정하거나 지표 중심으로 유형화하는 방향이 현실적인 방안임. 향후 3차 사업을 준비하는 차원에서 교육균형 발전학교 선정 지표 체계와 관련한 연구가 수행되어야 함.
- 둘째, 교육균형발전학교 지정 및 지원 방식과 관련하여 장기적 접근이 요구됨. 장기적 지원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데이터 기반 지정 체계로 전환이 필요함. 현행 지표뿐 아니라 새로운 지표를 개발하여 지표 체계를 재설정하고, 지표별로 과거 추이와 예측 데이터를 종합하여 일정 기간 교육균형발전학교로 선정해야 할 학교를 추려내는 것임. 교육균형발전학교로 선정하는

모든 학교를 장기적으로 지정하기보다 장기적 지원이 필요한 학교들을 일부 추출하고 이외에는 단기성 지원을 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음.

나. 후속 연구 제언

- 2차 교육균형발전사업 기간에 교육균형발전학교로 지정되었던 학교들을 대상으로 효과성을 분석하는 연구가 필요함. 효과성 분석을 위해 정량지표와 정성지표를 설정하고, 양적 자료와 함께 구성원 대상 면담을 통하여 내밀한 자료들을 수집해야 할 것임.



미래 사회 변화와 교육적 대안 연구

- 특색교육 정책을 중심으로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AI 시대에 접어들면서 ‘나는 누구인가?’라는 철학적 질문은 ‘무엇이 나를 나로 만드는가?’라는 질문으로 변화되고 있음. 이는 자신에 대한 ‘성찰적 질문’이 인간을 둘러싼 다른 인간, 공간 그리고 환경, 기술 등과 연관된 ‘관계적 질문’으로 전환되는 것임. 이러한 질문은 ‘현재의 나’를 넘어 ‘미래 사회’에 대한 질문으로 확대해 볼 수 있음. 이를 대입하면 ‘미래 사회는 어떤 모습인가?’에 머물던 질문이 ‘무엇이 미래 사회를 변화시키는가?’라는 질문으로 변화하며, 이는 교육을 통해 미래 사회에 대비하고자 하는 움직임에 큰 화두를 던짐.
- 최근 5년간 인류는 감염병 위기와 지구생태계 파괴의 가시화를 경험하고, 한편으로 새로운 기술에 의한 도전의 시간을 보내게 되었음. 이에 따라 미래 교육 담론 또한 예측 불가한 미래를 다룬다는 점에서 기존의 논의와는 다른 양상을 보임. 즉, 미래 사회와 교육에 관한 논의는 시간적 흐름에 따른 변화를 논하기보다, 미래 사회를 변화시키는 변수들을 탐색하고 이에 대한 대응을 적극적으로 논의해야 함.
- 미래 사회의 예견된 위험과 변화는 국가 수준의 교육 방향에 영향을 미치고, 이는 곧 지역 수준의 교육과 정책에도 영향을 미침. 특히 지역 수준에서 미래 사회 변화에 대응하는 교육정책을 살펴보는 것은 지역의 특수성과 차별성을 반영하고, 지역의 교육공동체 구성원에게 보다 유의미하고 특화된 교육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음(박상완, 2013). 또한 지역 수준의 차별화된 정책들이 해당 지역의 교육 환경을 개선하고, 다른 지역으로 전이되는 과정을 통해 교육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들은 미래 사회에 대한 공동 대응이 가능함을 시사함(박홍식, 2005, 장석준, 김두래, 2012).

연구책임자 : 임태원
공동연구원 : 김영순, 신범철, 이길용
협력연구원 : 이광수

○ 본 연구는 OECD가 발간한 「Trends Shaping Education 2025」을 중심으로 미래 교육에 관한 담론을 분석하여 ‘미래 사회 변화’를 범주화하고, 이에 따른 지역 수준의 교육정책을 비교·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음.

연구 문제

- ▶ 미래 사회 변화와 이에 따른 교육 담론의 핵심 주제는 무엇인가?
- ▶ 미래 사회 변화를 반영한 시·도교육청의 특색교육 정책과 추진 전략은 무엇인가?
- ▶ 미래 사회 변화를 반영한 지방자치단체의 특색교육 정책과 추진 전략은 무엇인가?

2. 연구 내용 및 방법

가. 연구 내용

1) 미래 사회 변화와 교육 담론의 핵심 주제

○ 우리 사회의 불확실성과 불안정성은 그 자체가 위험으로 인식되기도 하지만, 이를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분야의 대응 또한 함께 논의되면서 활로를 찾고 있음. 본 연구에서는 미래 사회 변화가 교육과 연결되는 지점을 주요 보고서를 통해 분석하고, 이를 관통하는 핵심 주제를 도출함.

- 「Trends Shaping Education 2025」 기초 분석
- 「이재명 정부 123대 국정과제」 연계 분석
- 특색교육 정책 분석을 위한 미래 교육 담론의 핵심 주제 도출

2) 시·도교육청의 특색교육 정책과 추진 전략

○ 각 시·도교육청은 추구하는 교육 방향과 정책을 주요업무계획을 통해 안내하고 있으며, 이러한 자료를 통해 정책별 목표 과업과 추진 전략 등을 확인할 수 있음(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2017). 이에 본 연구에서는 앞서 도출한 미래 교육 담론의 핵심 주제를 중심으로 17개 시·도 교육청의 주요업무계획과 정책 자료를 분석하고, 이를 통해 특색교육 정책과 추진 전략을 비교하였음.



- 17개 시·도교육청 특색교육 정책 현황 비교·분석
- 특색교육 정책별 추진 전략 비교·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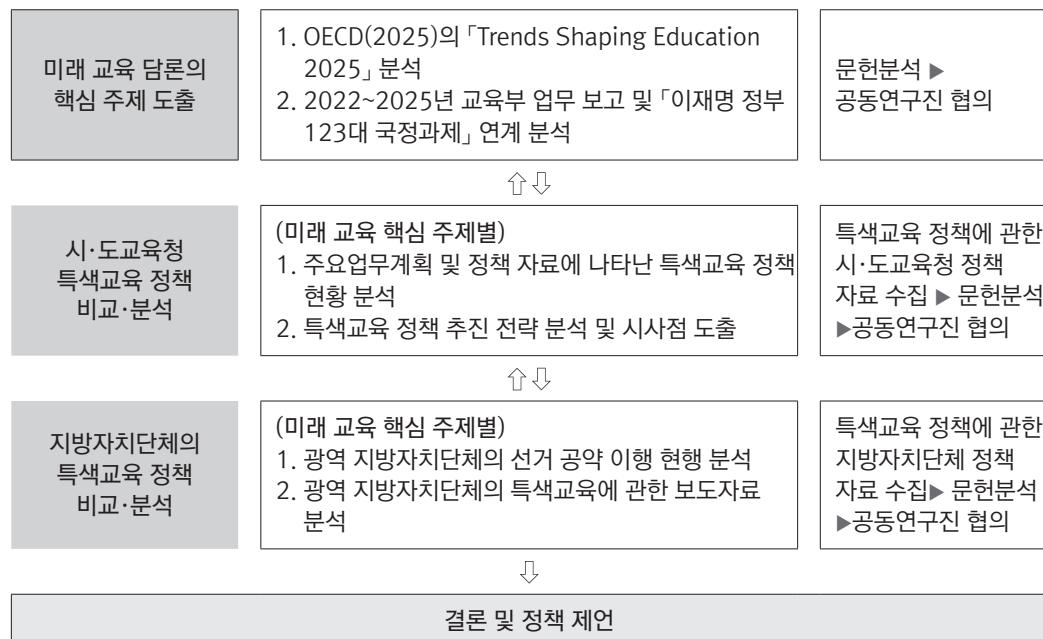
3) 광역지방자치단체의 특색교육 정책과 추진 전략

○ 광역 단위의 교육자치를 고려할 때 교육정책의 주된 수립·실행 주체는 시·도교육청으로 볼 수 있으나, 이는 학령기에 해당하는 교육에 국한된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음.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에서는 특색교육에 관한 논의를 전 생애로 확대하기 위하여 광역지방자치단체의 특색교육 정책과 추진 전략을 비교·분석하였음.

- 광역 지방자치단체의 특색교육 정책 현황 비교·분석
- 특색교육 정책별 추진 전략 비교·분석

나. 연구 방법

○ 본 연구는 연구 목적에 따라 연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다음 [그림 1]과 같이 연구 절차와 분석 방법을 적용하였음.



3. 연구 결과

가. 미래 교육의 담론과 핵심 주제

○ OECD의 「Trends Shaping Education 2025」와 우리나라의 정부별 국정과제를 분석하여 도출한 미래 교육 담론의 핵심 주제는 다음의 다섯 가지로 종합됨.

- 학령인구 감소와 개별 맞춤형 교육 여건 조성
- 과학기술의 발전과 AI 디지털 교육
- 갈등 해소와 글로벌 인재 양성
- 기후위기 대응과 지역 기반 생태환경교육
- 지역 거버넌스 및 정주형 인재 양성

○ OECD(2025)는 미래 교육에 영향을 미칠 핵심 주제로 'AI와 기술 변화', '환경 지속가능성', '불평등과 양극화'를 제시하였으며, 이에 따른 노동시장과 교육 현장의 재편을 강조함. 이러한 주제는 향후 기술 혁신이 사회·경제적으로 미칠 영향을 전제하며, 이에 따라 교육을 통해 길러내고자 하는 인재상의 변화를 촉구하고 있음. 한편, 환경 지속가능성 또한 교육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할 축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생태적 감수성과 지속가능한 삶의 태도가 교육을 통해 길러져야 함.

○ 우리나라에서 주목하는 미래 교육의 방향은 '학령인구 감소와 개별 맞춤형 교육 여건 조성', '지역 거버넌스 및 정주형 인재 양성'으로 나타남. 2022년부터 2025년에 걸쳐 두 개 정부에서 강조하고 있는 교육의 핵심 과제를 살펴보면, 학령인구의 감소세 속에서 학생들의 개성과 진로를 존중하는 개별 맞춤형 교육으로 나아가는 기조를 형성하고 있음. 또한 국가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 '교육'이 가진 기능을 확장하고 있는데, 이는 지역대학을 중심으로 지역사회가 연대하고 이를 통한 정주형 인재 양성을 목적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음.

나. 시·도교육청 특색교육 정책 비교·분석

○ 17개 시·도교육청의 특색교육 정책을 5가지 주제 범주로 분석한 결과 다음 <표 1>과 같은 정책 추진 양상이 나타남.

〈표 1〉 17개 시·도교육청의 특색교육 정책 추진 양상

범주	정책 추진 양상
학령인구 감소와 개별 맞춤형 교육 여건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정규모학교 육성 ▪ 다양한 학교 모델 개발 ▪ 농어촌 유학 활성화 ▪ 온라인 교육 확대
과학기술의 발전과 AI·디지털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I·디지털 기반 개별 맞춤형 교육 ▪ AI·디지털 교육 기반 조성 ▪ 디지털 시민성 교육
갈등 해소와 글로벌 인재 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과정 및 교육활동의 혁신 운영 ▪ 세계시민교육의 활성화 ▪ 외국어 교육 특화 시도 ▪ 국제교류를 통한 글로벌 역량 증진
기후위기 대응과 지역 기반 생태환경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기반 생태환경교육 활성화 ▪ 생태환경교육 인프라 구축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실천 교육
지역 거버넌스 및 정주형 인재 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거버넌스 체계 구축 ▪ 정주형 인재 양성 ▪ 지역 기반의 특색교육 운영

○ 학령인구 감소와 개별 맞춤형 교육은 ‘다양한 학교 모델 개발’과 ‘온라인 교육 확대’가 전 시·도교육청에서 논의되고 있었음. 한편, ‘적정규모학교 육성’이나 ‘농어촌 유학 활성화’는 학령인구의 감소폭이 상대적으로 가파르거나, 농어촌의 인구 유입이 절실히 요구되는 지역에서 주요 정책의 추진 전략으로 채택하고 있음. 이와 같은 교육환경의 혁신과 특화 시도는 향후 지역 수준에서 맞이하게 될 인구 위기도 맞닿아 있으며, 나아가 교육환경의 양극화로 인해 벌어질 교육 격차에 대한 예방책으로도 작용하게 됨. 따라서 향후 교육정책의 수립에서는 지역이 가지고 있는 교육환경과 교육자원, 학령인구의 추세 등을 고려한 정책 다양화가 지속적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음.

○ 과학기술의 발전과 AI·디지털 교육은 미래 사회를 살아갈 학생들의 역량을 길러주기 위한 인프라 구축을 중심으로 다수의 정책이 추진되고 있었음. 다수의 시·도교육청은 선도학교 지정이나 AI 교육을 위한 직속 기관 운영을 통해 AI·디지털 교육 활성화의 초석을 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이러한 AI·디지털 교육의 확대는 그 대상으로 학생뿐 아니라 교사를 포함하고 있었으며, ‘AI·디지털’이라는 주제를 교육의 도구이자 배움의 대상으로 적용하고 있었음. 다만, AI를 비롯한 기술 발전의 속도를 교육 현장의 변화가 따라갈 수 있는가에 대한 우려가 존재하고 있으며, 교육 주체인 교사의 역량을 증진함에 있어서도 보다 실질적이고 고도화된 접근이 요구됨.

○ 기후위기 대응과 지역 기반 생태환경교육은 ‘지속가능성’이라는 공통된 주제 아래에서도, 지역이 가진 지리적·역사적 환경을 바탕으로 한 다양한 특색교육 정책이 추진되고 있음. 서해안(인천)이나 낙동강(경북)과 같이 직접적인 체험이 가능한 환경을 가진 시·도에서는 특화된 교육 프로그램을 다수 운영하고 있었으며, 내륙의 경우 지역 내 대학이나 기관과 연계한 질 높은 환경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음. 이러한 정책의 추진은 시·도교육청 수준에서도 미래 사회의 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하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로 이해할 수 있음. 따라서 향후 정책 수립에서는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던 생태환경교육을 어떻게 학교 교육과 일상에서 확산할 수 있을지에 관한 논의가 필요함.

○ 이 외에 ‘갈등 해소와 글로벌 인재 양성’, ‘지역 거버넌스 및 정주형 인재 양성’의 특색교육 정책 추진은 17개 시·도교육청에서 유사한 경향이 나타남. 가령,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한 특색교육 정책은 IB 교육의 도입, 국제 교류 등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으며, 학생의 다양성을 고려한 특색교육의 추진은 여전히 미흡한 수준임. 한편, 정주형 인재 양성과 관련한 정책에서는 특성화고를 중심으로 한 사업이 다수 확인되었으며, 일반고를 포함한 다양한 배경의 학생을 위한 정책은 주목할 만한 사례가 확인되지 않음. 이러한 현상은 글로벌 역량 함양과 지역 정주형 인재 양성의 필요성이 비교적 오래전부터 제기된 것에 반하며, 앞으로는 단순한 외국어 교육이나 체험 확대를 통한 접근보다 모든 학생이 보편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양질의 교육 제공으로 전환되어야 함을 시사함.

다. 지방자치단체의 특색교육 정책 비교·분석

1) 생애주기별 특색교육 정책과 추진 전략

○ 광역지방자치단체의 특색교육 정책을 생애주기별로 분석한 결과는 다음 〈표 2〉와 같음.

〈표 2〉 광역지방자치단체의 특색교육 정책 추진(생애주기별)

구분	범주	정책 추진 양상/주요 정책
생애 주기별	유·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공립어린이집 및 다함께돌봄센터 확충 ▪ 양육 취약계층 대상 맞춤형 지원 ▪ 아동학대 예방 및 지역 보호체계 강화 ▪ 아동의 놀이권 보장 및 창의적 공간 조성 ▪ 보육교직원 처우 개선 및 전문성 제고
	중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특별시 ‘서울런(Seoul Learn)’ ▪ 충청남도 ‘드림투게더’
	고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특별시 ‘캠퍼스타운’ ▪ 부산광역시·전라북도 ‘공유대학’ ▪ 경기도·부산광역시·경상남도 ‘캠퍼스혁신파크’
	평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특별시 ‘인생전환센터’ ▪ 광주광역시 ‘장애인평생학습도시’ ▪ 강원특별자치도·제주특별자치도 ‘바우처 및 특화 프로그램 운영’



- 광역지방자치단체는 시·도교육청 주도의 초·중등교육에 관한 정책보다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교육이나 고등교육, 평생교육에 연계한 특색교육을 주된 정책 영역으로 설정함. 먼저, 유·초의 경우 모든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국공립어린이집 및 다함께돌봄센터 확충', '아동의 놀이권 보장 및 창의적 공간 조성'의 기조로 유사 정책을 수립·추진하고 있음.
- 중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특색교육 정책은 서울특별시의 '서울런(Seoul Learn)'과 충청남도의 '드림투게더'가 확인되었는데, 두 정책은 교육 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지자체 수준의 교육 지원을 주된 정책 목표로 하고 있음. 이와 같은 유·초·중을 대상으로 한 지자체 수준의 특색교육 정책은 시·도교육청이 추구하는 교육목표와의 접점이 두드러지며, 효율적인 예산 사용과 정책의 파급력을 확대하기 위하여 지자체와 시·도교육청이 협력하는 정책 모델의 추진이 시도될 수 있음을 시사함.
- 고등교육과 평생교육에 관한 특색정책은 지역대학을 중심으로 한 전문 인력의 양성, 중·장년 및 장애인 등 특정 대상을 위한 재교육 과정의 운영이 주된 특징으로 나타남. 이는 미래 사회에 예견되는 노동 시장의 변화에 대응하여 지역대학의 인프라와 교수 인력을 시민 교육에 활용함으로써 '학교-대학-지역사회'가 연대하는 교육 거버넌스를 구축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음.

2) 주제별 특색교육 정책과 추진 전략

- 광역지방자치단체의 특색교육 정책 추진은 다양한 하위 분야 중 하나로 인식되므로, 시·도교육청의 정책 추진과는 용어 사용이나 범위에서 필연적으로 차이가 발생함.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정책 분야를 본 연구에서 다른 미래 사회의 핵심 주제와 연계하면, '과학·기술, 문화·예술/독서, 글로벌 역량, 민주시민, 생태환경'이라는 키워드로 다음 <표 3>과 같이 종합할 수 있음.

<표 3> 광역지방자치단체의 특색교육 정책 추진(주제별)

구분	범주	주요 정책	
주제별	과학·기술	서울특별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아카데미(핀테크, 로봇, IoT) - 서울형 혁신산업 인재 양성 프로그램 - 청소년 에듀투어
		부산광역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산디지털혁신 아카데미 - 디지펜 아카데미 - 찾아가는 디지털에듀버스
		경기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반도체 공유대학 - 일학습병행 고등교육 과정(P-TECH) - 42경기 스타트업 아카데미

구분	범주	주요 정책	
주제별	문화·예술/독서	서울특별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예술영재 교육 - 책읽는 서울광장 - 미디어 특화 시립서서울미술관 건립
		울산광역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케이팝 사관학교 - 외솔 한옥도서관
		경기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인 1예술교육 (대안교육, 학교밖 청소년 지원센터 16개 기관) - 지방 문화원(5개소), 공립박물관(2개 지역) 건립
		경상북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책 읽는 경북 만들기 - 경상북도 K창 열린도서관 등
글로벌 역량	부산광역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어교육 상설협의체 구성 - 영어 캠프와 방송 제작 등 도시 차원의 영어 환경 조성 	
	충청남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국제화특구 운영 활성화 	
민주시민	전라남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호남 청년 아카데미 	
생태 환경	광주광역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아숲 조성 정책 	
	경기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탄소중립학교 운영 - 탄소중립교육 전문강사 양성과정 운영 	
	전라남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남 어린이 숲체험 현장활동 지원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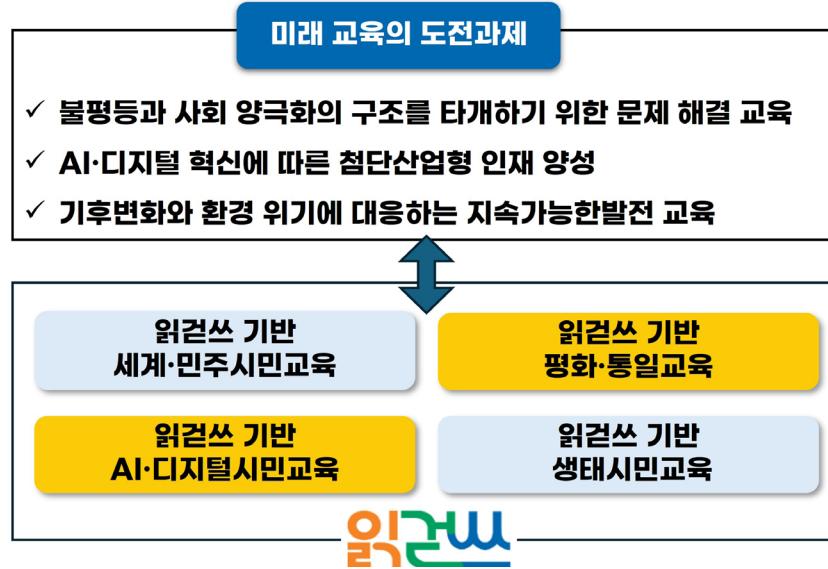
- 광역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 가장 주력하고 있는 특색교육 분야는 '과학·기술'과 '문화·예술/독서'로 확인됨. 지자체별로 접근 방식은 다르지만, '아카데미'의 형태로 시민들의 직업교육과 교양교육에 중점을 두고 있었으며 '과학·기술'의 경우 지역 내 대학이나 전문 인력풀을 구축하여 체계적인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것이 특징적임.

- 생태환경의 경우 유아를 대상으로 한 체험교육이 주를 이루었으며,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글로벌 역량, 민주시민, 생태환경 교육은 상대적으로 미흡한 것으로 나타남. 이러한 결과는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추구하는 교육의 목표가 '인재 양성'보다는 '직업 전환과 삶의 향유'라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을 배경으로 이해할 수 있음. 다만, 미래 사회의 변화가 전 생애에 걸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지자체 수준의 특색교육 정책 또한 범위와 추진 방향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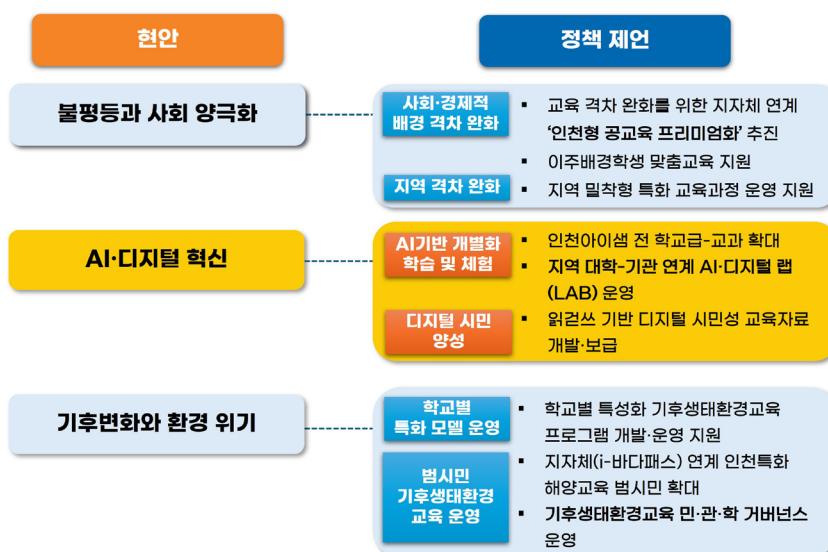
4. 정책 제언

- 불확실성에 대한 교육 대응 체계: 현행 교육정책 고도화



[그림 2] 미래 교육의 도전과제와 읽기기반 교육의 대응

- 인천의 특색교육 정책의 균형: 현안 교육정책 강화



[그림 3] 교육 현안별 인천 특색교육에 관한 정책 제언

인구·경제 축소 시대의 인천교육 방향 탐색

연구책임자 : 문영진
공동연구원 : 권순형, 배은주, 안병훈
협력연구원 : 주현성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저출생·고령화·저성장은 우리 사회가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야 할 외생변수가 됐으며, 성장사회를 축소사회로 바꾸는 주요 요인임(한국경제, 2025.9.1.). 우리나라의 교육체계는 인구 증가와 경제성장을 전제로 두고 설계되어 왔으나, 현재 우리는 인구·경제의 축소시대에 직면함에 따라 축소 전환기에 걸맞은 새로운 교육 방향을 모색해야 할 시점에 있음.

- 인천은 군구 간 학령인구 변화와 그에 따른 규모의 차이, 이주배경학생 등 학생 구성의 다변화 등 다양한 교육적 변화에 당면해 있으며, 군구별로 다양한 지역 기반 산업의 변화가 예측되어 동일한 축소 국면이라도 지역별 수요와 과제가 상이함.

-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인구·경제 축소 시대의 현황과 변화를 살펴보고, 예상되는 교육 현장의 변화와 인천교육의 방향을 탐색하고자 함. 인구·경제 축소 시대에 따른 변화는 매우 다양할 것으로 예상되나, 여기에서는 노동, 지역 정주성, 포용, 격차, 복지의 5가지 키워드로 한정하였음. 이 키워드들은 축소사회에 직면하며 발생하는 이슈와 관련된 것으로 지역과 교육에 미치는 영향이 큰 요소들임.

-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연구문제를 설정하였음.

- 첫째, 인구·경제 축소 현황은 어떠하며, 인천교육 방향 탐색에 대한 시사점은 무엇인가?
- 둘째, 인구·경제 축소 시대의 인천교육 방향은 무엇인가?



2. 연구 내용 및 방법

가. 연구 내용

- 인구·경제 축소 시대의 현황 분석 및 인천교육 방향 탐색에 대한 시사점 도출
- 인구·경제 축소 시대에 따른 변화(노동 전환에 대한 대응 및 지역 정주성 제고, 포용사회 실현, 격차 해소 및 복지 확장)에 기초하여 인천교육 방향 탐색

나. 연구 방법

- 문헌분석
 - 인구·경제 축소와 교육환경 변화에 대한 보고서 및 선행연구 분석
 - 인구·경제 축소 시대의 변화 탐색
 - 인구·경제 축소 시대의 인천교육 방향에 대한 시사점 도출
- 전문가 자문
 - 인구·경제 축소 시대에 대응하는 인천교육의 방향 탐색 및 제언에 대한 자문

3. 연구 결과

가. 인구·경제 축소 시대의 현황과 인천교육 방향 탐색에 대한 시사점

1) 축소社会의 도래와 특징

○ 축소사회는 인구감소에 따라 나타나는 사회의 구조적 변화를 의미하는 개념으로 장기적 저출생의 고착화, 기대수명 연장에 따른 급속한 고령화, 그리고 지역·연령층별 인구 이동(특히 청년층의 대도시 집중) 등의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 일반적임. 축소사회는 단순한 인구감소가 아니라 사회·경제·제도 전반의 규모와 기능을 재편하는 구조적 전환을 핵심으로 하고 있음. 주요 특징은 (1) 학령인구 및 생산가능인구의 지속적 감소, (2) 경제·재정의 축소 압력, (3) 서비스 제공의 단가 상승과 지역격차 심화, (4) 공동체 기능 약화 및 정치·세대 갈등 심화 등으로 정리할 수 있음. 이러한 변화에 대하여 인천광역시는 맥락적·통합적·지속가능한 방식의 교육정책으로 대응해야 하며,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 체계, 지역 맞춤형 교육모델, 교육·산업·

복지의 정책결합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학교교육의 자주성을 존중하면서 연계·협력할 수 있어야 함(日本学術会議, 2020; 한성민 외, 2025).

2) 인구 축소 현황과 전망

- 통계청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대한민국 인구는 2020년을 기점으로 감소하기 시작하여 2040년에는 5천만 명 아래로 감소하고, 2050년에는 4.7천만 명, 2070년에는 3.7천만 명 수준에 이를 것으로 보임. 2050년까지의 인구 성장률 추계에 따르면, 2024년을 기점으로 인구 성장이 멈추고 감소 국면에 진입함. 인구감소가 생산가능인구 감소로 이어진다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할 것으로 예측됨. 25년 후에도 현재의 경제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인구감소를 보완할 수 있을 만큼 생산성을 현재보다 약 1.5배 높여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도 있음(한성민 외, 2025).
- 인천광역시의 총인구는 201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며, 2022~2024년대 초반까지는 순유입이 유지되면서 다른 광역시와 차별화되는 양상을 보여 왔음. 인천광역시의 인구는 지난 2022년 약 297.5만 명에서 2037년 약 312.6만 명으로 증가한 뒤 2052년에는 약 296.4만 명 수준으로 완만히 감소하는 중위 시나리오가 제시(채은경, 유근식, 2024)된 바 있음. 이와 같은 인천의 인구 추이는 송도·검단·영종 등 신도시 개발에 따른 신규 주택공급과 연계된 인구유입의 요인이 향후 일정 기간 유지·지속될 것이라는 판단에 따라 예측된 것으로 볼 수 있음.

- 다만, 인천광역시 내에서는 중구·연수구·서구 등 일부 구역이 인구 순유입의 수혜를 받는 반면, 남동구·계양구 등은 인구유출 또는 정체로 인해 취약한 모습을 보이며, 강화군·옹진군·동구 등의 일부 지역은 고령인구 비중이 높아 사망률 증가가 인구감소에 큰 영향을 미치는 지역으로 분류됨(채은경, 유근식, 2024). 즉, 인천광역시의 전반적인 인구감소 추세는 다른 특별·광역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완만하였으나, 지역 내 인구격차가 나타나고 있으므로 군·구별 이질성을 고려한 지역 맞춤형 정책 대응이 필요함을 시사함. 한편, 외국인 비중이 크다는 점 역시 인천광역시 인구통계에 주목할 만한 점임.

3) 경제 축소 현황과 전망

- 인구감소·고령화가 잠재성장률을 지속적으로 낮추는 구조적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음. 우리나라의 생산가능인구(15~64세)가 2025년 약 3,590만 명에서 2035년 3,190만 명, 2050년 2,440만 명으로 급감한다는 전망은 노동투입의 장기적 축소를 의미하며, 이에 따라 실질 GDP 성장률은 중장기적으로 하향 압력을 받을 것으로 예측함(한성민 외, 2025).
- 향후 우리나라의 인구구조 변화상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는 노동공급의 총량 축소를 의미하게



되지만, 그 영향으로 말미암아 노동력의 질적 측면(연령·교육·숙련도 분포)과 산업별 노동수요의 구조적 불일치로 증폭될 가능성이 있음. 노동공급 감소는 ① 임금상승 압력, ② 인력난·구인구직 미스매치, ③ 산업간 인력 재배치 비용 상승의 요인이 될 수 있고, 특히 현장노동의 존도가 높은 서비스업·건설업·일부 제조업에서 인력부족의 체감도가 클 것으로 예상됨(한성민 외, 2025). 이와 같은 인력구조에 대한 쟁점은 필연적으로 교육계의 인력수급 정책과 맞물리면서 인적자원개발 정책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고등교육 분야 나아가 유·초·중등교육 분야에도 영향을 미치게 됨.

- 인천시 경제는 수출 제약 요인으로 인해 제조업·서비스업 생산이 둔화하는 추세를 보이나, 소비 부문 지표는 부채 총액 및 연체율의 상승에도 불구하고 소폭 개선되며 반등 신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남. 2025년 4월 기준 인천광역시 제조업 생산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4.1% 증가한 152.2를 기록하며 안정적인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2025년 1분기 기준 서비스업 생산은 전년 동기 대비 0.8% 증가한 123.8로 서울, 경기 등 타 수도권 지역보다는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2025년 1분기 기준 인천광역시 소매판매액지수는 1년 만에 전년동기 비 증가 전환하였으며, 2025년 5월 소비자심리지수(CSI)는 전월대비 9.0p 상승한 97.5로 다소 회복되었고, 2025년 5월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0.6% 감소한 50.2억 달러로, 인천시 10대 수출국 중 중국, 미국, 싱가포르, 일본 등 4개 국가로의 수출은 감소하고, 이 외 국가에 대한 수출은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됨(인천연구원 인천경제동향분석센터, 2025).

4) 축소시대 변화에 따른 인천교육 방향 탐색에 대한 시사점

○ 인구·경제 축소 시대의 변화에 따라 인천교육 방향 탐색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면, 첫째, 노동시장 전환과 지역 정주성에 대한 적극적인 교육적 대응이 필요함. 향후 AI와 로봇 도입에 의한 일자리의 자동화 및 노동시장 내 첨단 기술분야에 대한 고숙련 인재 수요 증가 등에 대응하여, 중등 단계에서는 미래 노동시장에 적합한 ‘역량’ 중심 교육으로 재편되어야 하며, 초등 단계에서부터 첨단 기술분야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고 기술습득이 가능한 교육과정을 적극적으로 편성 및 운영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배우고(習)-일하고(務)-정착하는(定)” 지역 내 선순환을 이루기 위한 학교교육 전략을 마련해야 함.

○ 둘째, 포용사회 실현에 있어 학교교육의 역할과 기능이 재편되어야 함. 인천시처럼 다문화 인구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지역일수록 다문화가정 증가와 세대 격차 심화가 예상되므로 인천시 차원에서 포용적 사회로의 전환이 요구됨. 이를 위해 인천교육은 다양성 존중과 공존의 가치를 교육과정 전반에 통합함으로써 학생들이 다양한 배경을 이해하고 협력하는 태도를 기르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함.

○ 셋째, 격차 해소와 복지 확장을 위한 교육정책이 마련되어야 함. 축소사회에서는 각종 행·재정 지원 감소로 교육 여건의 지역·계층 간 격차 확대가 우려되며,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보편적 학습 보장과 취약계층 맞춤 지원의 병행이 필요함. 학생들이 학업이나 정서 결손으로 방치되지 않도록 끝까지 책임지는 책임교육 체제를 확립하여 모든 학생의 기본 학습권과 복지 보장 및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함.

나. 인구·경제 축소 시대의 인천교육 방향 탐색

- 인구·경제 축소 시대의 인천교육 방향은 크게 1) 지역과 사람을 잇는 지속가능한 교육, 2) 다양성을 존중하며 공존의 가치를 세우는 교육, 3) 모두의 성장을 책임지는 교육으로 제안함.
- 첫째, 전체적인 인구감소와 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른 노동의 전환에 대응하며, 우수 및 지역 인재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지역 정주성 제고를 위한 “지역과 사람을 잇는 지속가능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함. 구체적으로 학생 개별 성장경로를 지원하는 중등 단계의 진로·진학지도를 혁신하고, “일하며 배우는” 직업교육 체제를 구축하며, 고교-대학-산업 간 파이프라인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함. 또한, 우수 인재 유출 예방을 위한 학습자 전환기 맞춤 지원 패키지를 제공하며,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학교체제를 개편하고 교육인프라를 최적화하고, 지역 정주성을 높이는 교육과 지역 간 연계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 둘째, 모든 학생이 차별 없이 소속감을 느끼고 공평한 학습기회를 보장받는 포용사회를 향하기 위해 “다양성을 존중하며 공존의 가치를 세우는 교육”이 이루어져야 함. 이를 위해 다양성을 존중하고 사회통합력을 제고하는 포용교육을 실현하고, 연대와 공존의 글로벌을 실천하는 세계시민교육이 강조되어야 함. 아울러 포용교육과 세계시민교육의 통합적 연계 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임.
- 셋째, 인구·경제 축소에 따라 심화할 격차를 해소하고 복지를 확장하기 위한 “모두의 성장을 책임지는 교육”이 이루어져야 함. 구체적으로 미래 생존 역량을 보장하기 위한 기초책임교육을 강화해야 하며, 학생 정신건강을 위한 지원도 강화해야 함. 또한, 취약계층을 미래 잠재적인 동력으로 전환하기 위해 맞춤형 포용 정책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며, 학교와 지역 간 연계를 통한 교육복지 안전망을 강화하는 것도 필요함.
- 인구·경제 축소 시대의 인천교육은 단순한 대응의 차원을 넘어, 교육을 통해 지역의 지속가능성을 재구성해야 하는 전환적 과제에 직면해 있음. 그 핵심은 ‘모든 학생이 지역 안에서 성장하고, 배우며, 살아갈 수 있는 학습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있음. 축소社会의 도래는 교육의 본질적 가치를 되묻는 계기이며, 인천교육은 이를 통해 ‘사람이 머무는 도시, 교육이 살아있는 도시’로의 전환을 주도할 수 있을 것임.



4. 연구 제언

가. 정책 제언

- 첫째, 진로·직업교육 정책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학교지형 재설계임. 다양한 진로 수요에 맞는 교육이 지역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학교지형의 재설계를 적극 추진해야 함. 예컨대, 군구별로 폐교위기에 처한 소규모학교 또는 유휴교실이 많은 학교를 대상으로 진로탐색·직업체험 거점으로 활용하거나, 인근 학교 간 협력형 캠퍼스 모델을 구축하고, 지역산업과 연계한 직업특화학교를 신설·전환하는 방식으로 학교지형을 재배치할 수 있음. 나아가 유휴교실과 폐교 등 축소사회의 공간적 변화를 교육적으로 활용하여 직업연계형 학교, 예체능 계열의 캠퍼스형 통합학교, 지역거점형 진로프로그램 운영, 지역기업의 R&D 센터나 교육장 설립 등 지역 인재 양성 중심의 학교 생태계를 구축해야 함.
- 둘째, 우수 인재 유지·유입을 위한 전환기 학습자 맞춤형 지원 패키지 제공임. 중등단계부터 졸업 후까지를 ‘전환기(중3)-탐색·성장기(고1~3)-정착기(졸업 후)’로 단계화하여 단계별로 학습자에게 적합한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는 것임.
- 셋째, 포용교육과 세계시민교육의 통합을 통한 ‘세계로’ 정책의 확장임. 인천교육의 역점 정책 중 ‘세계로’ 정책은 세계시민교육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이를 포용의 기반 위에 세계시민의 가치와 실천을 결합하여, 학생들이 학교 안팎에서 함께 살아가는 힘과 세계와 연결되는 감수성을 동시에 기를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세계로’ 정책의 목표로 재설정하는 것임. 이에 따라 분절적으로 추진되어 온 세부 정책들을 통합하여 학생 교육에서도 통합적 역량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 넷째, 인천형 글로컬 인재 트랙 제도화 및 글로컬 인재 인증제 도입임. 이주배경학생의 다언어 능력을 지역 경쟁력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이주배경학생들을 인천 지역산업의 글로벌 인력 분야와 연결한 진로트랙(고교-(대학)-기업 연계)으로 육성하는 것임. 이 과정에서 다언어 역량이 공식적으로 인정되는 역량 자산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글로컬 인재 인증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음.
- 다섯째, 모든 학생을 위한 ‘(가칭) 품교육’ 실현임. 품교육은 “모든 학생을 품는 교육”을 의미하는 것으로, 모든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학생들 간의 격차를 해소하며, 복지를 확장하는 책임교육 체계라 볼 수 있음. 2026년부터 전면 시행되는 학생맞춤통합지원 체제 하에 학생 지원과 관련한 정책 및 사업을 통합하여 학생을 위한 통합적 안전망을 구축할 필요가 있

음. 학생맞춤통합지원 기반의 품교육은 ‘보편적 지원층-조기개입층-집중지원층’의 3층 구조로 모델링할 수 있으며, 층위마다 학습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제공해야 함을 제안함.

- 여섯째, “(가칭) 인천 지역교육발전 협력조정위원회” 법제화임. 이 위원회는 교육청과 시청 간에 산별적·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협업을 통합·조정하는 상위 거버넌스로, 중장기 교육비 전 공유, 지역개발계획 내 교육 부문 반영, RISE 기반 교육자치 확대,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학교 재배치·다양화 전략 수립, 산업·복지·문화·주거 정책과 교육의 연계 강화 등을 공식적으로 논의하고 조정하는 기능을 수행하게 됨. 이를 통해 교육이 지역 발전의 핵심 축으로 자리하며, 지속가능한 지역 발전의 기반을 마련하는 데 기여할 것임.

나. 후속 연구 제언

- 첫째, 본 연구에서 제안한 3가지의 인천교육 방향을 구체화하는 연구를 제안함. 현행 정책과 사업 현황 및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하거나 확대 또는 신설해야 할 정책과 사업을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함.
- 둘째, 교육청-지자체-지역 간 정책 연계 및 협력 구조에 관한 연구가 수행될 필요가 있음. 교육청, 지자체, 공공기관, 지역사회단체 등이 추진하는 교육 관련 사업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① 연계 가능한 정책과 협력 모델 발굴, ② 유사·중복 사업을 효율적으로 통합·재편하는 거버넌스 방안 제시가 필요함.
- 셋째, 인구·경제 축소 시대에 대응하는 교원의 전문성에 대한 연구가 필요함. 본 연구에서 제안한 방향들과 관련한 교원의 전문성에 대한 고찰과 교원의 전문성 향상에 필수적인 역량 요소 도출 및 연수 프로그램 개발 등 심층적인 연구를 수행할 필요가 있음.



기후위기 시대의 인천교육 방향 탐색

연구책임자 : 임태원
공동연구원 : 이재영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미래 교육 담론에서 기후변화와 환경위기는 교육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할 과제로 인식되고 있으며, 기후위기, 생물다양성 감소, 플라스틱 오염, 미세먼지와 같은 복합적인 생태 위협은 학교 현장과 교육의 변화를 촉구하고 있음(OECD, 2025). 유네스코한국위원회(2022)의 보고에 따르면 시대가 맞이한 핵심 과제 중 기후위기는 현재의 교육 시스템으로는 해결할 수 없고, 이는 곧 지속가능성에 대한 위협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점에서 교육을 통한 희망적 대안 탐색이 시급한 상황임(손승남, 2023).
- 우리나라 「교육기본법」 제22조의2에서는 기후변화환경교육과 관련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기후변화 등에 대응하기 위하여 생태전환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음. 또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게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함을 명시하고 있으며, 학교환경교육에 관한 사항을 공고히 함으로써 주요 교육 대상으로 학생을 상정하고 있음. 이와 같은 배경에서 시·도교육청은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교육을 선택이 아니라 필수로 수행해야 하는 책무를 가지고 있음.
- 우리나라 환경부에서 고시한 「제3차 환경교육종합계획(2021~2025)」에서는 기후변화 등 환경 문제 대응을 위한 교육적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언급하며, 개인의 실천만으로 극복하기 어려운 현 상황에 대하여 국민의 인식 개선과 사회적 실천을 강조하는 환경교육이 확대되어야 함을 강조함(환경부, 2020). 기후위기에 관한 교육적 접근은 환경교육을 통해 미래 세대를 준비시킨다는 목적으로 부합하나, 가시화되고 있는 다양한 측면의 교육환경 변화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제시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음.

○ 「제3차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 수립을 위한 국가 기후리스크 평가에서는 6대 분야의 리스크 가 도출됨(관계부처합동, 2020). 기후리스크의 6대 분야 중 물관리 및 생태계, 국토·연안, 건강은 학교 교육 운영과 직결됨. 먼저, 물관리와 생태계 리스크는 폭우와 가뭄에 의한 위협을 의미하며, 이로 인한 물 공급 현안은 학교 학사 운영에 영향을 미침. 한편, 국토·연안은 폭우로 인한 침수 지역이나 주거지역 붕괴, 도시 침수 등의 리스크를 포함하고, 이는 학교 시설과 안전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요구하는 근거가 됨. 끝으로 건강 분야에서는 기온 상승과 폭염으로 인한 질환, 감염병, 정신건강 등의 문제를 리스크로 간주하며, 교육공동체 구성원에 대한 건강 관리 또한 기후위기로 인한 교육의 과제로 상정되어야 함을 나타냄.

○ 2025년을 기준으로 우리나라 교육 현장에서는 연내 이어지는 예상치 못한 폭염 경보와 호우 주의보 등에 따라 정상적인 교육 활동 운영에 어려움을 경험함. 이러한 어려움에 대한 대응으로 각 시·도교육청은 학사일정을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것을 권고하는 한편, 쾌적한 교육환경을 유지하기 위한 추가적인 행·재정적 조치를 긴급하게 수행하고 있는 형편임. 그러나 이러한 대응은 미봉책에 지나지 않으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예견되는 교육환경의 변화를 탐색하고 이에 대한 미래 교육 방향을 정립하는 것이 요구됨.

○ 본 연구에서 다루는 ‘교육환경의 변화’란 물리적인 공간으로서의 교육환경뿐 아니라, 교육 활동이 이루어지는 배경이 되는 교육철학, 교육 시스템, 교육공동체 구성원 특성 등을 포괄함. 이와 같은 교육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다차원적으로 접근하는 교육 정책의 수립이 필요하며, 이를 기후위기 시대에 인천교육이 지향해야 할 방향과 중점으로 종합하여 탐색 결과를 제시하고자 함. 이상의 연구 목적에 따른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음.

연구 문제

- ▶ 기후위기에 따른 교육환경 변화와 교육 동향 및 대응은 어떠한가?
- ▶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인천교육의 성과와 과제는 무엇인가?
- ▶ 기후위기 시대의 인천교육 방향은 어떠해야 하는가?



2. 연구 내용 및 방법

가. 연구 내용

- 1) 기후위기 시대의 교육환경 변화와 교육 동향 및 대응 탐색
 - 기후위기 시대에 직면할 수 있는 교육환경 변화 탐색 및 종합
 - 예상되는 교육환경 변화에 따른 교육 동향 및 대응 탐색
 - 교육 동향은 교육 패러다임, 환경교육, 교육환경 구축으로 구분
 - 2)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인천교육의 성과와 과제 탐색
 - 기후위기 관련 인천교육(생태전환교육, 세계시민교육, 안전·복지) 성과 분석
 -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인천교육의 과제 탐색
 - 3) 미래 인천교육의 방향과 중점 도출
 - 선행 단계를 통해 도출한 시사점을 기반으로 인천교육 방향 정립
 - 인천교육의 과제를 중심으로 한 미래교육의 중점 도출
 - 전문가 자문을 통한 미래 인천교육의 방향과 중점에 대한 타당성 검토

나. 연구 방법

- 1) 문헌 연구
 - 기후위기와 교육환경 변화에 대한 보고서 및 선행연구 분석
 -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시·도교육청 수준의 교육 정책 분석
 - 기후위기 시대의 인천교육 방향 및 중점에 대한 시사점 도출
- 2) 전문가 자문
 - 기후위기에 따른 교육환경 변화와 대응에 대한 종합 의견 수렴
 -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인천교육의 방향과 중점에 관한 타당성 검토

3. 연구 결과

가. 기후위기와 교육환경 변화

- 인천광역시의 기후변화를 평균기온, 폭염일수, 한파일수를 기준으로 2025년과 2050년을 대비하여 살펴봄. 2025년 대비 2050년 인천광역시의 평균기온은 약 1.2~1.5°C도 상승할 것으로 나타남. 이와 같은 평균기온 변화는 폭염 현상의 빈도와 강도를 빠르게 증가시키고, 이로 인한 질병, 사망률도 함께 증가할 것으로 예측됨.
- 2050년을 기준으로 인천광역시의 폭염일수는 시나리오별로 약 7일~13일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었으며, 한파일수는 3일 내외로 증가하여 비교적 변화의 폭이 좁은 것으로 나타남. 그러나 인천 지역에서 기후재난으로 인해 취약 시설의 피해가 발생하는 주요 원인이 폭설이라는 보고(인천연구원, 2021) 등을 근거로 다양한 기후재난의 보편적 대응이 이루어져야 함을 확인함.
- 기후위기에 따른 교육 환경 변화는 다음과 같은 주제로 종합할 수 있음.
 - 탈탄소 사회로의 전환
 - 기후 중립 전략의 핵심 요소: 미래교육
 - 신속한 제도적 기반 정비
 - 기후재난의 일상화와 사회적 불안
 - 다층적·협력적 체계로의 전환
- 기후위기로 인한 교육환경의 변화는 탄소중립, 법과 제도의 정비, 기후재난의 일상화 등으로 이어짐. 이와 관련하여 사회는 교육을 통해 기후위기 완화 및 적응, 기후시민 양성 등을 주요 과제로 요구하고 있음.
- 기후위기에 따른 교육 변화와 대응은 다음 <표 1>과 같이 종합할 수 있음.

<표 1> 기후위기에 따른 교육 변화와 대응

주체	변화와 대응
교육 패러다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혁신적 교육으로의 전환 • 학교 전체적 접근의 확산 • 생태전환교육의 내실화 • 교원 역량 강화 • 빅히스토리 개념의 도입과 시민 양성 •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한 환경교육 확장

주체	변화와 대응
환경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책 간 정합성과 이행 평가의 환류 강화 녹색생활 실천 교육의 내실화 기후시민으로서 청소년의 역할 강화 지역 중심의 네트워크와 코디네이팅 범부처 협력, 국제 기구 및 민간 참여 확대
교육환경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폭염·한파 등에 따른 학사 운영 대책 수립 기후변화로 인한 질병 예방·관리 기후변화 취약계층 지원 확대 기후 약자와 소외계층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 강화

- 기후위기는 거시적 차원에서 교육 패러다임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기후변화가 주는 불확실성과 가변성은 변혁적 교육으로의 전환을 요구함. 같은 맥락에서 학생들은 행위 주체성(student agency)을 바탕으로, 변혁적 역량을 길러야 한다는 공통의 방향을 확인할 수 있음. 한편, 학교 전체적 접근(Whole-school Approach)에서는 학교가 단순히 교수·학습을 제공하는 것을 넘어, 하나의 생태적 공동체로 전환하여야 한다는 움직임이 나타남.
-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교육의 실행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교원의 역량이 먼저 담보되어야 함. 이는 UNESCO가 주도하는 글로벌 이니셔티브인 'Greening Education Partnership'에서도 교사 교육을 주요 실행 축으로 두는 것 등을 통해 국제적인 공감대 형성이 이루어졌다고 이해 할 수 있음.
- 기후위기와 직접적으로 연계되는 환경교육은 지난 몇 년간 점진적으로 확장되는 추세를 보임. 특히 학교환경교육 전환과 관련하여 기존에 실행되어 온 지식·체험 중심의 교육에 대한 비판적 시각이 존재하게 되면서, 빅히스토리 기반 통합·실천형 수업과 같은 새로운 접근이 확대되기 시작함. 이와 더불어 학생의 배움을 삶으로 연결하기 위한 '학교-지역사회 연계 강화', '청소년 네트워크 및 국제 포럼 확대' 등의 성과를 보임.
-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교육환경 구축은 '학교교육 활동 보장 체계'와 '기후변화 취약계층 지원'으로 양상이 구분됨. 학교교육 활동 보장은 폭염·한파 등에 따른 학사 운영 대책 수립과 기후변화로 인한 감염병 등 질병 예방·관리가 대표적인 대응 방안으로 나타남. 기후변화 취약계층 지원은 앞으로 교육복지와 지원의 확대, 취약 요인별 맞춤형 프로그램 강화 등을 통해 강화되어야 함을 확인함.

나.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인천교육의 성과와 과제

-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인천교육의 성과와 과제는 '생태전환교육, 세계시민교육, 안전·복지 정책'을 주요 축으로 하여 5년 간의 정책 흐름과 성과를 살펴봄. 2021년 환경교육으로 시작한

생태전환교육은 인천교육에서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교육 정책을 상대적으로 장기적 관점에서 추진해 왔음. 2025년 현재 인천의 생태전환교육은 양적 확산에서 질적 내실화로 이행하는 단계에 있으며, 실질적 학습성과와 지속가능한 실행력 확보가 주요 과제로 제시됨.

○ 한편, 세계시민교육은 2023년에 이르러 '지역적인 것'을 '지구적인 것'으로 전환·확장하는 시도를 통해 본격적으로 기후위기를 교육 주제로 다루기 시작함. 2025년 현재에는 인천형 세계시민교육이 교사에 의해 재구성될 수 있는 구체적인 교육과정 문서로 제시되고 있으며, '기후변화와 나의 삶', '기후위기와 인천의 쟁점' 등에 대해 탐구하도록 하여 배움을 삶으로 연결하는 교육 활동을 전개하고 있음(인천광역시교육청, 2025).

○ 안전·복지 정책의 경우 비교적 최근에서야 기후변화로 인한 재난에 대응하고 지원하기 위한 방향의 정책을 전개하고 있음. 2025년에는 기후변화에 따른 교육환경 변화와 관련하여 풍수해 및 폭염, 한파 대응에 관한 정책이 주요 사업을 통해 수행되기 시작함. 학교에서는 풍수해 및 폭염, 한파 등에 대비한 행동요령 등을 교육하도록 하였으며, 풍수해 대비 교육시설 사전 점검 및 조치, 탄력적 냉방기 가동, 긴급 학사 운영 조정 등을 추진하여 재난 대응 체계를 가동하고 있음.

○ 2021년~2025년에 걸쳐 수행된 인천교육의 생태전환교육, 세계시민교육, 안전·복지 정책의 발전을 개괄하면 다음 <표 2>, <표 3>, <표 4>와 같음.

<표 2> 인천광역시교육청 생태전환교육 정책의 발전(2021~2025)

연도	발전 단계	핵심 내용
2021	기반 구축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후위기 대응 교육의 제도적·조직적 토대 마련 환경교육 → 생태환경교육으로 확장
2022	통합 확장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천의 정체성을 반영한 해양·기후 통합교육 추진 '환경수도 인천' 비전 제시
2023	전환 심화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육과정 기반의 생태전환 정착 '지구생태시민' 개념 및 실천학교 확대
2024	체계 정착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생태전환교실·학교숲·텃밭 등 실천 인프라 확립 교육과정·생활 문화 연계 강화
2025	체계 성숙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감·연대·실천 중심의 문화로 전환 학교와 지역을 잇는 통합형 생태전환교육 완성

<표 3> 인천광역시교육청 세계시민교육 정책의 발전(2021~2025)

연도	발전 단계	핵심 내용
2021	개념 도입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동아시아시민 양성을 위한 정책개발 및 연구 인천의 지리적 특성과 연계한 동아시아시민교육 전면화



연도	발전 단계	핵심 내용
2022	기반 구축기	• 동아시아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한 자문단, 지원단 운영 • 동아시아시민교육 지도자료 개발 및 보급
2023	전환 확장기	• 동아시아시민교육을 인천형 세계시민교육으로 전환·확장 • '지역적인 것(local:인천) → '지구적인 것(global)'
2024	체계 정착기	• 인천형 세계시민교육의 3대 핵심 과제 및 가치, 역량 정립 •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세계시민성함양' 과제 추진
2025	체계 성숙기	• 비전, 목표, 핵심 과제 및 중점사업의 확대 운영 • 「인천형 세계시민 교육」 교육과정 개발

〈표 4〉 인천광역시교육청 기후위기 관련 안전·복지 정책의 흐름(2021~20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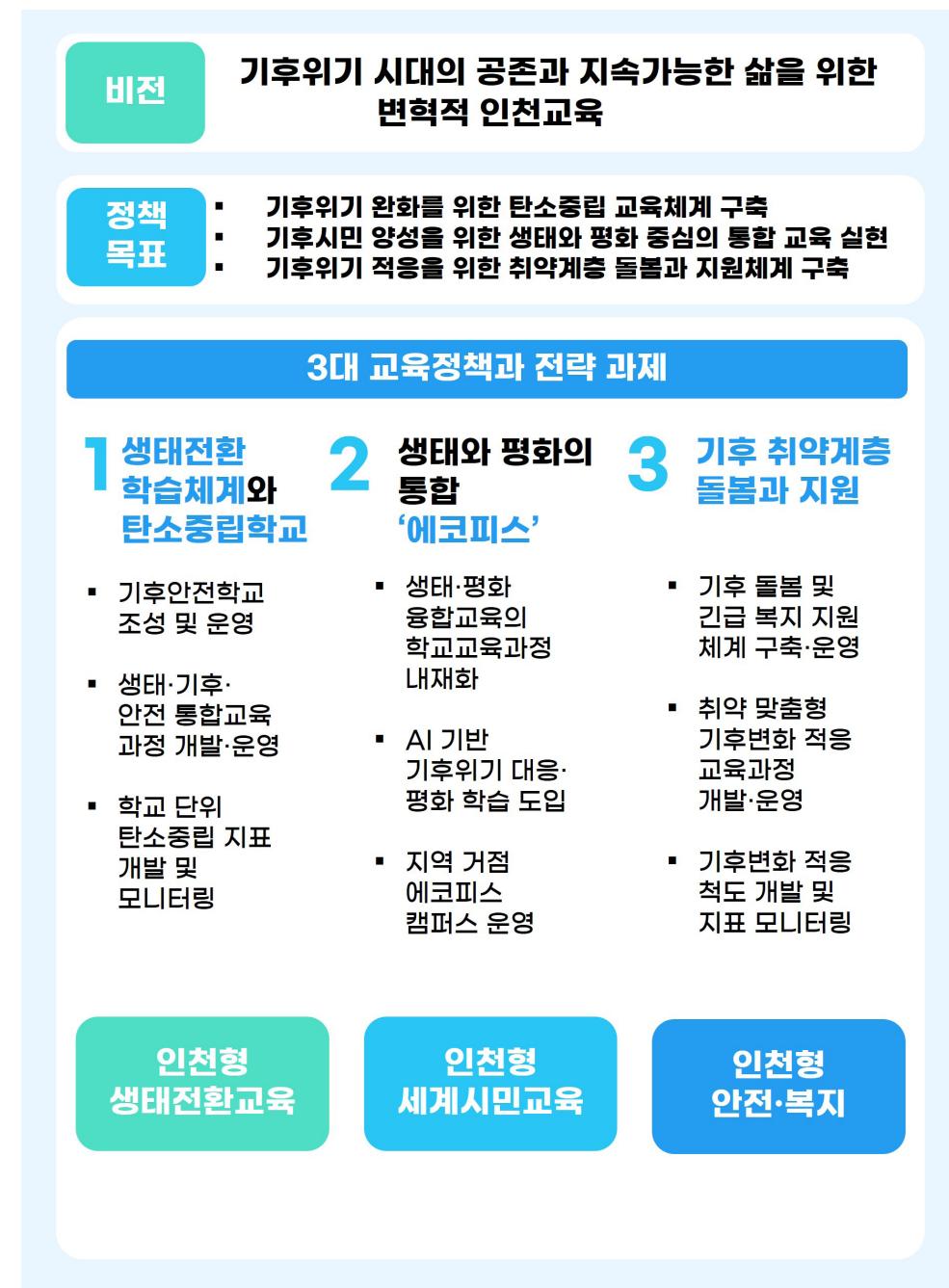
연도	핵심 키워드	주요 내용
2021	폭염, 학교보건, 재난대응 수업일수	• 여름철 폭염 대비 추진계획 수립 및 폭염 대응체계 확립 • 학교 감염병 예방 4개년 종합대책 수립·추진 • 재난 대응 수업일수 탄력적 운영(재난 발생 시)
2022 ~2023	신규 재난, 감염병 대응	• 신규 재난 유형별 매뉴얼 배부 및 안내: 기후변화 등 • 인천형 감염병 대응 방역 안전망 확립 • 신종감염병 위기학교 및 취약학교 현장 컨설팅·점검
2024	신규위험 대응, 감염병 예방	•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교수·학습자료 개발 보급 • 감염병 예방교육 확대 • 감염병 발생 위기학교 및 교육구성원 회복시스템 체계화
2025	학교급식, 기후변화, 감염병 예방	• 학교급식 위생·안전 점검 확대 • 풍수해 및 폭염, 한파 등 대비 행동요령 등 교육 • 감염병 예방교육 강화 및 현황 모니터링

다. 기후위기 시대의 인천교육 방향

○ 인천교육이 표방하는 교육비전은 '학생성공시대를 여는 인천교육'이며, 이때 '성공'이란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한다고 밝히고 있음. 이는 교육 패러다임 측면에서도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하는 것을 '웰빙(well-being)'이라고 인식하는 것과 맥락을 같이함(OECD, 2021). 이러한 배경에서 '기후위기'는 학생들의 삶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인식될 수 있으며, 이에 대응하기 위한 적극적인 교육의 전환이 요구됨.

○ 본 연구에서는 '기후위기'라는 시대적 위험에 대응하기 위하여 인천교육의 방향을 생태전환 교육, 세계시민교육, 안전·복지 정책 차원에서 접근하였음. 이는 앞서 주현성 외(2021)가 교육적 차원에서 '생태시민 양성'을 목적으로 한 것과 차별점이 있으며, 정책 차원에서 '기후위기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하여 분절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교육 정책을 종합하려는 시도로 이해할 수 있음.

○ 기후위기 시대의 인천교육 방향은 예견되는 교육 분야의 변화와 지난 5년 간의 정책 흐름을 통해 도출한 시사점을 근거로 다음 [그림 1]과 같이 제시함.



[그림 1] 기후위기 시대의 인천교육 방향 개괄



4. 정책 제언

○ 생태전환 교육체계 및 탄소중립학교 전환 추진 전략(6개) 및 세부 과제(18개)

- 기후안전학교 제도화
- 생태·기후·안전 통합교육과정 개발
- AI 기반 기후 리스크 예측 및 대응 학습 도입
- 교사 역량 강화 및 교육 전문 인력 양성
- 학교-지자체-시민사회 연계 대응 네트워크 구축
- 유네스코 GEP 선도 가입 및 국제협력 강화

○ 생태·평화 통합교육 ‘에코피스(Eco-peace)’ 추진 전략(5개) 및 세부 과제(15개)

- 생태·평화 융합 교육의 학교교육 내재화
- AI 기반 평화·기후위기 대응 시뮬레이션 학습 도입
- 지역 거점 캠퍼스 운영: 에코피스 캠퍼스(Eco-Peace Campus)
- 생태·평화·세계시민교육 통합체계 구축
- 국제 연대형 평화·생태 시민교육 강화

○ 기후변화 취약계층 돌봄 및 지원체계 구축 추진 전략(4개) 및 세부 과제(9개)

- 아동 대상 기후 돌봄 체계 구축·운영
- 기후재난으로 인한 피해 긴급 복지 지원 운영
- 기후변화 적응 교육과정 개발·운영
- 기후변화 적응 척도 및 지표를 통한 모니터링

돌봄지원실장 지원 동기 및 경험에 관한 연구

연구책임자 : 김요섭

협력연구원 : 정고은, 우경아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초등학교의 교육과 돌봄 기능 수행, 특히 정규수업 이외 시간의 교육 내지 돌봄을 둘러싼 담당 주체와 역할 논란이 지속되는 가운데, 학교 현장은 교육과 돌봄의 실행 기관으로서 복잡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음.

○ 2023년 교육부는 정부의 교육 분야 핵심 국정과제로 전국에서 돌봄학교를 운영한다고 발표하였음. 특히 2025년에는 돌봄학교 운영 전반을 총괄하는 돌봄지원실장을 처음으로 선발하여 학교에 배치 하였음. 돌봄지원실장은 전년 대비 돌봄학교 정책 변화의 핵심적인 사항으로 돌봄학교 내실화를 넘어 교사 임용, 전직, 전보, 승진제도 등과 연결되어 지난 1년간 교육계의 주요 담론으로 자리 잡음.

○ 돌봄학교 운영의 핵심 사항인 돌봄지원실장이 인천을 비롯한 전국에 최초로 도입된 시점에서 제도의 안정성과 정책 내실화 차원의 관련 연구가 중요하고 시급한 상황임. 이에 교사의 돌봄지원실장 지원 동기를 살펴보고, 돌봄지원실장 경험에 관한 분석을 바탕으로 돌봄지원실장 제도의 안착, 정책 내실화, 현장 교원 지원의 개선·발전 방안과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음.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연구문제를 설정함.

- 연구문제 1. 돌봄지원실장 지원 동기는 무엇인가?
- 연구문제 2. 돌봄지원실장 경험의 양상과 의미는 어떠한가?

2.

연구 내용 및 방법

가. 연구 내용

○ 돌봄지원실장 지원 동기: 본 연구에서는 선행 연구를 참고로 하여 동기의 행동 근원을 ‘내재적 동기’, ‘다소 내재적이면서 외재적 동기’, ‘외재적 동기’로 구분하였음. 내재적 동기는 ‘새



로운 경험, 성장의 기회, 늘봄학교에 대한 관심'으로 설정하였으며, 다소 내재적이면서 외재적인 동기는 '늘봄학교 관련 업무 경험, 늘봄학교의 내실 있는 운영, 능력 발휘의 기회' 차원에서 파악하였음. 외재적 동기는 '향후 일반 장학사, 교육연구사 등의 진로 모색, 승진에 도움, 담임·수업·생활지도 등의 부담에서 벗어남, 자유로운 복무 활용'으로 구성하였음.

- 늘봄지원실장 경험의 양상과 의미 탐색: 본 연구에서는 늘봄지원실장으로서의 긍정적인 경험, 부정적인 경험, 중점을 두고 일하는 부분, 개선·발전하고 싶은 점, 갈등과 극복 사례, 필요한 외부 지원 사항 등을 집중 탐색하였음. 이 과정에서 자신이 체감한 변화와 늘봄지원실장 경험이 교직 생애에서 갖는 의미, 늘봄지원실장 임기를 마치고 자신에게 기대하는 모습 등을 함께 살펴보았음. 다만 본 연구에서 탐색하는 경험의 시간적 범위는 늘봄지원실장 지원·선발 시기로부터는 약 10개월, 늘봄지원실장 근무 시작 시기로부터는 약 5~6개월이 지난 시점으로 상대적으로 초·중반 시기의 경험에 해당함.

나. 연구 방법

- 문헌조사를 위해 먼저 교육부와 인천광역시교육청의 늘봄학교 정책 문서를 분석하였음. 2025년 늘봄학교 운영 길라잡이, 2025년 늘봄학교 시행 방안, 늘봄지원실장 선발·임용·연수와 관련한 문서가 대표적임. 더불어 늘봄학교, 늘봄지원실장과 관련한 교육부·인천광역시교육청 공식 보도자료를 참고하였으며 연관된 언론 기사 등을 분석하였음.
- 설문조사는 2025. 5. 12.(월) ~ 2025. 5. 23.(금) 10일간 실시하였으며, 교육청 온라인 설문시스템을 활용하였음. 인천광역시교육청 관내 늘봄지원실장 전원(93명)을 대상으로 늘봄지원실장이 근무하는 본직 기관에 참여 협조 공문을 발송하였음. 설문에 최종 응답한 인원은 80명으로 약 86%의 응답률을 나타냄. 설문조사 결과 분석을 위해 IBM SPSS Statistics 29.0을 활용하여 빈도분석, 기술통계분석, 카이제곱 검정 등을 실시하였음.
- 본 연구에서 늘봄지원실장의 경험을 보다 심층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면담조사를 실시하였음. 2025. 7. 4.(금) ~ 8. 6.(수)에 관내 늘봄지원실장 12명을 연구 참여자로 하는 심층 면담을 실시하여 그들이 경험한 현상을 탐구하였음. 추후에 보다 더 긴 기간의 근무 경험을 파악하는 연구가 이루어질 수도 있을 것이나 본 연구의 시의성, 활용 가능성을 고려하여 면담 시기를 위와 같이 결정하였음. 면담 참여자는 관계자 추천 등의 방법을 거쳐 근무 지역, 늘봄학교 규모, 교직 경력 등을 안배하여 균형 있게 선정하였음.

3. 연구 결과

가. 늘봄지원실장 지원 동기 분석

- 동기 유형에 따른 응답(복수) 비율은 외재적 동기가 50.4%, 내재적 동기가 31.9%, 다소 내재적이면서 외재적 동기가 16.4%로 나타났음. 개별적인 지원 이유와 관련하여 담임 수업 생활지도 등의 부담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61명(27%)이 응답하였고, 새로운 경험을 해보고 싶어서 51명(22.6%), 자유로운 복무 활용을 위해서 38명(16.8%), 늘봄학교 업무 경험이 있어서 26명(11.5%), 성장의 기회로 삼고 싶어서 19명(8.4%), 타인의 권유나 추천으로 8명(3.5%), 향후 일반 장학사, 교육연구사 등의 진로를 모색하기 위해서 7명(3.1%),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해서 6명(2.7%), 늘봄학교 운영을 내실 있게 해보고 싶어서 5명(2.2%), 늘봄학교에 관심이 있어서 2명(0.9%) 순으로 나타남.
- 지원 동기 1순위 응답 결과를 별도로 살펴보면, 내재적 동기 중에서는 새로운 경험을 해보고 싶어서 27명(33.8%), 외재적 동기 중에서는 담임, 수업, 생활지도 등의 부담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29명(36.3%)으로 크게 두 가지 동기로 양분되었음.
- 지원을 망설이게 했던 요인으로는 방학 중 교육공무원법 제41조 연수를 쓸 수 없음이 66회(33.8%)로 가장 많았고, 전직으로 인한 인센티브가 많지 않음이 47회(24.1%), 합격 시 근무 학교(지역)를 선택할 수 없음이 30회(15.4%), 업무가 과중할 것이라는 생각이 23회(11.8%), 업무를 잘 해낼 수 있을지에 대한 걱정이나 두려움이 22회(11.3%), 주변의 전직 반대나 해당 없음이 각각 1회(0.5%)로 나타남. 기타 의견으로는 임기 만료 후 파견 근무가 어렵고 의무 복무를 해야 해서, 승진 준비를 포기하고 선택해야 하는 상황, 급여의 실질적 감소, 임기제라는 임시 지위, 교직원의 늘봄학교를 환대하지 않는 분위기 등이 있었음.
- 늘봄지원실장 직무 만족도와 관련하여 매우 만족은 9명(11.3%), 만족은 28명(35.0%), 보통은 36명(45.0%), 불만족은 4명(5.0%), 매우 불만족은 3명(3.7%)으로 나타남. 만족한다는 응답의 이유로 탄력적인 시간 운영, 자유로운 복무 사용, 오전 육아시간 활용, 유연근무로 어린 자녀 돌봄, 업무처리의 익숙함, 학교 관리자 실무사와 협조적인 관계, 담임교사 수업 생활지도에 대한 부담 없음, 관심 있는 분야에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 업무에 대한 자신감과 주변에서 전문가로 인정받음, 새로운 경험과 다른 분야로의 성장, 초기를 지나고 시스템 안정화에 따른 적정 업무량, 교육청에서 일을 잘 알려줌, 학교 늘봄업무에 도움이 된다는 생각, 행정 일이 적성과 맞는다는 의견이 제시됨. 반면 불만족의 이유로는 3개 겸임교 업무 과중, 자유로운 복무 활용의 어려움, 학교 구성원의 부정적 인식과 지원 부족, 여러 학교 관리자와의 보



고 협의 과정, 겸임교 근무 시 근무 공간 미비, 학교 구성원으로서의 애매한 위치, 과도한 민원, 근무지와 자택 간 원거리, 하교지도 부담 등으로 나타남.

- 늘봄 업무 경험 여부에 따른 지원 동기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성별, 교직경력과 지원 동기 사이에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음. 또한 지원 동기 유형과 만족도 사이에도 유의한 관계는 나타나지 않았음.

나. 늘봄지원실장 경험 분석

- 늘봄지원실장의 심도 있는 경험을 탐색하고자 <표 1>과 같이 질문지를 구성하였으며 근무 전 경험, 직무수행 경험, 경험이 갖는 의미, 정책 개선 사항에 초점을 두었음.

<표 1> 면담조사 질문지 구성

영역	내용
근무 전 경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늘봄지원실장 근무 계기 • 늘봄지원실장 근무를 앞두고 가졌던 마음, 각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늘봄지원실장 근무로 인한 긍정적인 점 • 늘봄지원실장 근무로 인한 부정적인 점
직무수행 경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업무 추진 시 중점을 두는 사항 • 늘봄학교 내실화를 위한 노력 사항 • 경험한 갈등과 해결 과정 • 앞으로 해보고 싶은 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스로에게 일어난 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늘봄지원실장 경험이 교직 생애에서 갖는 의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늘봄지원실장 임기 종료 후 기대하는 모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늘봄지원실장 근무 시 도움이 되었던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늘봄지원실장 제도 내실화 방안

- 늘봄지원실장 경험의 양상과 의미를 파악한 결과, 크게 4개 영역 18개 세부 내용이 도출되었으며 자세한 내용은 <표 2>와 같음.

<표 2> 늘봄지원실장 경험의 양상과 의미

영역	내용
출발선 앞에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보지 않는 길, 새로운 길을 찾아가는 여정 • ‘매너리즘, 무너진 학교, 교권침해’로부터의 피난 • 돌봄의 가치를 찾아 부모의 마음으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귀가대란, 혼돈과 아비규환 • 3교 3색의 애매모호함 • 정체성의 혼란, 이해하면서도 밀려오는 서운함과 소외감 • 아슬아슬한 긴장 • 실장의 희로애락
쉽게 꺼내지 못한 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생적인 학습공동체, 소통공동체를 만들다 • 아이들의 전인적 성장과 발달을 위한 적극적인 행정 • 교육 전문성을 살린 프로그램 질 향상 • 발 벗고 나서는 민원 해결사 • 공동체를 세우는 소통자, 갈등 조정자 • 의지가 되는 숨 쉴 수 있는 구멍, 현장을 살리는 교육청의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나를 돌아봄 • 교사를 향한, 주변을 향한 따스한 시선 • 학교와 교육을 바라보는 폭넓은 시야 • 그리움, 소중함, 새로운 다짐
어려움을 극복하며 만들어 가는 새로운 길	
바라보고, 바라보며	

4. 연구 제언

가. 정책 제언

- 선발, 임용, 임용 전 연수 등 근무 전 단계 지원
 - (선발 경쟁률 적정화) 선발 공고 횟수 축소, 늘봄 관련 업무 경험 유무에 따른 맞춤형 홍보 실행
 - (발령 전 실무 수습 기간 마련) 2월 활용 약 2주간의 업무 인수인계, 역량 강화, 실무 수습 기간 마련, 추후 재전직 시 2주를 학교 복귀를 위한 지원의 시간으로 배려



- (직종별 중요 사항을 학습할 수 있는 강좌 개설) 초등돌봄전담사 관련 법령, 지침, 복무, 노조 협약사항 관련 연수 과정 개설, 기타 타 직종에 관한 이해를 돋는 시간 마련

○ 늘봄지원실장 역량 강화 및 네트워크 활성화

- (연차별 멘토-멘티제 활용) 2년차 늘봄지원실장과 1년차 늘봄지원실장 간의 연결 고리 마련, 학교 간 거리·연령·경력·성과 등 고려, 멘토에게 컨설팅 수당 지급 또는 개별 늘봄학교 예산으로 지급 근거 마련
- (연차별로 특화된 실무 관리 역량 강화 연수 확대) 학생 관리, 민원 대응, 회계, 청렴, 운영 효율화 및 고도화 등 늘봄지원실장 연차별로 요청되는 특화된 연수 확대
- (다양한 교육·정책·행정 경험 확대 및 우수 성과자 인센티브) 교육행정 역량 강화를 위한 도서 제공, 연수, 타 교육청 늘봄학교·센터 탐방, 권역별 워크숍, 마음 챙김 연수, 우수 늘봄 지원실장 표창 및 해외 연수,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제도 활용 지원 등
- (현장 중심 참여형 연구·실천 기반의 정책 사업 추진) 늘봄지원실장을 책임연구원으로 하는 늘봄학교 관련 연구, 학습공동체 형식의 현장과 실천에 기반한 실행 연구 추진
- (재전직을 염두에 둔 교육 역량 강화 기회 마련) 학교 복귀 시 교육정책과 학교 현장을 위해 기여했다는 자부심을 갖도록 지원, 교육(지원)청·연수원 연수 프로그램에 늘봄지원실장도 자유롭게 참석할 수 있도록 연계, 우수 늘봄지원실장에 대한 재전직 전 1개월 가량의 자율 연수(일종의 연구월) 기회 부여
- (지구별 늘봄지원실장 협의회 정례화 및 협의회비 편성 지원) 협의회비 편성 근거 강화, 협의체 단위의 자율성과 생산적 책무성 보장

○ 늘봄지원실장 근무 여건 개선

- (복무 활용 실태 조사 및 권고안 마련) 육아시간, 유연근무, 장기재직휴가, 초과근무 활용 실태와 활용 상의 어려움과 관련한 현황 조사, 여건 개선을 위한 조치 마련
- (겸임교 늘봄지원실 근무 환경 개선) 교육청 예산 투입 또는 학교 예산 활용을 위한 교장 교감 자율장학 협의회, 교육(지원)청의 교장·교감 대상 정책설명회 연계 협조 노력으로 겸임교 늘봄지원실 물리적 근무 여건 개선

○ 기타 학교 현장 지원

- (늘봄겸용교실 제공 교사 지원) 늘봄겸용교실 청소 용역비 지원, 늘봄겸용교실로 자리를 비워주어야 하는 교사에 대한 근무지내 출장(학교 인근 도서관, 스터디카페, 공공시설 등) 지원 노력 등
- (학교 공동체성 강화를 위한 지원) 관계성 강화 프로그램, 교육공동체 강화 운영비, 효과적인 관계 구조 구축 사례 발굴 및 공유, 협력적 업무 운영 사례 내지 방향 공유

- (교육청의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 노력 경주) 지금처럼 현장과 부단히 소통하고 현장의 문제 해결을 지원하는 교육청의 노력 지속, 정책토론회 등 부단한 소통과 공론화로 인천늘봄학교의 전문성과 특수성 강화
- (늘봄학교의 적극행정 사례 발굴 및 공유의 장 마련)

나. 후속 연구 제언

- 본 연구에서 늘봄지원실장의 경험을 살펴봄에 있어 6개월内外의 기간에 해당하는 초기 경험을 살펴보았음. 이는 정책 연구 본연의 목적과 더불어 새로운 길을 고민하는 교사, 늘봄지원실장 전직을 준비하는 교사 등에게 유용한 관점을 제시해 줄 것임. 동시에 늘봄지원실장 임기가 2년임을 고려하였을 때, 향후 1년 이상, 혹은 임기를 마치는 시점에서 관련 경험을 분석해보는 후속 연구가 진행될 수 있음.



4



현장 연구

-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원 복지 증진 방안 연구
- 인천광역시교육지원청 초등 보결전담 순회강사 실태 분석 및 개선 방안 연구
- 초등학교 교육과정에 기반한 현장체험학습 유형화 및 코스 개발 연구





2025 인천교육정책연구 연차보고서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원 복지 증진 방안 연구

연구책임자 : 이재의

공동연구원 : 김상빈, 동소희, 박인영
안민영, 최유미

협력연구원 : 김요섭, 박선화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교원 복지는 교육의 질과 직결되는 중요한 정책 영역이며, 교육의 성패는 교원의 역량과 교육에 대한 열정에 크게 좌우됨. 이러한 역량과 열정은 심리적 안정, 직무 만족도, 균무환경, 업무 부담, 조직문화, 경제적 보상과 복지제도가 유기적으로 뒷받침될 때 유지됨.
- 잦은 행정업무와 수업 외 과중한 부담, 불충분한 휴식과 회복 기회, 증가하는 학부모 민원, 급변하는 교육 정책과 사회 환경 변화로 인한 새로운 요구가 복합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학교 운영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장기적으로 교육의 질과 지속 가능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음.
- 본 연구는 교원의 행복한 삶을 실현할 수 있도록 실질적이고 지속 가능한 복지정책을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이를 위해 교원 복지를 자기개발(전문성 지속 개발), 직무수행(안정적·효율적 직무 수행 환경), 삶의 질(신체적·정신적 건강과 균형 있는 생활)의 세 핵심 영역으로 구분하여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개선 방안을 도출함.

2. 연구 내용 및 방법

가. 연구 내용

- 본 연구는 인천광역시교육청 소속 교원의 복지정책 개선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수행됨.
- 교원 복지를 행복한 삶을 실현하기 위한 핵심 조건으로 재정의하고, 자기개발·직무수행·삶의 질의 세 영역을 중심으로 분석 틀을 정립함.



- 설문조사와 심층면담을 통해 교원 복지 각 영역별 정책에 대한 인식 수준과 요구 수준을 분석하고 주요 제약 요인을 도출함.
-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교원 복지 제도의 운영상 한계를 진단하고, 현장 중심의 정책 개선 방향을 제시함.

나. 연구 대상 및 범위

- 연구 대상은 인천광역시교육청 소속 유·초·중·고·특수학교 교원임.
- 공간적 범위는 인천광역시교육청 관할 지역이며, 시간적 범위는 2022년부터 2025년까지로 설정함.

다. 연구 방법

- 문헌 연구, 설문조사, 심층면담을 병행한 혼합연구 방법을 적용함.
 - 설문조사: 교원 2,084명 대상(분석도구: SPSS v31)
 - 심층면담: 교사 6명, 교원단체 대표 3명, 교육청 관계자 1명 등 총 10명 참여

3. 교원 복지 현황과 요구 분석

가. 설문조사 결과

- 설문에는 인천광역시교육청 소속 유·초·중·고·특수학교 교원 2,084명이 참여하였으며, 성별·연령·학교급·경력·담당 업무 등 다양한 배경을 반영한 표본임.

〈표 1〉 응답자 기본 특성 요약

구분	세부 항목	인원(명)	비율(%)
성별	남	514	24.7
	여	1570	75.3
연령대	20대	180	8.6
	30대	458	22.0
	40대	741	35.6
	50대	633	30.4
	60대 이상	72	3.5

구분	세부 항목	인원(명)	비율(%)
학교급	유치원	135	6.5
	초등학교	951	45.6
	중·고등학교	905	43.4
	특수학교(특수학급)	91	4.4
	기타	2	0.1
교직 경력	0~5년	321	15.4
	6~10년	264	12.7
	11~15년	276	13.2
	16~20년	318	15.3
	21~25년	384	18.4
	26~30년	287	13.8
	31~35년	175	8.4
	36년 이상	59	2.8
담당 업무	담임교사	996	47.8
	보직교사	631	30.3
	교과전담	197	9.5
	관리자	170	8.2
	비교과교사	65	3.1
	기타	25	1.2
근무지역	시교육청	337	16.2
	남부교육지원청	331	15.9
	북부교육지원청	408	19.6
	동부교육지원청	611	29.3
	서부교육지원청	343	16.5
	강화교육지원청	54	2.6
합계			2,084명
			100%

- 교원 복지 인식 조사 결과, ‘복지가 교육의 질 향상에 기여한다’는 문항은 4.75점으로 매우 높았으나, 체감 복지 수준(2.51점)과 정책 만족도(2.60점)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남

〈표 2〉 교원 복지 인식 수준

구분	평균	표준편차
체감 복지 수준	2.51	1.031
복지와 교육의 질 관계 인식	4.75	0.597
복지정책 만족도	2.60	1.002
복지 전반 인식 수준 (평균)	3.29	0.662



- 복지 요구 수준은 직무수행(평균 4.19점), 자기개발(평균 4.07점), 삶의 질(평균 4.03점) 순으로 나타났으며, 각 영역별 주요 요구는 다음과 같음.

〈표 3〉 자기개발 영역 교원 복지 요구 수준

순위	정책 과제	평균
1	교사 자율연수비 지원	4.67
2	교육 관련 온라인 플랫폼 사용료 지원	4.54
3	교육비(학원, 온라인 수강) 지원	4.45
4	학습연구년 선발 인원 확대	4.43
5	전문적학습공동체 및 연구회 지원	4.32

〈표 4〉 직무수행 영역 교원 복지 요구 수준

순위	정책 과제	평균
1	교권보호 원스톱 지원	4.81
2	휴직 제도 개선(유형·기간·절차 등)	4.47
3	교사 업무용 개인 사무용품 구입비 지원	4.44
4	교실 청소비 지원	4.33
5	교직원 협업, 회복 공간 운영	4.26

〈표 5〉 삶의 질 영역 교원 복지 요구 수준

순위	정책 과제	평균
1	학기 중 출장·휴가 사용 여건 개선	4.64
2	학년 연구실 간식비 지원	4.42
3	심리 진단 및 상담·치료 지원	4.38
4	인천 주요 문화·체육시설 교직원 할인	4.36
5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	4.09

〈표 6〉 교원 복지 우선 도입 과제 상위 15개

순위	정책명	선택률(%)	복지 영역
1	교권보호 원스톱 지원	63.0	직무수행
2	학기 중 출장·휴가 사용 여건 개선	58.9	삶의 질
3	교사 자율연수비 지원	57.3	자기개발
4	학년 연구실 간식비 지원	46.2	삶의 질
5	휴직 제도 개선(유형, 기간, 절차 등)	42.5	직무수행
6	교육 관련 온라인 플랫폼 사용료 지원	40.6	자기개발
7	학습연구년 선발 인원 확대	40.5	자기개발

순위	정책명	선택률(%)	복지 영역
8	교육비(학원, 온라인 수강) 지원	38.8	자기개발
9	문화·체육시설 교직원 할인	37.7	삶의 질
10	교실 청소비 지원	37.3	직무수행
11	학습연구년 학기제 신설	36.5	자기개발
12	심리 상담 및 치료 지원	36.1	삶의 질
13	수업 외 활동 및 행사·부활동 외부 위탁·연계	34.4	직무수행
14	교사 업무용 개인 사무용품 구입비 지원	33.3	직무수행
15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	30.3	삶의 질

나. 심층면담 결과

- 교사 집단은 복지 제도 운영의 실효성 부족, 행정 부담, 근무환경 비효율 등을 주요 문제로 지적함.
- 유치원 및 특수학교 교사는 대체 인력 부족을 가장 큰 제약 요인으로 언급함.
- 교원단체는 행정업무 경감, 교원 정원 확보, 교권 보호 강화를 공통적으로 제시함.
- 교육청 관계자는 구조적 한계를 언급하면서도 전문성 개발 및 삶의 질 개선의 필요성에 공감함.

다. 종합 분석 및 시사점

- 인천광역시교육청의 교원 복지 제도는 존재하나 복지 체감도가 낮은 상태임.
- 교원들은 복지를 혜택이 아닌 근무 안정성·회복 기반 환경으로 인식하고 있음.
- 생활 밀착형·소규모 복지 지원이 더 높은 실효성을 보였으며, 접근성과 참여 기반 설계가 필요함.
- 교권 보호·인력 운영 체계 구축은 복지정책의 기반 조건으로 나타남.

4. 교원 복지 증진 방안

가. 기본 방향

- 교원 복지 정책은 교원의 회복력과 전문성을 동시에 강화하는 지속 가능한 체계로 전환될 필요가 있음.



- 보편적 복지와 특성화 복지를 병행하여 기본적 지원과 교직 경력·학교급·직무별 맞춤형 지원을 동시에 확보해야 함.
- 교원 복지 정책은 현장 중심의 실효성을 기반으로 설계해야 하며, 자율연수비 사용 확대, 대체교사 확보, 생활밀착형 복지 지원 등 즉시 활용 가능한 방식이 요구됨.
- 교원의 심리·정서적 회복과 안전 보장을 위해 교권보호 원스톱 지원, 상담 접근성 강화, 행정 전담 인력 확충 등이 필요함.

나. 자기개발 영역 복지 증진 방안

- 자기개발 영역은 교원의 전문성과 교육의 질 제고와 직접 연계되는 핵심 영역임.
- 학습연구년의 참여 방식 다양화(1년형·학기제·단기형)를 통해 참여 기회를 넓힘.
- 자율연수비 및 교육비 지원을 현실화하고, 사용 가능 항목과 인정 기관 범위를 확대함.
- 디지털 플랫폼 구독 지원 체계를 구축하여 학습·창의·디지털 도구를 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함.

다. 직무수행 영역 복지 증진 방안

- 교원이 교육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업무 환경과 행정 지원 체계를 개선해야 함.
- 교권 보호 및 법률 지원을 강화하고, 교육활동보호관 제도를 상시 전담 기구로 운영함.
- 질병, 돌봄, 자기개발, 심리회복 등을 포함한 휴직 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절차 간소화 및 복귀자 지원 체계를 마련함.
-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AI 행정지원 시스템, 개인 사무용품 지원, 연구실·휴게공간 개선 등이 필요함.

라. 삶의 질 영역 복지 증진 방안

- 학기 중 출장·연가 사용 여건을 개선하고, 대체수업 체계와 행정 절차를 단순화하여 휴식권을 보장함.
- 생활밀착형 복지(간식비, 교원 문화·체육시설 할인, 교직원 수련원 개선 등)를 확대하여 복지 체감도를 높임.
- 교원 정신건강 전용 상담센터 설립, 회복 프로그램 운영, 심리 기반 휴직제 도입 등 정서적 회복 지원이 요구됨.

마. 특성화 복지 및 지원체계 구축 방안

- 교직 경력, 담당업무, 학교급 등 집단별 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복지가 필요함.
- 교원 복지 협의회 및 온라인 제안 플랫폼 구축을 통해 상향식 구조로 전환하고, 복지 예산을 별도 단위사업으로 분리·명시하여 제도화해야 함.
- 단기(생활밀착형 우선 실행), 중기(제도화·참여체계 구축), 장기(통합 복지 생태계 완성)의 단계적 추진 체계를 마련함.

5. 결론 및 제언

가. 결론

- 설문조사 결과, 교원들은 복지가 교육의 질 향상에 기여한다는 점에는 높게 공감하였으나 (4.75점), 체감 복지 수준(2.51점)과 만족도(2.60점)은 낮게 나타남. 특히 중기 경력 교원과 보직교사에서 체감도가 가장 낮게 나타나, 생애주기 및 역할 기반 복지 설계의 필요성이 확인됨.
- 심층면담 결과, 교권 침해, 행정업무 과중, 심리적 소진 등이 공통적으로 나타났으며, 복지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단순 제공 방식보다 접근성과 참여 기반 운영체계가 중요하다는 인식이 공유됨.
- 종합적으로, 교원 복지는 교원의 삶과 교육의 질을 동시에 결정하는 핵심 요인임. 복지의 실효성은 체감도·접근성·현장 참여 기반 운영에 좌우되며, 보편적 복지와 특성화 복지가 병행되는 구조가 필요함. 또한 복지정책은 교원의 의견이 반영되고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화되어야 함.

나. 제언

- 단기적으로는 자율연수비·교육비·청소비·간식비 등 생활밀착형 복지를 우선 제도화하고, 학교급별 예산 기준을 마련하여 정책 실행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야 함.
- 중기적으로는 복지 소통 구조와 온라인 행정체계를 구축하여 접근성과 참여를 강화하고, 대체 인력 및 행정지원 체계를 개선하여 복지 활용 가능성을 높여야 함.
- 장기적으로는 자기개발·직무수행·삶의 질이 선순환하는 통합 복지 생태계를 구축하고, 예산 구조화·평가 지표 개발·학교 자율예산제 연계 등 제도 기반을 확립해야 함.
- 정기적인 교원 복지 만족도 조사 및 비교 연구를 통해 정책 효과를 점검하고, 이를 근거로 ‘인천형 교원 복지 모델’을 발전·확산할 필요가 있음.



인천광역시교육청 초등 보결전담 순회강사 실태 및 개선 방안 연구

연구책임자 : 권혁미
공동연구원 : 김정아, 박지민
문민호, 김미정
협력연구원 : 양경희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단위학교에서 갑작스럽게 일어나는 교사의 수업 공백은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어렵게 할 뿐 아니라, 갈수록 어려워지는 학생들의 생활지도까지 영향을 줄 수 있다. 또한 예기치 않게 수업 결손을 발생시킨 교사 본인도 학생뿐 아니라 자신의 학급 또는 수업에 보결을 지원하는 동료 교사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갖게 된다. 예정되어 있는 보결은 보결처리를 할 시간적 여유가 있지만 갑자기 발생하여 긴박하게 보결처리를 해야 할 경우는 단위학교의 보결업무 담당자의 행정적 처리에 대한 업무 피로가 더욱 높아진다.
 - 그동안 수업 보결은 단위학교에서 담당해야 할 업무로 생각되어 시도교육청이나 교육지원청에서 계약제교원이나 강사를 채용하여 단위학교를 지원하는 사업이 진행된 지는 불과 몇 년에 지나지 않는다. 이러한 상황 때문에 국내 선행연구의 경우는 많이 찾아 볼 수 없다. 또한 국외 선행 연구의 경우는 “사업의 효과성” 연구에 그치고 있었다.
 - 시도별 운영 현황을 살펴보면 전라남도, 전라북도, 창원교육지원청, 고성교육지원청 등에서 운영되고 있으나 각 시도별로 운영대상, 운영방법이 조금씩 다를 뿐 아니라 보결전담 순회강사제에 대한 실태분석 또는 개선 방안에 대한 연구나 보도자료는 찾기 어려웠다.
 - 수도권에서 가장 먼저 시도된 보결전담 순회강사제는 벌써 3년째로 접어들고 있는 보결전담 순회강사제가 그 목적과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사업의 실태와 앞으로의 운영을 위한 개선 방안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 이에 본 연구는 보결전담 순회강사제의 운영실태를 파악하고 개선점을 도출하여 정책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데 연구의 목적으로 두었다. 또한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2가지 연구 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 문제

- ▶ 첫째, 보결전담 순회강사제의 운영실태는 어떠한가?
 - ▶ 둘째, 보결전담 순회강사제의 개선방안은 무엇인가?

2. 보결전담 순회강사제 현황

- 보결전담 순회강사제는 단순히 교사의 보결을 지원한다는 차원에서가 아니라 단위학교 공백없는 수업력 강화를 통해 단위학교 교육과정 운영의 정상화를 지원하며, 무엇보다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교원 근무여건 개선으로 교육력 강화와 교원의 삶의 질을 향상에 목적을 두고 있다. 인천광역시교육청에서는 초등교사·유치원교사·영양교사·특수교사를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그 현황은 다음과 같다.
 - 단위학교를 위한 보결전담 순회강사는 단위학교(유치원)에서 보결이 발생하면 신청방법에 따라 교육지원청 또는 중점학교(유치원)에 신청하고 배정 요건에 따라 보결전담 순회강사를 해당 학교에 배치하여 단위학교(유치원)의 보결수업을 지원한다.
 - 보결전담 순회강사제도의 세부 운영은 주관하는 기관이 어디냐에 따라 차이점을 보이고 있다. 초등 보결전담 순회강사제는 교육지원청의 초등교육과가 주관부서이고, 유치원교사·영양교사·특수교사 대상의 보결전담 순회강사제는 중점학교(중심유치원)를 지정하여 보결전담 순회강사제를 주관하게 하고 있다. 주관하는 기관이 다름에 따라 인천광역시교육청의 소관 부서는 교육지원청 또는 주관 기관에 기본계획과 예산을 배부하고, 각 교육지원청(주관기관)은 교육지원청(주관기관)별 특성에 맞는 세부 운영계획을 수립한다. 보결전담 순회(행정지원)강사의 임용권자가 교육지원청 주관부서장 또는 중점학교(중심유치원) 기관장이기 때문에 해당 기관에서 보결 전담 순회(행정지원)강사 채용하고 관리한다. 또한 순회강사의 복무도 주관부서에서 관리하며, 강사의 급여부터 단위학교 강사 배정까지 강사 운영의 제반 사항은 실제적으로 임용기관의 역할로 부여되어 있다. 이러한 행정적인 업무를 감소시키고자 초등의 경우, 각 교육지원청은 보결 전담 순회강사 외에 보결전담 행정지원강사를 채용하고 있다.



○ 초등과 유치원의 보결전담 순회강사는 단위학교(유치원)의 담임 및 전담 교사 공백에 따른 보결 수업 및 담임 업무를 지원하는 ‘순회’강사를 말한다. 보결전담 행정지원강사는 교육지원청에 근무하면서 보결전담 순회강사의 단위학교 배정, 단위학교로부터 수업 및 학급 기초자료 취합, 보결전담 순회강사 급여 품의 등 보결전담 순회강사제의 행정적 업무를 수행하여 단위 학교를 지원하고 있다.

3. 연구의 설계

가. 연구의 절차

○ 본 연구는 [그림 1] 과 같이 보결전담 순회강사제의 실태조사를 위해 교원 대상 설문조사와 보결전담 순회강사제 업무 관련자를 대상으로 심층면담을 실시하여 시사점을 도출하고 보결 전담 순회강사제에 대한 개선 방안을 모색하였다.

단계	연구내용
1. 현황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결전담 순회강사제의 현황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천 보결전담 순회강사제 현황 - 설문조사 문항 개발 및 실시(초등 교원 대상) - 심층면담 문항 개발 및 심층면담 실시
2. 실태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결전담 순회강사제 실태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설문조사: 초등 교원, 심층면담: 학교업무담당자, 순회강사, 행정지원강사
3. 개선방안도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결전담 순회강사제의 개선 방안 도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설문조사와 심층면담 결과에 따른 개선 방안 도출 • 전문가협의: 연구자문위원, 업무담당 장학사, 교육청 자문위원

[그림 1] 연구 절차

나. 연구 방법

1) 설문조사

○ 보결전담 순회강사제의 실태분석을 조사하기 위해 설문지를 개발하였으며, 인천 소재 초등학교의 교원 1,048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로 실시하였다.

2) 질문조사

○ 교원 대상 설문 중 정량적 데이터로만 결과를 도출하기 어려운 항목에 대해서는 추가로 교육지원청별 학교업무담당자, 보결전담 순회강사, 보결전담 행정 지원강사 1명씩을 심층면담하였다.

4. 보결전담 순회강사제의 실태분석

가. 보결전담 순회강사제의 인식과 효과

1) 교원의 인식 정도와 지원 경험, 업무담당자의 인식 정도

문항	응답 결과(높은 응답율순)
보결전담순회강사를 알고 있는지	알고 있다(93.6%) 모른다(6.4%)
지원받은 경험	없다(53.5%) 있다(46.5%)
지원 당시 담임 여부	담임(95.3%) 전담(4.7%)
지원받은 사유	연가(28.9%) 특별 휴가(28.7%) 출장(9%) 공가(2.3%)
지원받은 횟수	1회(53.8%), 2회(26.1%) 5회 이상(9.2%) 3회(7.8%) 4회(3.1%),
신청자	교감(65.6%) 담당자(19.7%), 지원받은 본인(13.1%), 기타(1.6%)

심층면담 결과, 학교담당자, 보결전담순회(행정지원)강사 모두 담당업무를 잘 인식하고 있음

2) 교육지원청별 운영상 특이사항

○ 교육지원청별로 다른 특이사항들은 시스템 운영에 있어서 다른 교육지원청과 신청기한이 달라서 행정지원강사가 수동으로 시스템을 관리해야 하는 교육지원청, 학교에서 보결전담 순회강사를 신청할 때 주로 권역별 신청하는 교육지원청에 비해 복수 교감학교인 경우 동일 날짜에 2명까지 보결전담 순회강사를 지원하는 교육지원청, 순회강사의 기본 근무지를 주로 자택으로 지정하고 있으나 교육지원청으로 지정한 교육지원청, 근무 상황 보고 여부, 교권 침해 교사 우선지원 여부, 강사 근무확인원 제출자가 교감이 아닌 교육지원청 등 교육지원청별로 다른 특이사항을 보였다.

3) 보결전담 순회강사제를 위한 변화 노력

○ 행정적 업무 간소화를 위해 성별좌조회 절차를 간소화했다. 시스템 구축에 있어서는 강사 배정의 투명성 확보와 신청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보결전담 순회강사 신청플랫폼을 구축하였을 뿐 아니라 제도 초기에는 교육지원청마다 각기 달랐던 지원 기간 및 사유를 통일하



였다. 또한 강사 채용 시 강사 확보의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채용 방법을 권역별 강사 채용으로 변경하였고 강사들의 애로사항을 들을 수 있도록 소통협의회를 실시하고 있다. 보결전담 순회강사를 순회학교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패용증을 제공하였으며, 순회학교의 내실있는 수업보결을 위해 학급과 수업에 대한 기초자료 양식을 만들어 배포하고, 같은 학급은 같은 강사가 최대한 배정될 수 있도록 신청 시스템을 관리하는 등의 노력해 오고 있다.

4) 보결전담 순회강사제의 효과

문항	응답 결과(높은 응답율순)
앞으로의 신청 여부	있다(96.5%) 없다(3.5%)
보결전담 순회강사 지원의 좋은 점	보결 교사에 대한 미안함 감소(38.5%), 생활(안전)지도 보장(24.1%), 시간강사 채용 부담 감소(21.3%), 같은 교사의 1일 보결로 학생 안정감 확보(10.4%), 보결담당자 업무 감소(5.3%), 기타(0.3%)
- 심층면담 결과, 교원들은 제도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으며,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 및 교육과정의 원활한 운영, 단위학교의 행정업무 감소, 교사의 근무 여건 개선에 효과적이라고 응답	
- 심층면담 결과, 보결전담 순회(행정지원)강사는 업무에 만족한다고 응답	

나. 보결전담 순회강사제에 대한 요구사항

1) 신청요건에 대한 요구사항

- 신청요건에 대한 요구 사항은 갑작스런 보결 발생시 지원, 지원 기간 및 횟수 확대, 학급 수 및 학교 규모에 따른 지원 요건 확대, 지원 사유 확대, 우선 신청 요건 추가였다.

2) 단위학교 보결지원시 요구사항

- 단위학교의 보결지원시 요구사항은 단위학교의 요구사항과 순회강사의 요구사항으로 결과를 도출하였다. 단위학교의 요구사항은 강사 질 관리, 행정처리(수업 관련 양식 등) 간소화, 보결 후 피드백 방법 마련, 신청시스템 학교별 담당자 지정이였으며, 순회강사의 요구사항은 내실 있는 수업 및 학급 기본 자료 준비, 공지된 시간표 조정하지 않기, 휴게 공간 확보, 기한 내 자료 제출이였다.

3) 신청시스템 및 신청 방법에 대한 요구사항

- 신청시스템에 대한 요구사항은 시스템 기능 고도화였으며, 신청 방법에 대한 요구사항은 선착순 신청 방법 및 신청시간 변경, 신청 시기 다양화, 권역별 신청 변경에 대한 내용이었다.

4) 보결전담 순회강사 관련 요구사항

- 보결전담 순회강사 관련 요구사항은 단위학교의 요구사항과 보결전담 순회강사의 요구

사항으로 구분하여 결과를 도출하였다. 단위학교의 요구사항은 책임감 있는 업무 수행, 충실한 학생 생활지도, 강사 확충, 강사의 질 확보였으며 보결전담 순회강사 요구사항은 연가병가의 누적 사용, 채용기간 확대, 역할 및 행정업무의 기준 마련, 전담 교과 지원 방안 마련, 여비 기준 완화, 운영비 예산 확보에 관한 내용이였다.

5.

보결전담 순회강사제의 개선 방안

가. 보결전담 순회강사제의 인식 변화

1) 단위학교의 인식 변화

- 단위학교에서는 업무에 대한 구성원 간의 원만한 합의를 통하여 보결전담 순회강사에 대한 업무 배정, 보결전담순회강사를 신청할 수 있는 학교분위기 조성이 필요하며 보결전담 순회강사제에 대한 목적과 취지에 대한 이해, 보결전담 순회강사에 대한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

2) 보결전담 순회강사의 인식 변화

- 안전한 학습권과 생활지도 보장, 교사 근무 여건 개선을 위한 제도의 취지 이해하고 제도의 취지가 보결전담 순회강사의 역할임을 인식하여 책임 있는 업무 수행을 할 수 있도록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다.

나. 보결전담 순회강사제의 제도적 변화

1) 신청요건 및 신청 방법에 대한 개선 방안

- 지원 요건에 대한 요구사항은 갑작스런 보결 발생시 지원, 신청 시간 변경 뿐 아니라 학교 장소 외 교육 활동에도 보결 지원, 특정 교과 지원이나 학교 업무로 인해 출장이 잦은 교사에 대한 지원 확대, 특별휴가 일수에 따른 지원 일수 확대, 학교급에 따른 지원 인원 확대, 교육청 사업으로 인한 출장이나 자격연수의 경우 우선 신청 요건으로 추가해 달라는 사항들이 주된 요구 사항이였다.

2) 강사 운영에 대한 개선 방안

- 강사 운영에 대한 개선 사항은 '보결전담 순회강사의 질 향상을 위한 개선 방안'과 '보결전담 순회강사 처우를 위한 개선방안'으로 제시하였다. 보결전담 순회강사의 질 향상을 위



해서는 강사 관련 만족도 조사 실시, 정기적인 강사 교육 및 메뉴얼 배부, 교육지원청과 보결전담 순회강사의 정례회 실시하여야 하며, 학교와 교육지원청 간의 소통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한다. 보결전담 순회강사 처우를 위한 개선방안으로는 연가병 가의 누적사용'과 '채용기간 확대, 출장비 보장', '학교 순회시 교육지원청 소속 강사임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과 휴게공간 마련, 퇴근시간 유연화'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3) 신청시스템 개선 방안

- 보결전담순회강사 신청시스템의 경우, 신청 경로 및 신청 내용 간소화, 교육지원청과 권역 선택 페이지 추가, 신청자료 집계 시스템 오류 수정 등 신청시스템에 대한 고도화 작업이 필요하다.

4) 행정업무 지원 및 간소화 개선 방안

- 행정업무 지원 및 간소화 개선방안은 강사확보, 학교업무간소화, 업무지원 체계 구축 및 행정적 지원으로 나누어 제시하였다. 강사확보 방안은 주당 2~3일 근무강사 채용, 계약 기간의 유연화, 강사채용을 위한 예산 확보 등이며, 학교업무 간소화 방안은 순회강사 근무 확인원 방법 변경, 수업 및 학급 기초자료 간소화, 보결전담 순회강사 신청 요약 메뉴얼 배부, 강사와 학교 간 소통 창구 마련 등이다. 업무지원 체계 구축 및 행정적 지원의 개선 방안은 업무지원 체계 구축시 소통이 가능한 창구 마련, 교육청 차원에서의 강사연수 매뉴얼 및 강사연수 실시 및 홍보에 대한 개선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6. 제언

- 첫째, 보결전담 순회강사제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다.
- 둘째, 보결전담 순회강사제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지속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보결전담 순회강사제를 운영하고 있는 유치원·영양·특수교사의 보결전담 순회강사제에 대한 개선방안도 함께 모색할 필요가 있다.

초등학교 교육과정에 기반한 현장체험학습 유형화 및 코스 개발 연구

연구책임자 : 서승현

공동연구원 : 남규현, 백성준, 조동현
최현선, 허은성

협력연구원 : 엄은숙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가. 연구의 필요성

- 현장체험학습은 학교 교육의 중요한 학습 방법 중 하나로, 학생들이 교실에서 배운 지식을 실제 생활의 맥락 속에서 탐구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돋는 교육활동임.
- 최근 학교 현장에서는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와 행정적 부담, 법적 책임 등의 요인으로 현장체험학습이 점차 축소되고 있으며, 현장에서 실행 단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음.
- 특히 2022 개정 교육과정이 강조하는 학생 주도성, 삶과 연계된 배움, 지역사회와의 협력적 학습환경의 실현을 위해서는 현장체험학습이 교육과정과 연계된 학습 과정이 필요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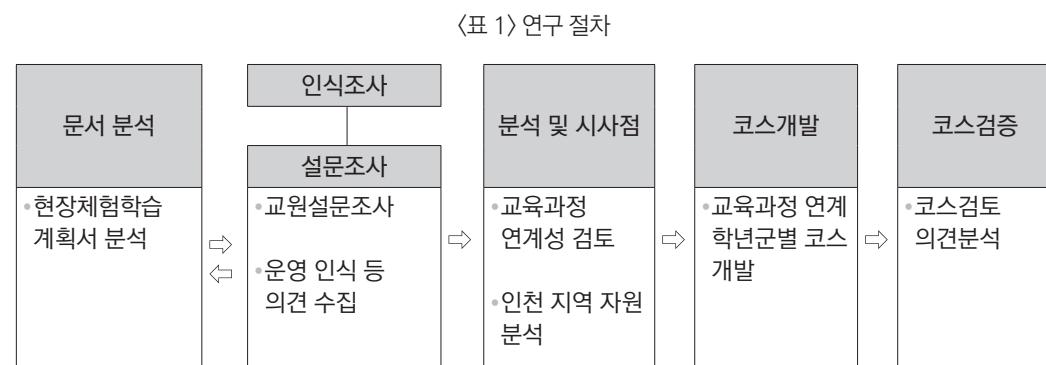
나. 연구 목적

- 본 연구는 인천 지역 초등학교 현장체험학습의 운영 실태를 분석하고, 교육과정과 연계된 학년군별 표준 코스를 개발하여 현장체험학습의 교육적 의미를 재정립하고자 함.
- 교사가 부담 없이 활용할 수 있는 교육과정 기반 체험학습 모델을 마련하고, 나아가 학생의 주도적 배움과 지역사회 연계가 실현되는 인천형 학습 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 본 연구는 현장체험학습을 학교 교육의 연장선상에 있는 '학습 과정'으로 회복함으로써,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창의적 사고력, 협력적 문제해결력, 생태적 감수성을 기르는 지속 가능한 교육과정 운영의 기반 마련하고자 함.

2. 연구 내용 및 방법

가. 연구의 절차

- 본 현장연구의 교육적 함의와 실천적 함의를 위하여 현재 운영되고 있는 현장체험학습의 실태를 분석하고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함.
- 이론적인 근거를 위해 선행연구 및 교육과정 분석, 인천시교육청에서 개발한 다양한 현장체험학습 자료들을 검토함.
- 학습자의 발달과 교육과정 내용을 연계하여 교육적 효과를 높이고 인천시교육청에서 개발한 코스를 활용하여 지역의 특색이 반영된 연구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 설계함.



나. 연구 방법

1) 문서 분석

○ 분석 체계 개발

- 인천광역시 초등학교의 현장체험학습 계획서 대상, 교육과정 연계성 및 운영 실태 분석

〈표 2〉 체험 수준과 학습 유형에 따른 분류 체계표

교육과정 장소범위	자연학습	문화학습	문제해결형 학습
1,2학년군생활권	마을 숲, 공원 등 생활권 녹지 장소	공공기관 등 장소	-
3,4학년군지역사회	해양 생태계 탐구 장소	박물관, 미술관 장소	지역문제 조사 장소
5,6학년군국가, 세계	국가 지형 특징 탐구 장소	다양한 역사자료수집 장소	세계적 관점 문제 관련 장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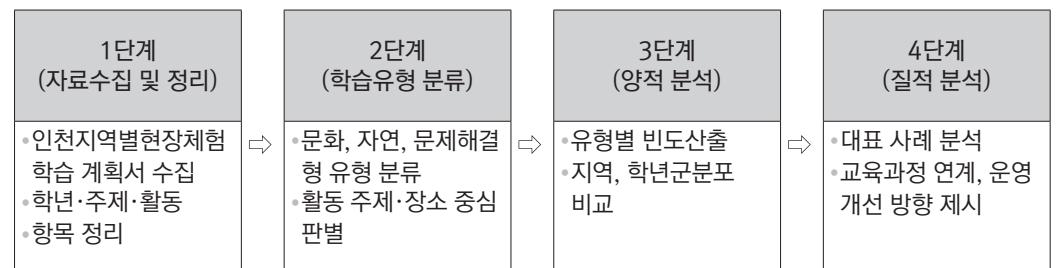
○ 분석 대상

- 본 연구의 분석 대상은 ‘인천광역시 초등학교의 현장체험학습 계획서’로, 2024학년도와 2025학년도에 각 학교에서 공식 승인된 문서 97건을 중심으로 선정하였다.

○ 분석 절차

- 본 연구의 문서 분석은 인천광역시 초등학교 9개 학교의 현장체험학습 계획서 97건을 중심으로 학습유형과 체험수준의 특성을 질적·양적으로 종합 분석하기 위해 〈표 요-6〉의 4단계 절차에 따라 수행하였다.

〈표 3〉 현장체험학습 종합분석 과정



○ 분석 결과

- 학습 주제별 유형을 분류 기준으로 총 97개 프로그램을 분석한 결과, 문화학습 52개(53.6%), 자연학습 8개(8.2%), 문제해결형 학습 3개(3.1%), 그리고 문화 - 자연 복합형 34개(35.1%)의 분포 보임.

〈표 4〉 학습 주제별 유형 분석

구분	건수(건)	비율(%)	주요 장소 유형	운영 특성
문화학습	52	53.6	역사관·박물관·과학관·공연장	외부기관 중심, 안전관리 용이
자연학습	8	8.2	숲·공원·농장·해변 등	기상 의존성 높음, 학교 인근
문화-자연 복합형	34	35.1	농촌 체험·식문화·생태 체험	복합적 성격, 문화 중심 체험
문제해결형 학습	3	3.1	마을·공공기관·지역사회	학생 주도, 장기 운영
합계	97	100.0	-	-

2) 설문조사 및 결과

- 본 설문은 인천광역시 관내 초등학교 교사를 대상으로 실시함. 설문 문항은 총 20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1,547명이 응답을 하였음.



〈표 5〉 설문조사 결과

구분	세부 항목	주요 결과	건수(건)	비율(%)
운영 실태	실시 여부	실시·예정	1004	64.9
		미실시	543	35.1
	실시 이유*	학기 초 계획	549	55.0
		민원 우려	224	22.4
준비 과정의 어려움*	미실시 이유*	사고시 교사 책임 부담	516	96.8
		학생 통제 어려움	145	27.2
	준비 과정의 어려움*	안전계획 수립	642	41.5
		장소 선정·프로그램계획	421	27.2
운영 인식	필요성 인식 (5점 척도)	1	737	47.7
		2	220	14.7
		3	266	17.2
		4	186	12.0
		5	138	8.9

3. 연구 결과

가. 초등학교 교육과정 현장체험코스 개발

1) 2022 개정교육과정 성취기준 추출 및 장소기반학습 유형화

현장체험학습 관련 성취기준 10개를 자연학습, 문화학습, 문제해결형 학습으로 유형화함.

2) 「인천바로알기」 제시 장소 검토 및 반영

인천시교육청에서 개발한 102개의 코스 장소 중 성취기준에 적합한 장소를 선정함.

3) 「인천을품고세계로」 책자 교육과정 연계, 코스 안내 형식 반영

「인천을품고세계로」 1~4권의 코스 안내 형식 및 답사활동, 사후 활동 형식을 반영함.

4) 교육과정 연계 현장체험학습 내용 설계

○ 도덕, 국어, 미술 등 유형별 주제 관련 교과별 성취 기준을 추가 확보하여 사전·사후 학습 활동 내용을 설계함.

5) 교육과정 기반 현장체험학습 코스 개발

〈표 6〉 교육과정 분석 현장체험학습 유형화 및 코스 개발

유형	학년군	교과	코스
자연학습	1,2	바, 슬, 즐, 국어	마을숲 코스
	3,4	과학, 미술	인천 해양 환경 탐방 코스
	5,6	사회, 국어	우리나라 국토여행 코스
문화학습	1,2	슬기로운 생활	마을 탐방 코스
	3,4	사회, 국어	우리 지역의 문화유산 코스
	5,6	사회, 국어, 미술	국가 유적과 유물을 탐방 코스
문제해결형 학습	3,4	사회, 국어, 도덕 과학, 미술	더 나은 우리마을 만들기 코스
	5,6	사회, 국어, 도덕	평화·통일 문제해결 코스

6) 현장체험학습 코스 검토 의견서 분석(질문조사) 결과

- 질문조사 시행 : 각 코스 인근 지역 교사 16명(11월)
- 결과 : 개발된 코스의 교육과정 연계성 검증 확보

4. 결론 및 제언

가. 결론

- 본 연구는 초등학교 현장체험학습을 교육과정 기반의 지속 가능한 학습으로 재정립하고,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부합하는 인천형 현장체험학습 코스를 개발하고자 수행되었음.
- 인천 지역 초등교사 1,547명을 대상으로 한 인식조사 결과, 다수의 교사(62%)가 현장체험학습의 가장 바람직한 방향으로 ‘교과와 연계된 체험활동’을 꼽아, 학교 현장의 질적 전환 요구 확인함.
- 연구 결과, 체험학습의 질적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교실의 사전 학습, 현장체험학습, 사후의 성찰 및 표현으로 이어지는 통합적 학습 구조가 학생의 주도적 참여와 성찰 역량을 강화할 수 있음을 제시함.



나. 제언

○ 초등학교 현장체험학습의 활성화를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적 대안을 제시한다.

- 첫째, 교육청 차원의 현장체험학습 통합 지원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 둘째, 학교 행정 부담 완화와 인솔자 책임 분담을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 셋째, 교육과정과 연계한 자율적 현장체험학습 실행 문화 조성이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교육과정과 연계한 현장체험학습의 제도적 정착이 필요하다.



5



협력 연구

- 시·도교육청 데이터 기반 교육정책 운영 현황 및 발전 방안





2025 인천교육정책연구 연차보고서

시·도교육청 데이터 기반 교육정책 운영 현황 및 발전 방안

연구책임자 : 조영희

공동연구원 : 김위정, 문영진
박희경, 신병건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정부는 데이터기반정책을 통하여 교육청·지자체·대학·타 부처 등과 수평적 파트너십을 형성하여 글로벌 교육 선도국의 리더십을 발휘하는 이른바 ‘교육부 대전환’을 시도하고 있음. 우리나라의 경우 AI 역량과 그에 관한 경쟁력의 위상이 높아지고 있으나, 데이터 활용과 투자 규모는 그에 못 미쳐 앞으로 데이터기반정책 실현에 대한 정진이 요구되는 실정임(이호준 외, 2022; 정순원, 2021). 이전까지의 공공데이터는 단순히 ‘많은 양의 데이터’ 개방과 제공이 목적이었으나 기술 발달에 따라 AI 학습데이터 및 성능 활용 등 고도화된 정보 수집과 활용 오류 감소를 지향하고 있으며 점차 ‘고품질·고가치의 데이터 제공’을 요구받고 있음(행정안전부, 2025. 4. 18.).
- 교육환경의 변화에 따라 데이터 기반 교육정책 추진이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데이터 활용의 증가로 인해 다양한 개인정보 수집으로 개인정보의 침해사고는 빈번해지고 있으며 특히, 교육기관 대상의 해킹, 개인정보취급자의 업무 과실이나 실수, 시스템 오류로 인한 프로그램 명령어 누락과 오설정도 늘고 있어 교육데이터 활용에 대한 개인정보 및 보안에 대한 방책도 고도화가 필요한 실정임(대전광역시교육청, 2025).
- 이러한 저해 및 위험 요소들에도 불구하고, 데이터 기반 교육정책은 빅데이터 수집과 가공, 통합과 분석, 확산 기술을 통해 질적으로 높은 유용한 정보를 생산하고 급변하는 사회와 불확실한 상황에서 교육정책 결정자가 교육정책 개발과 실행, 평가와 활용에 있어 최선의 정책을 결정하는데 도움을 줌(김유심, 2017; 노현종, 2018).
- 본 연구는 정부 차원의 데이터 기반 교육정책이 시·도교육청 차원에서 활용되는 현황을 살펴보고, 시·도교육청별 실행 현황에 따른 한계를 통해 발전 방안과 정책적 시사점을 제안하고자 함.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연구 문제를 설정함.



- 첫째, 시·도교육청 데이터 기반 교육정책 운영 현황은 어떠한가?
- 둘째, 시·도교육청 데이터 기반 교육정책 한계 및 발전 방안은 무엇인가

2. 연구 내용 및 방법

가. 연구 내용

- 이론적 배경
 - 데이터 기반 교육정책의 추진 배경과 개념
 - 데이터 기반 교육정책의 제도적 기반 및 정책 현황
 - 데이터 인프라 구축과 활용
- 시·도교육청별 데이터 기반 정책 운영 현황 및 발전 방안
 - 경기, 대전, 울산, 인천, 전남교육청 사례 분석
 - 시·도교육청별 한계 및 발전 방안 탐색

나. 연구 방법

- 문헌분석
 - 데이터 기반 교육정책 관련 선행연구 및 정책 문서 분석
 - 시·도교육청별 데이터 기반 교육 관련 정책 및 사업에 관한 정책 문서 분석
- 면담분석
 - 일부 시·도교육청 업무담당자 면담
 - 데이터 기반 교육정책 현황 및 한계, 발전 방안 탐색

3. 연구 결과

가. 이론적 배경

- 2020. 6. 9.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약칭: 「데이터기반행정법」)이 제정되면서 행정 분야에서의 객관적·과학적 데이터 활용이 본격화되었음. 선행연구에 기초하면, 데이터

기반 교육정책은 데이터의 주체는 정책결정자(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를 의미하며, 데이터의 사용 목적은 기존의 경험이나 직관적인 교육정책수립·의사결정을 탈피하고, 데이터에 근거를 두는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행정을 구현하기 위함이고, 데이터의 활용 범위는 정책의 수립(개발)-집행(실행)-평가의 전 과정을 포함한다는 특징을 가짐.

- 또한 선행연구에 따르면, 데이터 기반 교육정책 관련 구성 요인은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음.
 - 첫째, 조직적 차원에서 리더십이나 목표, 규정이나 지침 등 거버넌스 영역을 포함함. 그리고 이를 위한 방안으로 물적·인적기반 등의 인프라가 확보되어야 함을 알 수 있음. 둘째, 방법적 차원에서 데이터 기반 교육정책을 위한 수집·통합·분석·학산 또는 기획·집행·평가의 일련의 과정이 질적으로 향상되어야 함을 알 수 있음. 셋째, 활용적 측면에서 업무 담당자의 데이터 프로세스 경험이 전제되거나 정책활용도가 담보되어야 하며, 이때 데이터의 윤리, 개인정보 동의, 투명성, 보안 등이 중요시됨.
 - 데이터 기반 교육정책을 위해 필요한 여건으로는, 첫째, 중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데이터 기반 교육정책 계획을 수립해야 함. 둘째, 데이터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한다. 째, 구성원의 역량과 인식을 제고해야 함. 넷째, 데이터 기반 교육정책을 위한 인프라가 마련되어야 하며 그 중에서도 데이터 통합 관리 방안이 필요함. 다섯째, 교육 현장 지원 및 학술적 연구 활성화가 이루어져야 함.
 - 데이터 기반 교육정책의 법적 기반은 데이터 관련 법과 교육 관련 법으로 구분할 수 있음. 데이터 관련 법은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의 통칭),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약칭: 「공공데이터법」),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약칭: 「데이터기반행정법」)으로 구분됨. 「데이터 3법」은 2020년 1월 개정을 통해 시행된 데이터 활용 촉진과 개인정보 보호의 균형을 도모하는 핵심 법률임. 이 법률은 각각 공공 및 민간 부문에서의 정보 활용 기준을 정립함으로 데이터기반정책 운영의 법적 정당성을 제공하고 교육정책의 수립과 집행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전제로 한 합법적 데이터 활용의 길을 열어주는 법적 장치로 기능하고 있음. 교육 관련 법은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약칭: 「국가교육위원회법」)과 「교육기본법」을 통해 제도적으로 뒷받침되고 있음.
 - 「데이터 기반 교육 거버넌스」는 단순한 행정 운영 체계를 넘어서 데이터의 생성에서 폐기에 이르는 전 주기를 관리하고, 관련 이해관계자 간의 조율과 책임을 명확히 하는 전략적 프레임워크임. 데이터 기반 교육 거버넌스는 중앙집중형(Top-down)·협력분산형(Networked)·하이브리드형(Hybrid)으로 구분됨(OECD, 2023). 중앙집중형은 교육부 주도의 정책 방향 설정이 강한 구조이고, 협력분산형은 시·도교육청 간 분석협의체와 민간의 참여가 핵심



이 되는 형태임. 이 중 우리나라는 하이브리드형에 해당하는데, 하이브리드형은 중앙의 법·예산 표준에 지역 자율 실행을 접목한 형태로 교육데이터는 중앙정부(교육부) - 기술지원(KERIS·KEDI) - 시·도교육청 - 학교·교원 - 민간·시민사회의 5주체가 순환적으로 생산·활용함.

○ 「데이터기반행정법」의 시행에 따라 행정안전부, 교육부 등 관계부처는 합동으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있음. 2021년 ‘제1차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기본계획(2021년~2023년)’, 2024년 ‘제2차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기본계획(2024년~2026년)’이 발표되었음. 한편, 교육부는 1996년부터 정보통신기술을 토대로 하여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국가 교육 질적 향상을 도모하며, 전통적 교육환경을 정보통신기술을 기반으로 한 학습 공간과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25년 4월 제7차 교육정보화 기본계획(2024~2028)을 수립하여 실행하고 있음.

○ 데이터 인프라 구축 및 활용과 관련하여 최근 논의는 교육행정데이터통합관리시스템(교데통)과 학습데이터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음. 교데통(edmgr.kr)은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교육부 소속 산하기관에 산재한 각종 교육행정데이터를 하나로 통합하여 활용하기 위해 추진된 국가 교육데이터 플랫폼임. 내부적으로 나이스(NEIS)와 K-에듀파인 등 업무시스템을 통해 수집·관리되는 데이터와 외부적으로 수집·관리되는 각종 교육통계, 정보공시자료, 학업성취도 데이터 등을 연계하여 통합된 데이터 플랫폼으로 구축할 뿐 아니라 데이터 분석 및 시각화 서비스도 제공하여 교육정책 및 행정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함(교육부, 2025; 경기도교육청, 2025b).

○ ‘학습데이터’란 학생들의 학습 과정에서 생성되는 다양한 데이터로 디지털 학습플랫폼, 온라인 콘텐츠 이용, 평가 응답, 학습 행동 기록 등으로부터 수집됨. 학교 현장에서 발생하는 학습 관련 데이터를 한곳에 모아 저장·정제·표준화하고 AI와 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해 유의미한 정보를 도출하는 체계를 구축해야 함. 이에, 시·도교육청들은 자체 플랫폼을 개발하거나 연합하여 AI 맞춤형 교수학습 플랫폼을 공동으로 개발하고 있음.

○ 데이터 기반 교육정책의 가장 큰 이슈는 개인정보보호로, 교육정책과 관련된 정보는 대부분 개인정보(학생-학부모)가 포함된 민감한 데이터이므로 이러한 정책활용 민감성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법률적 침해(「저작권법」, 「개인정보 보호법」 등 해당)를 우려하고 있음(정순원, 2021). 이와 관련하여, 교육청 교육데이터시스템과 데이터 기반 교육정책 시뮬레이션, 시·도 교육청별 특수성 기반의 중앙 추진과제 및 단계 조정, 교육데이터 보안을 위한 데이터재난 대비 과정 조례 제정, 「개인정보 보호법」 강화 및 실행 보안 강화 마련 등의 다양한 해결 방안이 제안되고 있음.

나. 시·도교육청 데이터 기반 교육정책 운영 현황 및 발전 방안

○ 경기도교육청은 교육정책 수립 및 실행, 평가의 전 과정에서 과학적 증거에 기반한 의사결정을 강조하며, 이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고 있음. 대표적인 사례로는 교육데이터 시각화 서비스(구. 지역자원정보시스템)와 증거기반 정책 평가가 있음. 경기도교육청의 데이터 기반 교육정책의 한계 및 발전 방안은 크게 데이터 생성과 데이터 활용으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음. 먼저 데이터 생성과 관련하여, 연구원에서 생산하는 대규모 조사자료의 정책적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정책부서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문항 개발부터 결과 활용까지 연계성을 높이는 것과 부서행정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필요함. 다음으로, 데이터 활용과 관련해서는 N정책담당자의 활용 역량 제고 및 지원체계 구축이 필요함.

○ 대전광역시교육청은 2022년부터 매년 데이터 및 AI 관련 포럼이나 축제를 개최하여 교육에 활용되는 기술 발전에 따른 학교 내 적용 가능한 데이터 기반 교육정책 활용 생태계를 조성하고 있음. 또한 교육데이터의 확보와 활용 준비를 통해 교육 현안 이슈 대응을 확대하고 있으며, 2023년부터 대전교육종단연구도 시행 중임. 대전교육종단연구를 중심으로 외부 전문가 멤버파이 조사 및 담당자 면담을 통해 데이터 기반 교육정책의 한계에 따른 발전 방안을 살펴보았음. 발전 방안은 종단연구 수행 및 데이터 관리를 위한 독립된 부서 존치 필요, 안정적 데이터 수집 과정 모니터링 및 학술대회 관리, 대전교육종단연구 담당자-본청/지원청 간 유기적 협의와 활용 증대 모색, 개인정보보호 방안 강화 필요 등이 도출되었음.

○ 울산광역시교육청은 미래교육, 교육 차치 시대를 대비한 양질의 교육데이터를 확보하여 울산 교육정책 개발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2023년부터 교육정책연구소에 빅데이터 분석팀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고, 2024년에는 동향분석과 「울산교육종단연구 2024」를 시작하였음. 울산광역시교육청의 데이터 기반 교육정책의 한계에 따른 발전 방안은 크게 4가지로 도출되었음. 첫째, 빅데이터 분석팀의 교육행정직원의 역할을 보완하고 개발팀이 필요함. 둘째, 데이터 통합을 위한 시스템이 필요함. 셋째, 빅데이터의 특성인 시의성을 반영한 데이터 수집과 분석이 필요함. 넷째, 「울산교육종단연구 2024」의 참여율 제고와 정책 환류안 마련이 필요함.

○ 인천광역시교육청은 2019년부터 데이터 기반 교육정책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빅데이터 관련 연구를 지속적으로 수행해왔음. 또한 2023년부터 교육종단연구의 필요성에 공감하여 인천 교육종단연구 추진을 위한 다양한 연구 및 교육공동체 대상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 숙의 토론, 간담회 등을 실시함. 2025년 12월 1차년도 본조사 실시를 앞두고 체계적인 준비 과정을 거치는 중임. 인천교육종단연구는 1차년도 본조사 실시 예정으로 한계를 확인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선행연구에 기초하여 향후 발전 방안을 모색함. 발전 방안은 ‘단위 학교-인천교육종단연구-인천시교육청’ 간 피드백 루프(feedback loop) 강화, AI 및 머신러닝 기반 예측모



텔링이 가능한 데이터 구조 설계, 인천교육종단연구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데이터 생태계 정비로 구분하여 제시함.

- 전라남도교육청은 데이터 기반 정책 추진의 필요성에 따라 2023년 빅데이터분석팀을 신설하였고, 교데통 개통과 연계하여 교육데이터를 장기적으로 탑재하고, 이를 기반으로 수집·분석하는 체계를 마련하고 있음. 전라남도교육청 빅데이터분석팀 운영과 관련한 한계에 따른 발전 방안은 크게 4가지로 구분됨. 첫째, 전담부서의 능동적 역할 강화가 필요함. 둘째, 데이터 활용 의무화 제도화가 검토되어야 함. 셋째, 생성형 AI의 적극적 활용임. 넷째, 전담부서의 인력 확충 및 지속적인 역량 강화임.

4. 연구 제언

○ 시·도교육청 데이터 기반 교육정책 추진에 대한 제언은 다음과 같음. 첫째, 제도 및 운영 조직체계의 정비가 필요함. 반복적인 수요가 발생되는 주요 지표를 대시보드 형태로 상시 제공하고, 일정 규모 이상 사업추진 시에는 데이터 분석 결과를 필수적으로 포함하도록 제도화하여야 함. 또한 전국의 시·도교육청은 조직 측면에서 과 단위의 독립부서를 두어 전반적 인력 배치를 충족하여 전담 조직과 관련 부서 간 협업을 위한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함(교육부, 한국지방교육연구소, 2022).

○ 둘째, 데이터 수집 및 활용 단계에서의 보안 체계 강화가 필요함. 이를 위해 데이터 인프라고 도화와 보안체계 강화를 병행해야 하며 대규모 데이터의 안정적 수집과 분석을 위하여 클라우드 기반 분석환경과 분산처리시스템을 확충하고 개인정보 보호와 보안 관리 지침을 엄격히 적용해야 함.

○ 셋째, 데이터 생성 및 활용 지원을 위한 전문기관과의 협업체계 구축이 필요함. 시·도교육청 산하 연구원(소)의 종단연구나 실태조사에 따른 대규모의 자료는 정책적 활용 가치가 높아 정책부서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문항 개발부터 결과 활용까지의 연계성을 제고해야 함. 보다 큰 시너지를 위해서는 시·도교육청에서 구축된 공공데이터와 연구원에서 수집하는 조사자료를 연계하여 ‘교육데이터아카이브’를 구축하고 데이터 분석 지원에 ‘데이터분석플랫폼’을 활용하여 자동분석툴이나 시각화툴의 고도화도 필요함. 이를 위해 전문연구기관과 협업(위탁)을 통한 데이터 활용 컨설팅, 직접적 분석 등의 ‘프로젝트 기반 지원 구조 마련’이 필요함.

○ 넷째, 데이터 기반 교육정책 담당자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체계 마련임. 데이터 업무담당자를 중심으로는 통계 해석, 시각화, AI 기반 분석 등 실질적 역량을 체계적으로 함양할 수 있는 연

수프로그램의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모든 직원들에게는 단계적으로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 조직문화를 확산하면 각종 데이터에 연계된 정책 추진 실효성을 한층 높일 수 있음. 이를 위해 직원들에게 필요한 역량프레임워크를 도출하고 이를 기반으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함.

- 다섯째, 시·도교육청 수준의 데이터 기반 교육정책 추진을 위한 필요 요구를 교육부에 제안할 필요가 있음. 현재, 데이터 3법은 시·도교육청 수준의 데이터 수집·활용 제한, 과다한 조사 등 문제와도 연관성이 높으므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를 중심으로 시·도교육청 수준의 교육데이터 수집 및 활용을 뒷받침하는 법령과 지침의 재·개정 필요사항을 파악하여 교육부에 제안하는 것임. 더불어, 시·도교육청의 지역 특수성이 반영된 교육청별 고유 데이터 중 시·도 간 상호운용이 가능한 영역을 선별하고 교육청 간 연계·공유를 위한 관련 시스템 마련이 필요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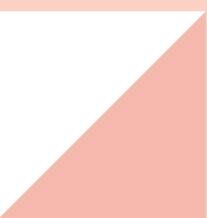


6



종단 연구

- 인천교육종단연구 1차 연도(2025) 역량검사 문항 개발 연구
- 인천교육종단연구 1차 연도(2025) 조사 개요 연구





2025 인천교육정책연구 연차보고서

인천교육종단연구 1차 연도(2025)

역량검사 문항 개발 연구

연구책임자 : 전경희

공동연구원 : 온정덕, 김자영
윤지영, 김난옥

연구보조원 : 김정환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최근 교육평가의 패러다임은 단순한 학업성취도 측정을 넘어, 학생의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성장과 발달의 과정을 정밀하게 점검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음. 이는 지식 자체의 습득을 넘어서, 미래 사회에서 요구되는 문제해결력, 창의성, 비판적 사고, 협력 및 의사소통 능력 등 복합적이고 융합적인 역량이 교육의 궁극적 성과로 자리 잡고 있음을 반영함. 따라서 학교 교육의 성과를 판단하는 주요 지표 또한 학업성취도 중심의 전통적 관점에서 핵심역량 중심의 새로운 관점으로 전환되고 있으며, 학생 발달을 다차원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평가 체제의 근본적 변화가 요구됨.
-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여 세계 각국은 역량 중심 교육의 성과를 측정하기 위해 새로운 평가 체제와 도구를 도입하거나 기존 교과·지식 중심 평가 체제를 역량 중심 평가 체제로 전환하고 있음. OECD 주관 PISA, 미국 학업성취도 평가(National Assessment of Educational Progress; NAEP) 등의 국제 사례들은 평가가 단순히 지식 보유 여부를 확인하는 수준을 넘어, 학생들이 실제 맥락에서 역량을 어떻게 적용하고 발휘하는지를 측정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시사함.
- 국내 교육 현장에서도 이러한 국제적 흐름에 따른 변화를 반영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전개되고 있음. 2015 개정 교육과정의 핵심역량 도입을 시작으로,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도 총론의 핵심역량과 각론의 교과역량을 구체화하여 역량 기반 교육을 강화함. 이러한 국가 교육과정의 변화는 지역 교육청 단위에서도 중요한 교육 목표로 반영되고 있으며, 학교 교육의 성과를 평가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고 있음.



○ 최근 시·도 교육청을 중심으로 학업성취뿐만 아니라 정의적 특성, 학업 동기, 학교생활 경험 등 을 함께 추적하는 종단연구가 확대되고 있음. 이와 같은 변화는 교과 지식 위주의 평가에서 벗어나, 학생의 역량 성장을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체계 구축이 필요함을 시사하며, 동시에 인천교육종단연구와 같은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종단연구의 필요성을 뒷받침함.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중장기적 종단연구 시스템 구축의 첫 단계로 역량검사 평가틀 및 역량검사 문항을 개발하고, 역량검사의 수직척도와 동등화 설계를 마련하고자 함.

○ 구체적으로 첫째, 역량검사 평가틀 개발을 개발함. 이는 종단연구에서 측정하고자 하는 학생 역량의 범주와 하위 요소를 체계적으로 정의하고, 이를 평가 가능한 구조로 전환하는 작업으로서 전체 연구의 기반을 마련하는 단계임. 둘째, 개발된 평가틀을 토대로 2025년 1차연도 역량검사 문항을 개발함. 문항 개발 과정에서는 학생 발달 단계에 적합한 문항을 구성하고, 내용 타당도와 문항의 기능을 검증하여 향후 종단적 측정에 활용 가능한 도구를 완성함. 셋째, 연차별 검사 결과를 장기간 추적·비교할 수 있도록 역량검사의 수직척도와 동등화 설계를 마련함. 이를 통해 학년 간, 시점 간 비교가 가능한 측정 체계를 확립하고, 학생역량의 성장 경로를 정밀하게 파악 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함.

2. 연구 내용 및 방법

가. 연구 내용

○ 첫째, 인천교육종단연구에 활용될 역량검사 평가틀 개발을 위해 국내외에서 수행된 역량 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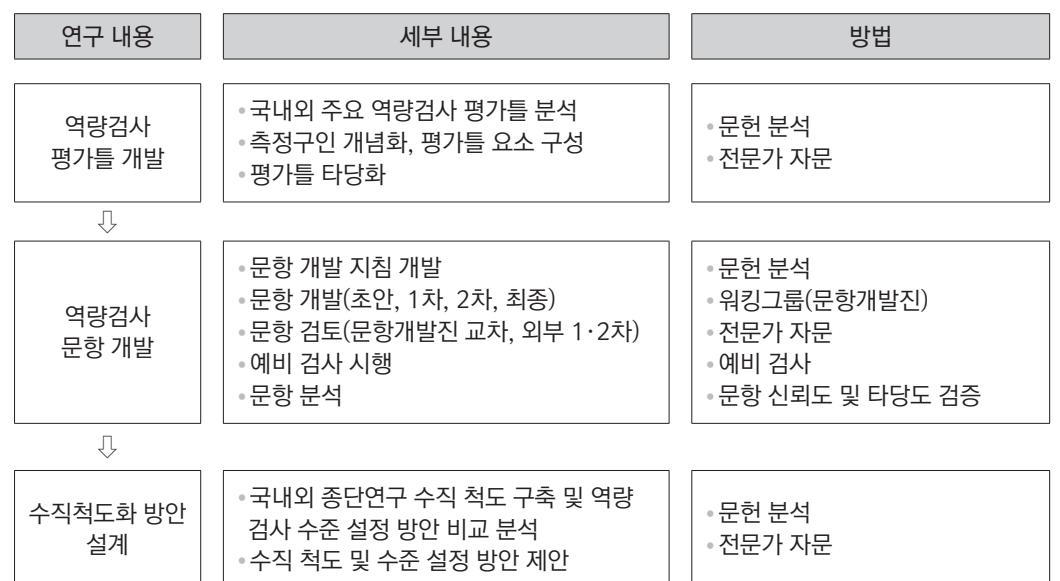
반 평가 및 종단연구 사례, 관련 선행연구를 분석함. 선행연구 분석을 통해 역량검사의 측정 구인인 창의적 문제해결력을 조작적으로 정의하고, 언어와 수리 영역의 평가틀 요소를 구조화함. 초등학교 4학년과 중학교 1학년을 평가 대상으로 설정하고, 언어 및 수리 영역 역량검사 개발 계획을 수립함.

○ 둘째, 국내외 역량 평가 사례 분석과 더불어 시·도 교육청 단위에서 수행된 교육종단연구 검 토 결과를 종합하여 역량검사 문항 개발의 전반적인 방향을 설정함. 역량 측정을 위한 문항 유형과 평가 방식(선택형, 서술형, 논술형 등)을 검토하고, 영역별 검사의 문항 수, 유형, 배치 방식을 설정함. 문항 개발 후 다단계 검토와 선제 과정을 거쳐 예비 검사 문항 구성을 완성하고 이후 예비 검사를 문항 특성 분석과 양호도 검증을 수행함. 예비 검사 후 문항의 난이도, 변별도, 신뢰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문항을 수정·보완하여 본검사에 활용할 문항을 확정함.

○ 셋째, 역량검사 수직척도화 및 동등화 설계를 위해 주요 종단연구에서 구축된 수직척도 사례 를 분석·비교하여 그 특징과 적용 가능성을 도출하고, 역량 기반 평가에서 활용된 수준 설정 (level setting) 방안을 탐색하여 인천교육종단연구에 적합한 방법과 시사점을 도출함.

나. 연구 방법

○ 연구 내용에 따라 적용된 연구 방법은 문헌 분석, 전문가 자문, 워킹그룹 운영, 예비 검사 실 시, 신뢰도 및 타당도 검증으로 다음과 같음.



○ 측정구인 개념화와 역량검사 평가틀 개발을 위한 문헌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개발한 평가틀 의 내용 타당성 및 현장 적합성 검증을 위해 국어교육, 수학교육, 교육과정, 심리측정 분야 전 문가를 대상으로 평가틀 내용 검토를 실시함.

○ 역량검사 문항 개발을 위한 출제진을 구성한 후 문항개발 워크숍을 실시함. 문항 출제진을 대상으로 문항 개발 관련 중간협의회와 교차 검토를 통해 문항 초안을 수정한 1차 문항을 개발하였고, 외부 전문가 검토를 실시함. 외부 전문가 검토 의견을 반영하여 문항 수정 후 외부 전문가 2차 검토를 실시함. 2차 검토 의견을 반영하여 예비 검사 시행을 위한 최종 문항을 개발함.

○ 예비 검사를 위해 개발된 문항은 언어, 수리 영역별 36문항(서답형 포함)이며, 본 검사의 실 시 학년과 동일한 초등학교 4학년과 중학교 1학년을 표집하여 2025년 9월 15일부터 9월 26 일까지 2주에 걸쳐 예비 검사를 시행함. 예비 검사 시행 자료 결과로 검사의 신뢰도, 타당도를 분석하였고 본검사 문항(영역별 20문항)을 확정함.



- 선행연구 및 국내외 종단연구의 수직척도 구축 사례, 역량 검사 수준 설정 사례 분석을 통해 수직척도 및 수준설정 방안을 비교 분석하고 검토하였음. 인천교육종단연구 역량검사에 적합한 수직 척도 설계와 수준 설정 방법을 제안하고 방법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함.

3. 연구 결과

가. 역량검사 평가틀 개발

○ 읽쓰 교육에서 ‘현상, 문제, 과업, 실천’이라는 네 가지 학습 맥락은 모두 학습자를 중심에 두고 삶의 맥락 안에서 학습자가 자신의 지식을 구성하고, 이를 적용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조직 제공되어야 할 학습 경험의 틀을 보여줌. 읽쓰 활동이 학습자에게 진정한 학습(authentic learning)이 되었다면, 학습자는 일상에서 접하는 현상을 관찰하고, 관찰을 통해 발견한 문제를 질문으로 구성하며, 질문에 답을 찾기 위해 탐구를 수행하고, 자신이 찾은 답을 삶에 적용하게 됨. 이와 같은 역량은 학습자가 마주하게 될 현실의 다양한 문제 해결 과정에서 발휘될 수 있음.

○ 문제 해결 과정은 교과를 통해 학습한 지식과 확산적 사고와 수렴적 사고를 바탕으로 새롭고 유용한 문제 해결책을 찾아가는 창의적 문제 해결 과정을 포함하며, 확산적·수렴적 사고를 효과적으로 사용하여 가능한 해결 방법을 찾아가는 사고 과정은 새롭고 기발하면서도 적용 가능한 창의적 산출로 이어지게 됨. 이와 같은 과정을 강조한 창의적 문제 해결의 대표 과정은 창의적 문제 해결 프레임워크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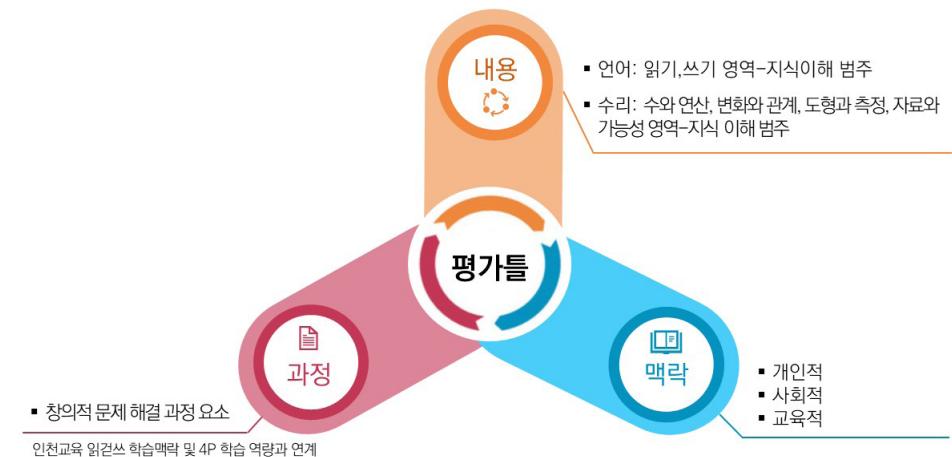
○ 창의적 문제 해결에 관한 선행연구와 읽쓰 학습 역량 및 문제 해결 간 관계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 측정하고자 하는 창의적 문제해결력을 ‘학습자가 삶의 맥락에서 현상을 관찰하여 문제를 구조화하고, 탐구를 통해 새로운 해결책을 구안, 실행하며, 문제 해결 과정을 성찰하고 전이할 수 있는 능력’으로 정의함. 읽쓰 학습 역량과 창의적 문제 해결 과정은 다음과 같이 연계됨.

〈표 1〉 읽쓰 학습 역량과 창의적 문제 해결 과정 연결

역량	창의적 문제 해결 과정		
	요소	단계	내용
관찰	문제 이해	기회 구성	학생 자신의 일상, 학교 상황 등 맥락 속에서 불편함 혹은 불만족을 느끼는 것, 도전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확인
		자료 탐색	현재 상황에 대해 내가 알고 있는 것, 알아야 하거나 알고 싶은 것 확인
		문제 구조화	문제를 여러 가지 방식으로 진술해 보고 질문을 만드는 것

역량	창의적 문제 해결 과정		
	요소	단계	내용
탐구	아이디어 생성, 실행	아이디어 생성	문제 해결 가능성이 있는 방법을 목록화
		해결책 개발	기준을 바탕으로 아이디어를 분석하고 정교화
행동	수용 토대 구축	수용 토대 구축	구체적인 실행 계획 수립, 예상되는 어려움과 대비 계획, 필요한 자원 파악
		해결책 실행	수립한 계획 실행
행동	접근 방식 계획	성찰	창의적 문제 해결 과정의 점검
		전이	새로운 상황으로 적용

- 역량의 개념과 특성을 고려하여 본 연구의 평가틀을 ‘내용, 과정, 맥락’의 세 차원으로 구성함 (그림 1)).



[그림 1] 역량검사 평가틀 구성

- 첫 번째 차원인 내용은 2022 개정 국어과·수학과 교육과정 내용 체계의 ‘지식·이해’ 범주에 해당하는 것으로, 실세계 맥락에서 마주하게 되는 문제 상황에서 학생이 적용할 국어·수학 지식을 의미함. 두 번째 차원인 과정은 창의적 문제 해결 과정으로 실세계 맥락의 문제를 해결하는 사고를 드러내는 과정임. 창의적 문제 해결 과정은 〈표 1〉에 제시한 바와 같이 세 요소(문제 이해-아이디어 생성 및 실행-접근 방식 계획)와 요소별 단계로 구성됨. 세 번째 차원인 맥락은 실세계 맥락에서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학생이 지닌 지식과 기능을 종합적으로 발휘하게 만드는 교육적, 개인적, 사회적 맥락으로 구성됨.



나. 역량 검사 개발

- 인천학생 역량검사는 ‘창의적 문제해결력의 조작적 정의 및 평가틀 기반, 측정학적 타당성과 종단적 안정성 확보, 국가 교육과정과의 정합성 및 인천 교육정책과 연계,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시나리오 기반 역량 평가 체제 구축’에 기본 방향을 두고 개발됨.
- 개발된 최종 역량검사는 초등학교 4학년과 중학교 1학년 언어 영역과 수학 영역의 2개 영역의 총 4종임. 평가유형은 시나리오 기반 평가로, 검사 영역별 20문항(1개 시나리오당 5문항)이며, 검사 시간은 한 차시 정규 수업 시간(초등학교 40분, 중학교 45분)임. 검사 방식은 컴퓨터 기반 평가로 실시되므로 각 시나리오는 영상 및 텍스트를 통해 제시하며, 선택형, 서답형에서 다양한 문항 유형을 고려하되 서답형은 전체 문항의 20~25% 내외로 개발함.
- 예비 검사를 위해 개발한 문항은 학교급별 언어 영역 6개 시나리오 총 36문항, 수리 영역 6개 시나리오 총 36문항임. 예비 검사는 초등학교 5개교, 26학급, 총 624명, 중학교 4개교, 22학급, 총 672명을 대상으로 컴퓨터기반검사로 시행됨. 예비 검사 시행 자료에 대한 분석을 통해 검사 신뢰도, 문항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증하였으며, 본 검사 시행을 위한 최종 문항은 학교급별로 각각 언어 영역 4개 시나리오 총 20문항, 수리 영역 4개 시나리오 총 20문항을 확정함.

〈표 2〉 본검사 문항구성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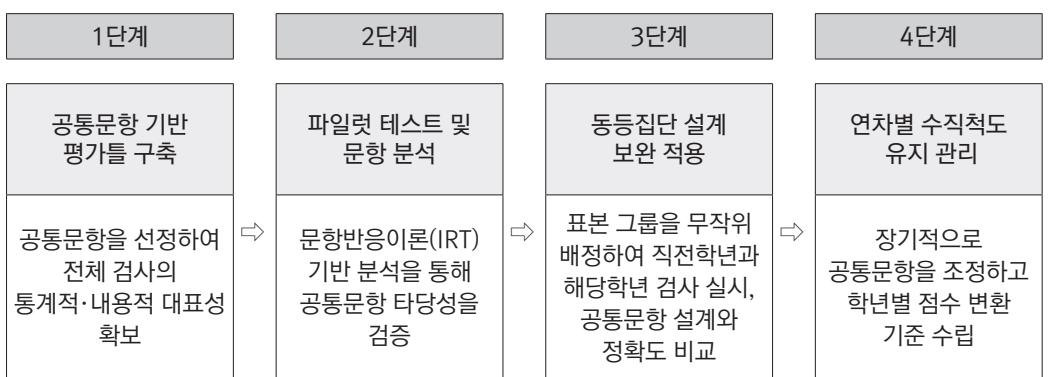
검사 대상	검사영역	검사문항	검사시간
초등학교(초4)	언어	20문항(4개 시나리오, 시나리오별 5문항/서답형 포함)	40분
	수리	20문항(4개 시나리오, 시나리오별 5문항/서답형 포함)	40분
중학교(중1)	수리	20문항(4개 시나리오, 시나리오별 5문항/서답형 포함)	45분
	수리	20문항(4개 시나리오, 시나리오별 5문항/서답형 포함)	45분

다. 수직척도화 방안 설계

- 인천교육종단연구에서 초등학교 4학년과 중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역량검사를 시행할 예정 이므로, 학년 간 비교가 가능하고 장기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척도 설계가 필요함. 인천교육종단연구의 수직척도화를 자료수집 설계를 위해 본 연구와 유사한 검사개발 맥락과 규모로 개발된 경기교육종단연구(GEPS) 및 대구교육종단연구(DELS)를 비롯한 국내외 다수의 종단연구에 적용된 자료수집 설계와 척도화 방법을 종합적으로 검토함.
- 수직척도화를 위한 국내외 다수의 종단연구 자료수집 설계와 척도화 방법을 검토한 결과, 종단연구에서의 검사개발 및 시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복합적인 요인들을 고려하여 하나의 설계를 적용하기보다는 앞서 논의한 설계 방법들을 혼합하여 적용하는 방식을 제안함.

○ 인천교육종단연구의 수직척도화에서는 공통문항 비동등집단 설계를 기본으로 하되, 공통문항 구축이 어려운 경우 동등집단 설계를 병행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이러한 혼합 설계 방식 적용을 통해 공통문항이 포함된 평가를 최대한 활용함으로써 검사 개발 예산을 절감할 수 있으며, 동시에 학년 간 비교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음.

○ 인천교육종단연구의 수직척도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중요한 사항으로는 학년 간 공통문항 개발의 타당성 및 용이성, 확보 가능한 종단 패널의 표본크기, 모수추정 및 연계 방법 등이 포함되며, 연구실행 가능성은 높이기 위해 다음의 수직척도화 설계 및 기반 구축을 단계를 제안함.



[그림 2] 인천교육종단연구 수직척도화 설계를 위한 단계별 연구 수행 방안

4. 연구 제언

가. 정책 제언

○ 인천교육종단연구의 검사 내용은 학교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교수학습과 평가의 방향 및 내용을 설정하는 데 시사점을 제공함. 단편적인 지식이나 분절적인 기능을 측정하기보다 학생들의 문제해결력을 평가하고 그 과정에서 학생들이 창의적 사고를 발휘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기에 검사도구 개발로 그치지 않고 학교의 교육과정, 수업 평가의 내실화를 위한 연수에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 인천의 읽걷쓰 정책이 단지 읽고 걷고 쓰는 활동이 되지 않도록 읽걷쓰의 이론적 배경을 현장과 소통하고 교육과정으로 구체화하는 노력이 필요함. 인천교육종단연구는 읽걷쓰를 검사로 구현한 것으로 학교의 교육과정 및 수업 실천이 뒷받침될 때 타당도를 높일 수 있음.



나. 후속 연구 제언

- 인천교육종단연구의 장기적 안정성과 측정의 정밀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시나리오 기반 문항과 서·논술형과 문항이 포함된 역량검사에 적합한 수직척도화 방법을 탐색하는 후속 연구가 필수적임. 특히 선다형 문항을 중심으로 한 인접 학년 간 공통문항을 활용하는 기준 수직척도 방식이 서·논술형과 같은 구성반응형 문항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할 수 있으므로, 시나리오·서논술형 문항 특성을 반영한 새로운 동등화 설계와 수직척도 구축 방안을 모색하는 체계적 연구가 필요함
- 인천의 읽걷쓰 정책을 인천 교육을 통해서 학생들에게 길러주는 역량으로 설정하고 이를 학교 교육에 반영하는 것으로 본다면, 국가수준 교육과정 총론 및 교과교육과정과의 정합성을 확보하는 연구가 함께 이루어져야 함. 현재는 다소 선언적인 방식으로 제시되어 있기 때문에 역량으로 설정한다면 하위 요소 도출, 교과 교육과정과의 연계 방안 등 후속 연구가 필요함.

인천교육종단연구 1차 연도(2025) 조사 개요 연구

연구책임자 : 한지수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교육종단연구는 동일한 학생 집단을 장기간 추적하여 학생의 발달 과정을 분석하고 이를 교육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연구이다. 국가 단위의 한국교육종단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현재 16개 시도교육청에서 각 지역의 교육 비전과 현안을 반영한 지역 수준의 교육종단연구를 추진해 오고 있음.
- 여러 지역에서 공감한 교육종단연구의 필요성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됨.
- 첫째, 복잡한 교육 현장을 분석하고 연구하는 데 있어서 학생, 교사, 학교, 가정, 정책 수준 등 다양한 요인을 통제하여 특정 영향 관계만 살펴보는 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임. 따라서 일정 기간 학생의 변화 과정을 추적하여 비교·분석하는 것이 학교 교육 현장을 이해하는 데 가장 효과적인 방안임(김양분 외, 2012).
- 둘째, 학생이 학교에서 다양한 교육활동과 학습을 경험하며 다음 학년으로 진급함에 따라 이루어지는 교육 수행 과정을 장기적으로 추적할 수 있음. 이를 통해 각 시기의 교육 현안에 대한 학생 발달 자료를 축적하고 심층적인 분석을 할 수 있음.
- 셋째, 종단데이터를 활용하여 교육정책을 수립하거나 개선하는 과정에서 실제적인 근거에 기반하여 객관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음. 종단연구를 통해 수집된 기초자료 데이터는 정책 수립 시 방향을 설정하는 데 활용되거나, 정책을 통한 효과 예측의 기반이 될 수 있음(박경호, 송승원, 2020).
- 인천교육종단연구는 이러한 지역 수준의 교육종단연구 중요성에 공감하며 인천 교육을 통한 인천 학생의 성장 및 발달 과정을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교육정책 수립 및 개선의 과학적 근거 자료를 마련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작되었음.
- 본 연구는 성공적인 인천교육종단연구 1차 연도 조사를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 목적을 설정하였음.



첫째, 인천교육종단연구 조사 설계를 검토한다.

둘째, 인천교육종단연구 조사 도구 개발 방향과 세부 내용을 제안한다.

셋째, 인천교육종단연구 1차 연도 조사 실시 세부 전략을 마련한다.

2. 연구 내용 및 방법

가. 연구 내용

○ 본 연구는 세 가지 주요 연구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음.

○ 첫째, 연구 체계 및 조사 모형을 점검하고 보완하였음. 인천교육종단연구는 2025년 1차 연도 조사를 시작으로 약 10년간 장기간 이어 나가는 대규모 조사로서 중·장기적으로 많은 예산과 인력을 요구함. 이에 선행연구를 통해 결정된 연구 체계 및 조사 모형과 표집 설계를 점검하고 체계성과 조사 실행 측면을 고려하여 보완하였음. 특히 표집의 경우 인천 지역과 학교 유형의 특성을 반영하여 설계된 표집에 2025년 학교 현황 데이터를 적용하여 예상 표본이 모집 단의 구성과 크게 달라지지 않는지 점검하며 추출하였음.

○ 둘째, 연구 체계 및 조사 모형에 기초하여 조사 도구 개발 방향과 세부 내용을 제안하였음. 인천교육종단연구는 설문조사, 역량검사, FGI(Focus Group Interview)를 조사 방법으로 활용하였음. 설문조사 문항은 선행연구에서 총 7종(초등학생용, 중학생용, 인문계 고등학생용, 직업계 고등학생용, 교사용, 학교장용, 보호자용)의 문항 개발 및 예비조사를 거쳤음(김현경 외, 2024). 다만 학교 현장이나 인천 교육정책 전문가의 문항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문항 보완을 진행하였음. 또한 역량검사를 통해 초등학교 4학년과 중학교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학생의 성장과 발달의 종단적 변화를 추적하고자 하였음. 마지막으로 인천교육종단연구는 전국 최초로 동일한 조사 참여자를 대상으로 매년 FGI를 실시함. 본 연구에서는 해당 질적 조사의 목적, 조사 대상, 조사 내용, 진행 방식 등의 설계를 진행하였음.

○ 셋째, 인천교육종단연구 1차 연도 조사 실시를 위한 시행 체계 및 조사 실시 세부 전략을 마련하였음. 조사 시행 체계에 대해서는 국가 수준의 교육종단연구와 타 지역 수준의 교육종단연구 시행 체계를 참고하여 조사 시행 개요 및 방향성, 추진 절차를 종합적으로 제시하였음. 조사 실시 세부 전략은 데이터 품질 확보, 개인정보 보호, 예비조사 결과 반영, 패널 관리 등 인천교육종단연구 조사 시행 체계에 적합한 실질적인 전략을 고안하였음.

나. 연구 방법

○ 본 연구에서는 문헌 분석, 전문가 자문, 역량검사 개발, 1차 연도 인천교육종단연구 조사가 이루어졌음.

○ 문헌 분석은 기존 국가 또는 지역 수준의 교육종단연구 조사 설계 및 조사 실시 방안을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하였음. 특히 한국교육개발원의 한국교육종단연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청소년·아동 패널조사, 서울특별시연구정보원의 서울교육종단연구, 경기도교육연구원의 경기교육종단연구, 울산광역시교육연구원의 울산교육종단연구 등 각종 연구의 조사 대상, 조사 규모, 조사 시기가 유사한 종단연구의 조사 개요, 조사 도구 개발, 조사 문항, 조사 실시 전략과 관련한 내용을 수집 및 분석하여 검토하였음.

○ 전문가 자문은 이미 개발된 설문조사 문항 현장 검토를 위해 실시하였음. 설문조사자 검토는 교육정책 영역 설계를 목적으로 교육전문직 5명을, 문항의 명확성을 확보하기 위해 학교급별 현장 교사 4명을 대상으로 진행하였음. 해당 과정은 모두 서면으로 진행하였음.

○ 역량검사 평가틀, 역량검사 1차 연도 문항 개발 및 수직척도화 설계를 외부 전문가에게 연구 용역을 의뢰하였음. 인천교육종단연구 1차 연도 역량검사 문항 개발 연구는 초등학교 4학년과 중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역량검사를 개발하고 주요 학령기에 대한 역량 중심의 평가 체제를 구축하고자 하는 연구 목적을 가짐.

○ 조사 실시는 2025학년 12월에 설문조사, 역량검사, FGI를 인천교육종단연구 1차 연도 협력 학교에서 실시하여 데이터를 수집하였음. 협력학교 내 운영교사와 담임교사를 위촉하여 협력학교 설명회를 사전에 진행하였음. 또한 조사 전문 업체에서 학교 현장과 긴밀하게 소통하며 각 조사를 기간 내에 시행하고자 하였음.

3. 연구 결과

가. 인천교육종단연구 조사 설계

○ 본 연구는 학생들이 교육정책 및 교육 경험을 통해 성장하는 과정을 다각적으로 파악하고 분석할 수 있도록 국가 수준 및 지역 수준 교육종단연구에서 적용되고 있는 투입-과정-산출의 학교교육 효과모형을 이론적 기초로 하여 연구 모형 및 조사 항목을 보완하였음(김양분 외, 2003; 김위정 외, 2021; 김현경 외, 2024). 연구 모형을 지역 수준, 학교 수준, 학생 수준으로 구분하여 구성하였으며, 이는 학생 개인의 특성뿐 아니라 인천의 주요 교육정책과 개별학교 노력이 학생의 성장과 발달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객관적으로 분석하기 위함이었음.



- 투입요인은 학생의 개별적인 인구통계학적 특성과 일반적 교육환경으로 구성되며, 학생의 성별, 가정배경, 이전 교육 경험과 학교의 규모, 설립 유형, 시설, 교사 수 등이 포함됨. 과정요인은 학교 내외에서 이루어지는 교육과 관련 구체적 경험을 의미하며, 교사의 교수학습 활동, 학교 풍토, 학교 수업, 교육 활동, 부모의 교육적 지원, 사교육, 학교장 리더십 등으로 설정하였음. 산출 요인은 앞선 투입과 과정 요인의 결과로 나타나는 학생의 성장 및 발달을 의미하며, 학생의 주요 역량, 사회정서 발달, 진로성숙도를 포함하였음. 학생의 주요 역량은 인천학생역량으로 선행 연구를 토대로 자기관리 역량, 창의적 문제해결 역량, 심미적 공감 역량, 디지털 역량으로 설정하였음(김현경 외, 2024; 조현영 외, 2024).
- 표집 설계는 인천 지역을 대표하는 조사 대상 확보를 위해 다단계 총화군집추출법을 적용하였음. 외층변수로 행정구역 체계를 기준으로 도농복합 지역, 원도심 지역, 원도심·신도심 혼재 지역으로 분류하였으며, 내층변수로 각 행정구 내 학교 규모를 활용하였음(김보라, 최진무, 2014). 2025년 기준의 인천광역시 학교 현황 자료를 활용해 최소 표집 규모를 근거로 최종적으로 초등학교 87교(33%), 중학교 66교(45%), 고등학교 68교(53%)로 총 221교를 협력학교로 확보하였음. G*Power 프로그램을 통한 통계분석 및 표집 시뮬레이션을 실시하여 최소 표집 규모에 대한 충분한 통계적 검정력을 확보하였음(Faul et al., 2007; Faul et al., 2009).

나. 인천교육종단연구 1차 연도 조사 도구

- 인천 학생의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과 그 영향 관계를 종합적으로 확인하고 분석하기 위해서 학생의 가정 및 학교 생활 관련 변인을 다차원적으로 수집할 필요가 있었음. 이에 설문조사는 패널로 선정된 학생, 학생의 보호자, 학생이 소속된 학교의 교사와 학교장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음. 설문조사 문항의 명확성을 확보하기 위해 학교급별 현장 교사 4명을 대상으로 맞춤법, 오타 점검, 중복 및 모호한 표현 정리, 학생 수준에 부적절한 어휘 수정 등 세부 검토를 하였음. 또한 교육정책 영역 문항의 전문성 강화 및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해 인천교육정책 컨설팅 TF 소속 교육전문직 5명을 대상으로 정책 문항의 적절성 및 인천 교육현안 반영 여부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졌음. 학생 역량검사는 창의적 문제해결 역량의 실제 수행을 측정하는 신뢰할 수 있는 도구로서 활용하고자 하였고, 질적 조사인 FGI를 통해 학생의 성장 경험을 심층적으로 탐색하였음. 이처럼 다각도의 관점에서 학생의 성장을 파악하여 변수 간의 관계를 통합적으로 분석하고 시간의 경과에 따라 인천 학생의 성장과 발달을 정교하게 추적할 수 있는 기초 자료를 확보하고자 하였음.

다. 인천교육종단연구 1차 연도 조사 실시

- 인천교육종단연구 1차 연도 조사는 협력학교의 여건을 존중하고 연구의 가치를 공유하며 상호 협력적인 소통을 시행하는 방향으로 추진하였음. 현장 맞춤 지원을 위해 협력학교가 자율적으로 운영교사를 선정하고 조사 시행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현장교사의 업무 부담 경감을 위해 역량검사 조사 시행일에 현장지원단을 파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음. 연구 가치 공유를 위해 인천교육종단연구 홍보영상을 제작하고 리플렛 등 인쇄물을 학교로 배부하여 연구에 대한 정보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고자 하였음. 또한 조사에 대한 문의에 신속하게 응대하기 위해 콜센터를 마련하여 학교 현장과 가정에서 가지는 조사에 대한 궁금증과 애로사항에 즉각적으로 대응하였음.
- 협력적 소통을 위해 단계적이고 체계적인 연수 및 설명회를 통해 연구의 필요성과 추진 방향을 공유하였음. 협력학교 선정 전 인천 관내 교장이나 교감 선생님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연수를 진행하여 인천교육종단연구 취지와 협력의 중요성을 설명하였음. 또한 교직원 단체와의 교류를 통해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피드백을 확인하는 과정도 거쳤음. 협력학교 선정 직후 운영교사를 대상으로 한 설명회를 실시하였고, 조사 시행을 앞두고는 협력학교 교사를 대상으로 한 설명회를 실시하여 세부 업무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진행하였음.

4. 후속 연구 제언

- 첫째, 역량검사 2차 연도 문항 개발 연구가 필요함. 1차 연도 역량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문항의 난이도와 변별도를 점검하고 수직척도화를 위한 공통문항과 신규문항을 개발해야 함. 또한 초등학교 4학년 패널과 중학교 1학년 패널이 각각 초등학교 5학년과 중학교 2학년으로 진급함에 따라 초등학교 5학년 및 중학교 1학년 대상 역량검사 문항을 개발하고 예비조사를 실시하는 것이 필요함.
- 둘째, 1차 연도 조사 결과 분석 및 정책 환류 체계 구축 연구가 필요함. 조사를 통해 수집된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인천 학생의 발달 특성과 영향 요인을 파악하고, 이를 정책 담당 부서와 학교 현장에 제공하여 정책적 환류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함. 지역 수준의 교육종단 연구 데이터는 해당 지역의 고유한 교육환경을 반영하고 그 지역 학생들의 성장 패턴과 영향 요인을 심층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음. 또한 1차 연도 조사 결과는 이후에 시행되는 교육정책의 효과를 비교·검증하는 실증적 근거가 될 수 있어 정책 담당자의 의사결정에 적극 활용될 수 있음.



○ 셋째, 2차 연도 조사 개요 수립 연구가 필요함. 1차 연도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조사 도구 및 조사 운영 전략에 대한 보완을 포함해야 함. 문항 반응 분석에 따른 설문조사 문항 보완과 더불어, 패널 유지 관리, 조사 탈락률 최소화, 조사 과정 표준화를 위한 규칙과 절차 확립이 요구됨. 이를 위해 종단연구 전담 TF를 구성하여 문항 검토, 부서 요구 조사, 결과 활용 환류 체계 마련 등이 권장됨.



7



위탁 연구

- 인천형 학생 지속가능 정신건강 역량 강화 통합모델 구축과 확산 연구



인천형 학생 지속가능 정신건강 역량 강화 통합모델 구축과 확산 연구

연구책임자 : 김현경

공동연구원 : 김재희, 오서진

연구보조원 : 한단비, 박소희, 김예진
박민주, 김용대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가. 연구의 필요성

- 정신건강 문제의 예방과 조기 개입을 위한 국가 정책 기반 마련이 필요함: 세계보건기구는 정신건강 문제를 예방하고 조기에 개입하는 것을 각국의 핵심 과제로 제시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보건·교육·복지 간의 통합적 접근을 강조하고 있음. 이는 개인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사회 전체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효과적인 전략임.
- 아동·청소년기 정신건강 예방을 위한 제도적 투자 확대가 요구됨: 정신건강 문제가 주로 발현되는 아동·청소년기에 예방 중심 개입을 강화함으로써, 장기적으로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건강한 사회를 조성할 수 있음. 이를 위해 국가 차원의 체계적 지원과 정책적 투자가 필수적임.
- 인천광역시 특성에 맞는 지역 기반 예방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함: 기존의 위기 개입 중심 정책을 넘어, 예방 중심의 인천형 학교 기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학교와 지역사회 간 협력 체계를 구축해야 함. 이를 통해 지역 맞춤형 정신건강 지원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음.
- 학교 기반 정신건강 모델 구축을 위한 과학적 근거 마련이 필요함: 학교는 정신건강 서비스 접근성과 개입 효과가 높은 공간으로, 인천광역시교육청 차원의 통합적 모델을 정립하고 이를 뒷받침할 과학적 근거를 확보하여 정책 확산 기반을 강화해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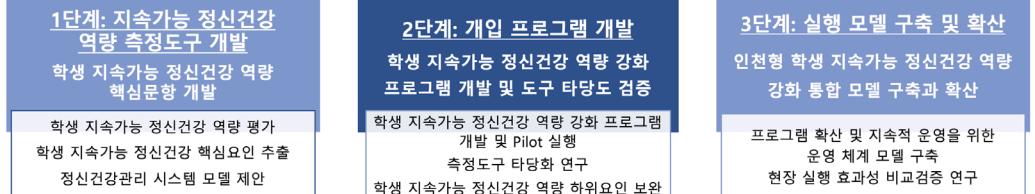


나. 연구의 목적

- 본 연구는 인천광역시교육청과 협력하여 추진 중인 다년제 과제의 3차년도 연구로, 1·2차년도에 구축된 이론적 기반과 실증 성과를 바탕으로, 인천형 학생 지속가능 정신건강 역량 강화 프로그램(IM)의 학교 현장 정착을 위한 최적 운영 모델 개발을 목적으로 함.
- 특히, 2024년 2차년도에 효과가 검증된 IM 프로그램의 현장 적용 가능성과 실행 구조를 구체화하여, 학교급·운영환경에 따른 적용 모델을 제안하는 것이 핵심 목표임.
- 본 연구는 IM 프로그램을 인천광역시교육청의 학교 교육과정 내에 효과적으로 안착시킬 수 있는 실행 모델과 확산 전략의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 데 의의가 있음.

학생 정신건강 통합관리 로드맵 구축

사회-생태학적 모델의 지원협력체계 마련 | 각 체계별 세부 전략 제시



[그림 2] 인천형 학생 정신건강 통합관리를 위한 로드맵

2. 연구 개요 및 내용

가. 연구 개요



[그림 1] 1·2·3차년도 연구 개요

나. 연구 내용

- 본 연구의 내용은 아래 [그림 2]의 3단계에 해당함.

- 1단계 지속가능 정신건강 역량 측정도구 개발 (1차년도 연구): 인천 학생의 정신건강 상태와 지속 가능한 정신건강 역량, 즉 심리적 위기에 대처하고 잠재적인 정신건강 문제를 예방하며 전반적인 정신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역량을 측정하는 도구를 통해 학교 기반 지속가능 정신건강 역량 강화 프로그램 구성요소의 근거를 마련하였음.
- 2단계 인천형 학생 지속가능 정신건강 역량 강화 프로그램 개발 (2차년도 연구): 학교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school-based intervention) 인천형 학생 지속가능 정신건강 역량 증진 프로그램을 개발함. 본 프로그램은 1단계에서 개발된 인천형 지속가능 정신건강 역량 측정도구에서 도출된 학생 정신건강 핵심 요인과 국제적으로 효과가 검증된 근거기반 정신건강 역량 강화 기법을 적용하였음.
- 3단계 인천형 학생 지속가능 정신건강 역량 강화 통합모델 모색 (3차년도 연구): 본 단계에서는 인천형 학생 지속가능 정신건강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실제 학교 현장에서 정착시키기 위한 최적의 운영 모델을 개발하고자 하였음. 이를 위해 프로그램의 실행 유형을 다양화하고, 교사 주도의 실행모델을 포함한 운영 체계를 고도화하였으며, 학교급별 적용 가능성과 확산 전략을 함께 모색하였음. 연구는 '문헌조사 - 실행 유형 정교화 - 실행모델 개발 - 확산 및 효과 검증'의 과정을 따라 수행되었으며, 이를 통해 학교 현장 적용의 타당성과 효과성을 검증하고, 인천형 정신건강 역량 강화 통합모델을 제안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음.



[그림 3] 지속가능 정신건강 역량 강화 프로그램 개발 연구단계

3. 연구 결과

가. 문헌조사

1) 예방 프로그램의 근거 기반 설계 필요성

- 정신건강 예방 프로그램은 목표, 역량, 활동 설계 등의 핵심 요소가 근거 기반(evidence-based)이어야 하며, 학교 맥락에 적합하게 실행·관리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함. 단기적 개입보다는 학교 시스템에 통합되어 운영될 수 있는 구조적 실행 체계가 프로그램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함.

2) 국외 사례의 지속 가능한 운영 체계 특징

- SEL(CASEL), PBIS, SEAL 등 국외 주요 사례는 모두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실행 지원 구조를 갖추고 있으며, 교사 연수, 구체적인 매뉴얼 제공, 실행 모니터링, 효과 평가 등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주요 구성 요소들을 통합하고 있음. 이러한 구조는 단순한 교육 콘텐츠 제공을 넘어, 실행력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운영 체계를 기반으로 하고 있음.

3) 본 연구의 방향과 정책적 의의

- 본 연구는 근거 기반 프로그램이 실제 학교 환경 속에서 지속가능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실행 체계를 설계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이를 통해 인천형 학생 정신건강 정책의 중장기적 방향 설정과 정책 확산을 위한 전략 수립의 기초를 제공하고자 함.

나. IM 프로그램 운영 체계 모델 개발

1) IM 프로그램 표준형 개정

- 표준형 실행 형태: 총 8회기 구성(한 회기 당 교과 수업시간 2교시 배정, 총 16차시 소요), 주 진행자와 보조 진행자 2인 팀 진행을 기본 구조으로 하는 방식임.
- 표준형 개정 내용: 전년도 표준형 파일럿 실행 후 학생 및 교사로부터 수집한 피드백을 반영하여 학생용 워크북, 진행자용 매뉴얼, 교구 등을 수정·보완하였음.

2) IM 프로그램 모듈형 개발

- IM 프로그램의 적용 유연성 확보: IM 프로그램 표준형은 총 16교시의 수업시간 확보를 전제로 운영되기에, 학교 교육과정에서의 IM 프로그램 운영 활성화를 위해 교과목별로 유연하게 적용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 모듈형 실행 형태: IM 프로그램 모듈형은 초등학생용, 중학생용 모두 총 5개의 모듈로 구성되고, 각 모듈별로 총 4회기, 회기당 학교 교과 수업시간 1교시가 배정되어, 주 진행자와 보조 진행자가 팀으로 진행하도록 구성되었음. (단, 금번 시범 운영 시 일부 학교의 요청으로 불가피하게 주 진행자 1명 운영, 1주에 1-2회기 운영을 허용하였음.)

3) IM 프로그램 위탁형

- 위탁형 실행 형태: 교육청이 지정한 외부 기관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형태로, 전문 진행자가 학교 외부에서 8회기 표준형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모델임. 이 방식은 현재 학교별로 이루어지고 있는 외부기관 연계 프로그램의 대안적 실행 형태로, 정신건강센터나 대학 부설 기관 등과 협력하여 특정 집단(예: 기존 위기관리 대상 학생)이 전문기관에서 프로그램을 이수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음.

- 추가 검증 필요성: 다만, IM 프로그램은 선별 개입이 아닌 보편적 예방을 목적으로 개발된 프로그램이므로, 위탁형 모델이 본래의 예방 취지와는 일부 부합하지 않을 수 있음. 따라서, 예방 프로그램이 특정한 목적으로 선별된 그룹에게도 정신건강 역량 강화 효과를 보이는지 확인하기 위한 체계적인 효과성 검증이 필요함.

4) IM 프로그램 집중형

- 집중형 실행 형태: IM 프로그램의 집중형은 교사가 진행하는 모델로 정규 교과시간 외, 방과 후 혹은 주말을 활용하여 진행되는 형태임. 총 4회기(주 1회, 회기 당 약 3시간)로 구성되어 있으며, 초·중등학생 각 20명을 대상으로 학교 교실 혹은 강당에서 소규모 그룹 활동 중심으로 운영되는 방식임.

다. IM 프로그램 교사 진행 모델 개발

○ IM 프로그램 교사 진행자 모집: IM 프로그램 진행 교사를 모집하기 위해, 교육청과의 협력하여 교사 직무연수로 대체 가능한 연수 형태로 계획함. “나를 찾는 여성 아이엠(IM)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전문가 양성 직무연수라는 과정명으로 인천 관내 초·중학교 교사 총 46명이 연수에 참여하였음.

○ IM 프로그램 교사 진행자 워크숍: IM 프로그램 교사 진행자 워크숍은 대면 10시간, 비대면 연수 6시간의 총 16시간으로 구성되었음. 강의, 참여 활동, 녹화 강의, 서면 리포트, 슈퍼비전 등으로 구성되어 교사의 학생 정신건강 역량을 강화하는 교원 역량 및 업무 전문성을 향상시키는 동시에 IM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는 마스터로서의 역할을 훈련함. 워크숍은 강의와 실제 IM 프로그램 교구 교재를 활용한 실습활동으로 진행되었음.

라. IM 프로그램의 확장 모델 실행 및 효과 검증

1) IM 프로그램 유형별 참여 학생

〈표 1〉 IM 프로그램 유형별 참여 학생

구분	초등학교		구분	중학교	
	프로그램 유형	참여 학생(명)		프로그램 유형	참여 학생(명)
전문가 운영	(위탁형) 표준형	20	전문가 운영	(위탁형) 표준형	19
교사 운영	표준형	86	교사 운영	표준형	-
	모듈:성실성	44		모듈:성실성	55
	모듈:정서적웰빙	56		모듈:사회적웰빙	64
	모듈:심리적유연성	29		모듈:회복탄력성	52
	모듈:사회적웰빙	47		모듈:심리적유연성	44
	모듈:자기통제/자기관리	48		모듈:공감	48
	총합	330		총합	282

2) IM 프로그램 위탁형(전문가 운영) 모델

2)-1. 프로그램 실행

- 프로그램 진행 일시: 2025년 6월 28일 ~ 8월 16일, 총 8주 동안 매주 토요일 2시간씩 진행 (총 16시간)
- 프로그램 진행 장소: 연세대학교 국제캠퍼스 강의실

○ 프로그램 진행 방식: 연세대학교 아동·가족학과에서 훈련한 전문가(석사 이상 전문가)가 직접 프로그램을 운영함. 20명씩 포함된 초등학생과 중학생 그룹을 대상으로 전문가 주 진행자와 보조 진행자로 구성된 각 팀이 IM 프로그램 표준형을 운영함. 학생이 주말에 위탁 기관으로 방문하는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인을 최소화하기 위해, 학부모가 자녀를 위탁기관으로 동행해서 인계하고,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동안 학부모는 따로 마련된 대기실에서 대기하였음. 이후 프로그램 종료 시 보호자가 학생을 다시 인계받아 귀가함.

2)-2. 실행 결과

- 위탁형 초등: 초등학생 대상 위탁형 프로그램을 통해 아동들은 감정 인식 및 조절, 관계 형성, 스트레스 해소, 스마트폰 사용에 대한 인식 제고 등 다양한 정신건강 역량을 자연스럽게 학습할 수 있었으며, 다회기 활동을 통해 그 효과가 누적되어 작용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음.
- 일부 활동의 경우 학급 내 표준형 운영에서 더 높은 활동을 기대할 수 있으므로, 향후 교육 청 및 학교와의 협력을 통해 정규 학급 기반으로 프로그램이 정착될 수 있는 것이 중요할 것임.
- 위탁형 중등: 중학생 대상 위탁형은 낯선 환경, 위탁형 구성 등으로 인해 초기 라포 형성 및 참여 유도가 어려운 특성이 두드러짐. 루완 시스템, 감정 표현 활동, 스트레스 해소 교구 등을 통해 점진적인 몰입과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지만, 참여 학생의 개인 특성이 작용을 많이 하는 경향이 나타남.
- IM 프로그램 전문가 운영(위탁형) 참여 학생의 정신건강 역량 점수: 참여한 학생은 초등학생 20명, 중학생 19명이었고, 설문조사에 응답한 초등학생 19명, 중학생 15명에 대한 정신건강 역량별 평균 점수를 IM 프로그램 사전과 사후로 살펴보면 아래 그림과 같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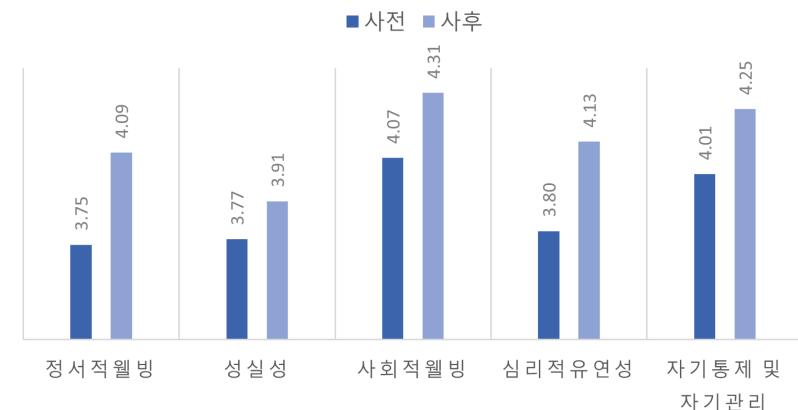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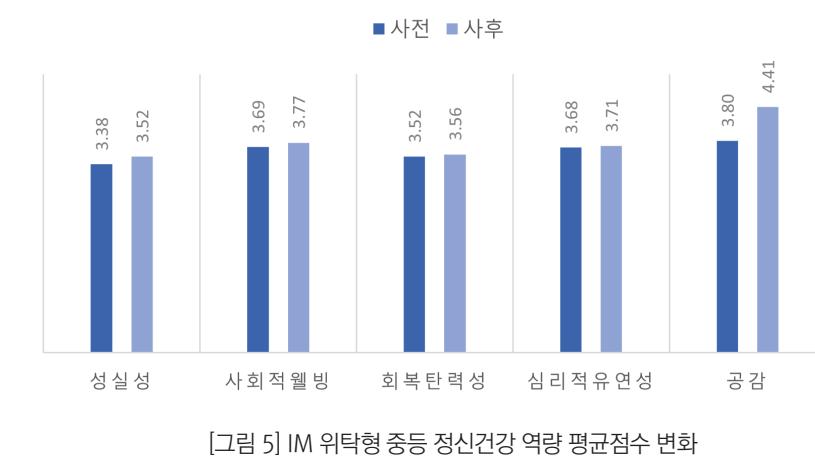


그림 4] IM 위탁형 초등 정신건강 역량 평균점수 변화



3) IM 프로그램 교사 운영 모듈형 모델

3)-1. 프로그램 실행

〈표 2〉 IM 프로그램 교사 운영 모듈형 실행시기 일정

역량 모듈	초등학교	중학교	실행시기
정서적웰빙	56	-	(초) 9월 16일~9월 23일
성실성	44	55	(초) 9월 8일~9월 29일
			(중) 8월 18일~10월 24일
사회적웰빙	47	64	(초) 10월 14일~11월 13일
			(중) 10월 20일~10월 29일
심리적유연성	29	44	(초) 9월 4일~9월 25일
	29	44	(중) 11월 10일~11월 25일
자기통제 및 자기관리	48	-	(초) 9월 8일~9월 30일
회복탄력성	-	52	(중) 8월 27일~9월 17일
공감	-	48	(중) 11월 4일~11월 27일

3)-2. 실행결과

※ 참고: 현재 각 학교에서 사전/사후 평가 자료를 취합 중이며, 일부 학교는 아직 프로그램이 종료되지 않은 상태임. 이에 따라 역량평가 점수의 비교 분석은 본 보고서에는 포함하지 않고, 최종보고서에 기술할 예정임. 아래 내용은 현재까지 실행이 완료된 일부 학교 학생들의 '만족도' 조사 결과임.

○ 모듈형 만족도 평가: IM 프로그램의 교사 운영 모듈형에 참여한 초등학생들의 전반적인 만족

도는 5점 척도 기준 평균 3.92~4.0점으로, 비교적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음. 중학생들의 경우 평균 만족도는 3.83점으로, 전반적으로 높은 수준의 만족도를 보였음.

4) IM 프로그램 교사 운영 표준형 모델

4)-1. 프로그램 실행

〈표 3〉 IM 프로그램 교사 운영 표준형 참여 인원 및 실행시기

	IM 프로그램 집단	통제집단	실행시기
초등학교1	46	47	9월 3일 ~ 10월 29일
초등학교2	48	40	9월 9일 ~ 11월 14일

4)-2. 실행결과

※ 참고: 표준형 프로그램 역시 현재 사전/사후 평가 자료의 취합 및 분석이 진행 중으로, 최종보고서에 결과를 기술할 예정임. 최종보고서에는 운영 주체(교사 vs 외부 전문가), 운영 장소(학교 내 vs 외부 기관), 실행 구조(단독 vs 팀 운영) 등에 따라 효과성과 실행 충실퇠에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고, 교사와 학생으로부터 수집한 실행 상의 피드백도 포함하여 논의할 예정임.

4. 연구 제언

가. 정책 제언

1) IM 프로그램 진행자 양성

- IM 프로그램의 원활한 현장 적용을 위해 교사의 참여 기반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실행 가능한 교사의 인력풀을 확장하고, 학교 내에서의 운영 시기를 정교하게 설계하는 실행 전략이 필수적임(예: 겨울/여름방학 2-track 연수 방안).
- 더불어, 초기 선도학교 중심 운영 후 효과를 검증하고, 점진적으로 참여 학교를 확대하는 단계적 확산 전략을 병행하여 행정적·물리적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안정적인 확산 기반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 이러한 구조 속에서 교사 IM 프로그램 전문성 인정 자격 부여, 우수 운영교 포상 등 현장 참여 유인 및 동기화 장치를 함께 설계함으로써, 프로그램의 자발적 확산과 정책적 지속 가능성을 동시에 확보할 필요가 있음.



2) IM 프로그램의 지속 가능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지원

- IM 프로그램의 지속적인 운영을 위해 교육청 차원에서 정책지원 예산을 확보하여 프로그램이 안정적으로 학교 현장에 정착될 수 있는 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함. 단, 예산 확보 시 분명한 근거를 통해 1인 학생에 소요되는 IM 프로그램 운영 필요 예산을 단위로 계산하고 (예: 이 단위에는 교구교재비, 마스터 양성비, 마스터 운영비, 전담기관 운영비 등을 모두 학생 1인 단위로 환산하여 계산한 금액이어야 함), 인천 내 학교별 학생 수에 따른 필요 예산을 이러한 근거에 따라 확보할 필요가 있음.

3) 인천광역시 내 특성화된 교육지원 정책 개발

- IM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데이터가 축적되면 학생 지속가능 정신건강 역량 수준과 학업, 정서, 사회, 정신건강 문제 발달과의 관계유형을 탐색, 인천광역시 내 교육 현장에서 학생의 유형에 맞는 지원을 추진함으로써 경제적으로 효과적인 정책을 마련할 수 있음.
- 추후 IM 프로그램을 개편하는 과정에서 연령별 특수성을 고려하거나 특정 역량이 부족한 학생들을 위한 모듈화된 심층 프로그램으로 확장하고, 학생의 필요와 학교 현장의 요구에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는 효과적인 정신건강 지원 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임.

4) IM 프로그램의 교사 정신건강 및 역량 강화 응용: 교사 직무연수 프로그램

- IM 프로그램의 안정된 확산을 위해서는 학교 관계자 모두의 일관된 가치관과 문화 형성이 선행되어야 함. 이에, IM 프로그램의 전문교사 양성과정과 더불어 일반 교사의 IM 프로그램 이해와 관련된 연수과정이 이원화되어 진행될 필요 있음.
- IM 프로그램의 효과 지속을 위해 전체 교사의 학생 정신건강케어 지도 능력 역량이 필수 있음. 이에 IM 프로그램을 교사 직무연수 과정에 응용하여 전반적인 인천교육청 내 교사의 역량을 강화하여 학교 문화 개선 효과를 계획해야 할 것임.

나. 후속 연구 제언

1) 프로그램 효과성 검증의 확장 및 장기 추적 연구

- 본 연구의 최종 목표인 통합모델 구축을 위해서는 구성요소(프로그램, 연수, 실행 구조, 평가 및 환류 시스템 등)를 이론적으로 정립하고, 실제 운영 과정에서의 다양한 변형과 적용 양상을 체계적으로 수집·분석할 필요가 있음. 특히 향후 연구에서는 프로그램의 효과성 검증 중심에서 나아가, 실행 학교 내 확산·정착 과정과 변형 실행 양상을 체계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환류할 수 있는 실행 기반 연구로 초점이 전환되어야 함.

- 현재까지는 단기적 사전·사후 비교를 중심으로 프로그램 효과가 검토되었으나, 정신건강 역량의 안정적 향상과 지속성을 분석하기 위해 장기 종단 연구 설계가 필요함. 이를 통해 동일 학생 집단에 대한 추적조사(예: 1년 단위)를 통해 프로그램의 잔존 효과 여부, 사후 강화 개입 필요성을 분석할 수 있음.

2) 다층적 연수 체계 및 지역사회 협력 기반 연구 필요

- 향후 프로그램 확산을 위해서는 교사 연수뿐 아니라 학부모 교육, 지역사회 연계 교육까지 포함하는 다층적 연수 모델이 설계되어야 하며, 이에 대한 실행 가능성과 효과에 대한 실증 연구가 필요하겠음.



8



교육정책연구소 소개

- 소개 및 현황, 사업 개요
- 2025 연구 성과 및 연구 방향
- 2026 인천교육정책 연구 방향
- 연도별 교육정책 연구과제 목록(2015~2025)





소개 및 현황

기본 방향

비전 — 학생성공시대를 여는 인천교육

미션 — 인천교육 발전을 위한 교육정책연구·개발

전략 — 현장 지향적 연구협력체제 구축 및 교육정책개발·분석

운영 목표

- ❖ 교육연구협력체제 구축 및 활용을 통한 연구 역량 강화
- ❖ 인천교육 정책과제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연구 수행
- ❖ 교육정책 성과 분석을 바탕으로 개선안 제시
- ❖ 지역성과 교육 혁신을 추구하는 교육정책을 추구함으로써 인천교육 발전에 기여

연구소 연혁

2014년 9월 1일	인천교육과학연구원 기획연구평가부를 교육정책연구부로 명칭변경
2015년 3월 1일	교육정책연구부를 교육정책연구소로 명칭변경
2015년 3월 30일	교육정책연구센터 개소
2019년 3월 1일	인천광역시교육청 정책국 정책기획과 교육정책연구소로 조직 개편
2021년 3월 1일	인천광역시교육청 정책기획조정관 교육정책연구소로 조직 개편

사업개요



교육정책연구 수행



정책일반화 노력



교육정책 반영



2025 연구 성과 및 연구 방향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정책연구소는 ‘학생성공시대를 여는 인천교육’ 실현을 비전으로 인천교육 발전을 위한 교육정책 연구과제를 수행하고 있다. 연구소에서는 정책연구와 현장연구를 바탕으로 한 정책 개선안 제시, 지역적 특성에 맞는 교육정책 과제를 개발하고 있다.

교육정책 연구과제의 유형은 연구과제 개발협의회를 통해 선정된 연구 주제 중 연구소가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는 ‘기본연구’, 외부 연구기관과의 협업으로 수행하는 ‘협력연구’, 현장 공모를 통해 현장교원 중심으로 수행하는 ‘현장연구’ 등으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있다. 그 외에 외부 전문 연구기관들에 맡겨 진행되는 ‘위탁연구’, 교육청 현안문제에 대한 ‘수시연구’, 시기적으로 긴급한 교육 현안을 다루는 ‘현안연구’, 학생의 변화와 성장을 장기간 관찰하는 ‘종단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 2025년 연구성과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정책연구소에서는 교육정책 연구과제 수행을 위해 연구과제 자문위원, 교육청 담당부서, 현장교직원, 시민단체 등과 지속적인 협의를 거쳐 연구과제를 선정하였다. 선정된 연구과제는 관련 전문가들의 다양한 연구방법을 통해 수행되었다. 연구로 제안된 정책들은 교육청 담당자 및 교원들과의 협의과정을 거쳐 교육정책에 반영하여 학교 현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 2025년 기본연구과제

번호	연구과제명
기본-①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 현장 지원 강화 방안 연구
기본-②	특수교육지원센터 중심의 인천형 특수교육 지원 체계 연구

◎ 2025년 수시연구과제

번호	연구과제명
수시-①	이주배경학생 밀집학교 지원 방안 연구-학생들의 학교생활을 중심으로
수시-②	유·초 연계 기반의 취학 전후 교육을 위한 지원 방안 연구
수시-③	인천광역시 학생생활종합실태조사Ⅱ(4차년도) 연구
수시-④	2025 인천미래교육 정책 및 연구 방향 탐색

◎ 2025년 현안연구과제

번호	연구과제명
현안-①	교육균형발전학교 선정 지표에 대한 학교 현장 인식 조사
현안-②	미래 사회 변화와 교육적 대안 연구-특색교육 정책을 중심으로
현안-③	인구·경제 축소 시대의 인천교육 방향 탐색
현안-④	기후위기 시대의 인천교육 방향 탐색
현안-⑤	교실 속 문제행동 지도를 위한 학교 지원 요구 분석
현안-⑥	늘봄지원실장 지원 동기 및 경험에 관한 연구

◎ 2025년 현장연구과제

번호	연구과제명
현장-①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원 복지 증진 방안 연구
현장-②	인천광역시교육지원청 초등 보결전담 순회강사 실태 분석 및 개선 방안 연구
현장-③	초등학교 교육과정에 기반한 현장체험학습 유형화 및 코스 개발 연구

◎ 2025년 위탁 및 협력연구과제

번호	연구과제명
위탁-①	인천형 학생 지속가능 정신건강 역량 강화 통합모델 구축과 확산 연구
협력-①	시·도교육청 데이터 기반 교육정책 추진 사례 및 실행 방안 연구

◎ 2025년 종단연구과제

번호	연구과제명
종단-①	인천교육종단연구 1차 연도(2025) 역량검사 문항 개발 연구
종단-②	인천교육종단연구 1차 연도(2025) 조사 개요 연구

◎ 홈페이지

- 연구보고서 파일은 다음의 주소에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 인천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https://ice.go.kr>) - 교육 - 교직원지원 - 교육정책연구소



2026 인천교육정책 연구 방향

◎ 2026 인천교육정책 연구과제 개발 방향

- 인천교육 기본방향에 기반을 둔 인천 교육정책 연구과제 개발
- 인천교육 관련 각계각층의 교육적 요구를 반영한 연구과제 개발
- 대내외 환경 변화와 사회적·시대적 요구가 높은 연구과제 개발
- 인천교육의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연구과제 개발

◎ 2026 인천 교육정책 연구과제 개발 과정

단계	단계별 추진 내용	시기
1단계 제안	[1-1] 교육정책연구소 제안 - 대상: 교육정책연구소 전원 - 방법: 대면 협의	12월
	[1-2] 인천광역시교육청 소속 기관 제안 - 대상: 본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 방법: 온라인 설문조사 시스템	
	[1-3] 정책연구과제에 대한 선호도 조사 및 추가 제안 - 내용: 1-1 및 1-2 단계에서 제안된 정책연구과제에 대한 선호도 조사 및 추가적인 정책연구과제 제안 - 대상: 학생, 학부모, 교직원, 인천시민 전체 - 방법: 온라인 설문조사 시스템	
2단계 자문	[2-1] 교육정책연구소 자체 협의 및 관련 부서 협의 - 내용: 1단계에서 제안된 정책연구과제와 선호도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교육정책 연구소 자체 협의 및 관련 부서 협의를 진행하여 정책연구과제 2배수 선정 - 대상: 교육정책연구소 전원, 정책연구과제 관련 부서 - 방법: 대면 협의	12월
	[2-2] 전문가 자문 - 내용: 2-1단계에서 2배수 선정된 정책연구과제에 대한 전문가의 정량평가 및 정성평가 실시 - 대상: 내외부 전문가 - 방법: 서면 자문	
3단계 선정	[3-1] 정책연구과제 최종 선정 - 내용: 2-2단계의 전문가 자문 결과를 바탕으로 교육정책연구소 자체 협의 및 관련 부서 협의를 진행하여 정책연구과제 최종 선정 - 대상: 교육정책연구소 전원, 정책연구과제 관련 부서 - 방법: 대면 협의	12월

연도별 교육정책 연구과제 목록(2015-2025)

2015년 연구과제 목록

◎ 연구과제 개요

유형	기본	현장(현안)	프로젝트	계
개수	3	6	4	13

◎ 기본 연구과제(3개 과제)

순	과제명	비고
기본-①	2015 행복배움학교 1차 년도 성과 분석	
기본-②	2015 인천 교원 승진제도 개선 방안 연구	
기본-③	2015 인천 교육정책 인식 조사	

◎ 현장(현안) 연구과제(6과제)

순	과제명	비고
현장-①	2015 행복배움학교 학생 생활교육에 관한 문화기술적 연구	현안 과제
현장-②	2015 인천시교육청 공모학교에 관한 운영 실태 분석 및 제언	현장정책 연구1팀
현장-③	2015 인천 교원 승진제도 개선 방안 연구	현장정책 연구2팀
현장-④	학교혁신 정책 연구 사례집	현장정책 연구3팀
현장-⑤	국제이해 및 국제교류 활성화 방안 연구	현장정책 연구4팀
현장-⑥	학교혁신을 위한 교육과정 편성 운영 방향	현장정책 연구5팀



◎ 프로젝트 연구과제(4과제)

순	과제명	비고
프로-①	초등 평가 방법 실태 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프로-②	창의·공감교육을 통한 미래형 학력	
프로-③	지역사회 연계 현장체험학습 프로그램 개발	
프로-④	일반계 고등학교 교육역량 강화 방안 연구	

2016년 연구과제 목록

◎ 연구과제 개요

유형	기본	현장	협력	프로젝트	계
개수	9	10	2	3	24

◎ 기본 연구과제(9과제)

순	과제명	비고
기본-①	2016 행복배움학교 성과분석 연구 : 2년차 행복배움학교 구성원의 변화를 중심으로	계속연구
기본-②	2016 인천 교육정책 인식 조사	계속연구
기본-③	공모 사업 평가 모델 개발 연구	
기본-④	창의·공감교육을 위한 인천시 교육과정의 개발 방향	
기본-⑤	교원연수 실태분석 연구	
기본-⑥	인천시교육청 세계시민교육 추진 방안 연구	
기본-⑦	인천시교육청 위기학생 관리 실태 조사	
기본-⑧	방과후학교 실태조사 및 지원방안	
기본-⑨	인천교육 중계속연구단기 발전방향 연구(1차년도)	

◎ 현장 연구과제(10과제)

순	과제명	비고
현장-①	공감100°C 민주적 학교 운영을 통한 모두가 행복한 학교 만들기	
현장-②	평화의 길을 여는 윤리적 생활공동체 문화 만들기	
현장-③	행복한 배움을 꿈꾸는 전문적 학습공동체 이야기	
현장-④	그린마일리지(상벌점)제도 개선 방안 연구	
현장-⑤	교사의 직무스트레스 실태조사 및 지원방안	
현장-⑥	인천 수업 정책의 방향성 고찰(초등)	
현장-⑦	함께 만들어가는 수업문화 조성 방안(중등)	
현장-⑧	학교 행정업무 개선을 위한 사례 모음집	
현장-⑨	학교업무 정상화 매뉴얼	
현장-⑩	인천형 교원연수모형 개발	

◎ 협력 연구과제(2과제)

순	과제명	비고 (협력기관)
협력-①	인천광역시교육청 초등학교 교원임용시험(2차) 개선방안	경인교대
협력-②	인천형 학교혁신문화 측정도구 개발	경인교대

◎ 프로젝트 연구과제(3과제)

순	과제명	비고 (연구기관)
프로-①	인천 생태환경평화 교육 활성화를 위한 추진전략 수립 연구	(사)자연의벗 연구소
프로-②	학교와 지역 간 마을공동체 형성 방안 연구	인천대학교 사회적 경제 연구센터
프로-③	인천형 교원연수 모형 후속 연구	현장 연구진



2017년 연구과제 목록

◎ 연구과제 개요

유형	기본	현장	협력	프로젝트	계
개수	9	6	2	7	24

◎ 기본 연구과제(9과제)

순	과제명	비고
기본-①	행복배움학교 발전 방안 연구	계속연구
기본-②	2017 인천 교육정책 인식 조사	계속연구
기본-③	유아체험시설 설치 방안 연구	
기본-④	위기학생을 위한 통합지원체제 구축 방안	후속연구
기본-⑤	지역사회가 운영하는 방과후학교 활성화 방안	후속연구
기본-⑥	세계시민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모형 개발	
기본-⑦	교무행정지원팀 실효성 확보를 통한 학교업무 정상화 방안	
기본-⑧	학교 교육력 향상을 위한 교원 연수 실태 분석	
기본-⑨	교육과정 중심의 교원 인사정책 개선 방안	

◎ 현장 연구과제(6과제)

순	과제명	비고
현장-①	특성화고등학교 특별전형 요소 개발 연구	
현장-②	고등학교 핵심역량 기반 평가모델 연구 - 교과별 성취기준 연계를 중심으로	
현장-③	학부모의 학교 참여 활성화 방안 연구	
현장-④	교무학사·행정업무 효율성 강화를 위한 서식 표준화 연구	
현장-⑤	중학교 신입생 반배치 방안 연구	
현장-⑥	인천광역시 건강 체력증진을 위한 학교체육 정책 탐색 연구	

◎ 협력 연구과제(2과제)

순	과제명	비고 (협력기관)
협력-①	효율적 교육정책(사업) 운영을 위한 정책 평가 방안	경인교대
협력-②	초등 예비 교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서비스 러닝 활용 방안	경인교대

◎ 프로젝트 연구과제(7과제)

순	과제명	비고
프로-①	인천교육 중기 발전 방안(2차 년도 연구)	위탁형 (경인교대)
프로-②	인천 원도심 지역 교육 실태 및 발전 방안	위탁형 (인천대)
프로-③	미래학교 환경 및 공간 구성 방안 연구	위탁형 (한국교원대)
프로-④	초·중·고 진로교육의 실태분석 및 발전방안	공모형
프로-⑤	중등학교 학생자치활동의 실제 및 활성화 방안 연구 - 서울 프로세스를 통한 학생자치회의를 중심으로	공모형
프로-⑥	인권교육 사례 및 활성화 방안 연구 - 청소년 노동인권교육을 중심으로	공모형
프로-⑦	지역(마을)과 연계한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방안	공모형



2018년 연구과제 목록

◎ 연구과제 개요

유형	기본	현장(현안)	협력	프로젝트	계
개수	6	6	2	7	21

◎ 기본 연구과제(6과제)

순	과 제 명	비고
기본-①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 실태파악 및 보호방안 개선	
기본-②	인천 학교혁신 실태조사	
기본-③	교직환경 변화를 고려한 교사양성 개선방안	
기본-④	인천교육과정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	
기본-⑤	인천 학교평가지표 개발 연구	
기본-⑥	교장공모제 내실화 방안 연구	

◎ 현장 연구과제(6과제)

순	과 제 명	비고
현장-①	고등학교 교과별 과정중심 수행평가-기록 개선 방안 연구	
현장-②	고교학점제 정착을 위한 인식조사 및 방안	
현장-③	학업중단숙여제 운영 내실화 방안 연구	
현장-④	학교부적응 학생들을 위한 학교 내 대안교실 개선 방안 연구	
현장-⑤	미래교육에 대한 교사역량 개발 방안 연구	
현장-⑥	지역 산업을 반영한 미래지향적 직업교육 활성화 방안 연구	

◎ 협력 연구과제(2과제)

순	과 제 명	비고 (협력기관)
협력-①	대학과 인천광역시교육청의 교육협력사업 발전 방안	경인교대
협력-②	인천시 국공립유치원 교육여건 현황 및 개선방안 연구	경인교대

2019년 연구과제 목록

◎ 연구과제 개요

유형	기본	현장(현안)	협력	프로젝트	계
개수	7(1) (1)은 공동연구	5	1(1) (1)은 공동연구	1 예산 재배정	14(2)

◎ 기본 연구과제(7과제)

순	과 제 명	비고
기본-①	인천 대안교육 발전 방안	
기본-②	인천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과정 개발	
기본-③	마을공동체와 협동조합	
기본-④	성인지 감수성 실태조사	인천여성 가족재단 (공동연구)
기본-⑤	빅데이터를 활용한 교육정책 연구	
기본-⑥	국제교육혁신지구 발전 방안	
기본-⑦	전국네트워크 과제 연구: 교장공모제 활성화 방안	

◎ 현장 연구과제(5과제)

순	과 제 명	비고
현장-①	필수 연수에 대한 인식 및 개선방안	
현장-②	인천교육균형발전사업의 성과지표 개발 및 개선방안	
현장-③	교육과정 재구성 사례 연구	
현장-④	인천 학생의 생활종합실태분석 및 학생 교육정책 방향 탐색	
현장-⑤	인천 학교도서관서비스에 대한 경험 및 인식 분석	



◎ 협력 연구과제(2과제)

순	과 제 명	비고 (협력기관)
협력-①	청소년 자살 예방 관련 연구	경인교대
협력-②	교원 양성 교육과정의 현장 적합성 연구	경인교대

◎ 위탁 연구과제(1과제)

순	과 제 명	비고 (위탁기관)
위탁-①	인천 미래학교 공간 혁신 방안 연구	인천대학교

2020년 연구과제 목록

◎ 연구과제 개요

유형	기본	현장	협력	위탁	수시	계
개수	6(1) (1)은 공동연구	5	2(1) (1)은 공동연구	1	1	15(3)

◎ 기본 연구과제(6과제)

순	과 제 명	비고
기본-①	동아시아시민교육 정책 평가 지표 개발	
기본-②	동아시아시민 양성을 위한 고등학교 진로교육 모델 개발	
기본-③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폭력 원인분석 및 교육적 대응방안 탐색	
기본-④	강화지역 자원을 활용한 교원 에듀투어 추진 방안 연구	
기본-⑤	자율적 학교운영을 위한 인천교육 빅데이터활용 정보제공 방안	
기본-⑥	전국네트워크 과제 연구: 인구변화를 고려한 교육정책방향 탐색	

◎ 현장 연구과제(5과제)

순	과 제 명	비고
현장-①	학생 선거참여 이후의 주권자 의식변화 분석 및 교육방향	
현장-②	다문화 학생 다수 재학생 학교현황 및 발전방향	
현장-③	각종 수행평가 실태 및 미래형 평가 방안	
현장-④	학습지원대상학생 실태분석 및 초등학교 저학년 맞춤형 지원 방안	
현장-⑤	교원의 업무 기피현상 실태 및 개선 방안	

◎ 협력 연구과제(2과제)

순	과 제 명	비고 (협력기관)
협력-①	인공지능(AI)의 교육정책 활용 방안	경인교대
협력-②	학생 성장발달 단계별 특성 이해 연구	경인교대

◎ 위탁 연구과제(1과제)

순	과 제 명	비고 (위탁기관)
위탁-①	동아시아 시민교육 교재 개발(초중고)	경인교대

◎ 수시 연구과제(1과제)

순	과 제 명	비고
수시-①	인천교육정책 연구과제 발굴 개선 방안 연구	



2021년 연구과제 목록

◎ 연구과제 개요

유형	기본	현장	협력	위탁	수시	계
개수	7	3	2	1	3	16

◎ 기본 연구과제(7과제)

순	과 제 명	비고
기본-①	생태문명으로의 대전환을 위한 인천 생태시민교육 발전 방안	
기본-②	행복배움학교의 미래지향적 방향 탐색	
기본-③	(빅)데이터 기반 인천 교육정책 지원 시스템 구축 방안	
기본-④	인천광역시교육청학생교육원 재구조화 방안	
기본-⑤	인천 학생 사회참여 실태 조사	
기본-⑥	인천광역시 직업계고등학교 특성 분석 및 운영 방향 탐색	
기본-⑦	인천 공립형 대안학교 발전 방안	

◎ 현장 연구과제(3과제)

순	과 제 명	비고
현장-①	학습자 행위주체성 요소로 살펴본 블렌디드 수업 분석	
현장-②	온라인 학습환경에서의 과정중심평가 사례 연구	
현장-③	위드코로나 전환기 학생 자치 활동 활성화 방안	

◎ 협력 연구과제(2과제)

순	과 제 명	비고 (협력기관)
협력-①	코로나19 전후 학생들의 심리와 정서 변화 연구(전국)	
협력-②	원격수업의 교육주체별 사용자 경험(UX) 분석 연구	국민대

◎ 위탁 연구과제(1과제)

순	과 제 명	비고 (위탁기관)
위탁-①	인천교육 중기 발전 방안 연구	총신대

◎ 수시 연구과제(3과제)

순	과 제 명	비고
수시-①	코로나19 이후 인천 학생 생활 및 심리정서 실태조사	
수시-②	인천학생생활종합실태조사 4차년도 기초 분석	
수시-③	교육정책 연구 과제 발굴	

2022년 연구과제 목록

◎ 연구과제 개요

유형	기본	현장	협력	위탁	수시	계
개수	7	3	1	1	4	16

◎ 기본 연구과제(7과제)

순	과 제 명	비고
기본-①	인천지역 산업체의 고졸채용구조에 따른 특성화고 지원 방향 탐색	
기본-②	인천 교원 세대갈등 분석 및 효과적 대응 방안 탐색	
기본-③	인천 학생 정신건강 증진 방안	
기본-④	인천광역시교육청 학부모교육과정 개발 및 실행 방안	
기본-⑤	인천 디지털 소양 교육 실태 조사 및 지원 방안	
기본-⑥	동아시아시민학교 운영 실태 분석을 통한 발전 방안 연구	
기본-⑦	기초·기본학력 보장 체계 구축 연구	



◎ 현장 연구과제(3과제)

순	과 제 명	비고
현장-①	고교학점제 도입에 따른 학교 업무 시스템 및 조직문화 개선	
현장-②	초·중·고 전환기 진로연계 교육과정 지원 및 적용방안 연구	
현장-③	도서관 기능 복합화 방안 연구	

◎ 협력 연구과제(1과제)

순	과 제 명	비고 (협력기관)
협력-①	과대, 과밀 학교 해소 및 지원 방안 연구	

◎ 위탁 연구과제(1과제)

순	과 제 명	비고 (위탁기관)
위탁-①	학생 성장 및 적응 체계 구축 지원 연구	연세대

◎ 수시 연구과제(4과제)

순	과 제 명	비고
수시-①	학교구성원의 교육활동(교권) 보호 인식에 관한 탐색적 연구	
수시-②	인천학생 학습역량 측정 도구 개발	
수시-③	인천학생생활종합실태조사 5차년도 기초 분석	
수시-④	2023 인천미래교육 정책 및 연구 방향 탐색	

2023년 연구과제 목록

◎ 연구과제 개요

유형	기본	현장	협력	위탁	수시	계
개수	7	3	1	2	3	16

◎ 기본 연구과제(7과제)

순	과 제 명	비고
기본-①	인천 인성교육 발전 방안 연구	
기본-②	인천 지방교육행정공무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인사제도 개선 방안 연구	
기본-③	인천광역시 교육과정 개정 방안 연구	
기본-④	중등학교 평가 내실화를 위한 평가 체계 및 지원 방안 연구	
기본-⑤	중등 중도입국 한국어(KSL) 학습자 통합적 지원 방안 연구	
기본-⑥	인천 초등학생 수리력 현황 분석 및 향상 방안 탐색	
기본-⑦	인천교육종단연구 기초 설계 연구	

◎ 현장 연구과제(3과제)

순	과 제 명	비고
현장-①	지능형과학실을 활용한 AI교육 활성화 가능성 연구	
현장-②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교원 행정업무 효율화 지원 방안 연구	
현장-③	장애인 교원을 위한 맞춤형 지원 방안	



◎ 협력 연구과제(1과제)

순	과 제 명	비고 (협력기관)
협력-①	교육환경 변화에 대응한 교원수급정책에 대한 교원인식도 연구	

◎ 위탁 연구과제(2과제)

순	과 제 명	비고 (위탁기관)
위탁-①	2023 학생 성장 및 적응 체제 구축 지원 종단연구	연세대
위탁-②	인천형 학생스트레스 해소 프로그램 개발 기초 연구	연세대

◎ 수시 연구과제(3과제)

순	과 제 명	비고
수시-①	『학생 살핌 집중 기간』 운영 실태 조사	
수시-②	인천광역시 학생생활종합실태조사Ⅱ(2차년도)	
수시-③	2023 인천미래교육 정책 및 연구 방향 탐색	

2024년 연구과제 목록

◎ 연구과제 개요

유형	기본	수시	현안	현장	협력	종단	위탁	계
개수	2	4	4	3	1	7	1	22

◎ 기본 연구과제(2과제)

순	과 제 명	비고
기본-①	인천 학생수 추이 변화에 따른 학교 다양화 방안 연구	
기본-②	경계선지능 학생 실태 및 지원 방안 연구	

◎ 수시 연구과제(4과제)

순	과 제 명	비고
수시-①	인천광역시교육청학교지원단 발전 방안 연구 - 학교 교육활동 지원 강화를 중심으로	
수시-②	인천광역시교육청 ESG 경영 지표 개발을 위한 기초 연구	
수시-③	인천광역시 학생생활종합실태조사Ⅱ(3차년도)	
수시-④	2024 인천미래교육 정책 및 연구 방향 탐색	

◎ 현안 연구과제(4과제)

순	과 제 명	비고
현안-①	교육활동보호담당관 중기 사업 추진 방안 연구	
현안-②	학교를 삶으로: 읽건쓰 교육의 개념적 틀에 관한 기초 연구	
현안-③	인천세계로배움학교 영역 및 내용 체계 재구성 방안 연구	
현안-④	인천광역시교육청 학부모교육 추진 체제 개편을 위한 기초연구	

◎ 현장 연구과제(3과제)

순	연구과제명	비고
현장-①	학교자율시간의 인식조사 및 지원요인 분석을 통한 편성·운영 방법 연구	
현장-②	2028 대학입시제도 개편에 따른 일반고의 진로진학교육 방향 연구	
현장-③	AI 디지털교과서 학교 현장 안착 방안 연구	

◎ 협력 연구과제(1과제)

순	과 제 명	비고 (협력기관)
협력-①	시도교육청 교육정책연구소 운영 현황 분석 및 발전 방안	



◎ 종단 연구과제(7과제)

순	과 제 명	비고 (위탁기관)
종단-①	인천교육종단연구 설계 및 운영 전략 수립	
종단-②	(위탁) 인천교육종단연구 기반연구-인천교육정책(사업) 분석	경인교대
종단-③	(위탁) 인천교육종단연구 기반연구-기존 교육데이터 연계 방안	성균관대
종단-④	(위탁) 인천교육종단연구 기반연구-학생 성장 및 발달 변인 분석	연세대
종단-⑤	(위탁) 인천교육종단연구 기반연구-인천 학생역량 기초 조사	인하대
종단-⑥	(위탁) 인천교육종단연구 기반연구-교과역량 평가 방안 제안	이화여대
종단-⑦	(위탁) 인천교육종단연구 조사 설계 및 설문문항 개발	연세대

◎ 위탁 연구과제(1과제)

순	과 제 명	비고 (위탁기관)
위탁-①	인천형 학생 지속가능 정신건강 역량 강화 프로그램 개발	연세대

2025년 연구과제 목록

◎ 연구과제 개요

유형	기본	수시	현안	현장	위탁	협력	종단	계
개수	2	4	6	3	1	1	2	19

◎ 기본 연구과제(2과제)

순	과 제 명	비고
기본-①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 현장 지원 강화 방안 연구	
기본-②	특수교육지원센터 중심의 인천형 특수교육 지원 체계 연구	

◎ 수시 연구과제(4과제)

순	과 제 명	비고
수시-①	이주배경학생 밀집학교 지원 방안 연구 - 학생들의 학교생활을 중심으로	
수시-②	유·초 연계 기반의 취학 전후 교육을 위한 지원 방안 연구	
수시-③	인천광역시 학생생활종합실태조사Ⅱ(4차년도)	
수시-④	2025 인천미래교육 정책 및 연구 방향 탐색	

◎ 현안 연구과제(6과제)

순	과 제 명	비고
현안-①	교육균형발전학교 선정 지표에 대한 학교 현장 인식 조사	
현안-②	미래 사회 변화와 교육적 대안 연구 - 특색교육 정책을 중심으로	
현안-③	인구·경제 축소 시대의 인천교육 방향 탐색	
현안-④	기후위기 시대의 인천교육 방향 탐색	
현안-⑤	교실 속 문제행동 지도를 위한 학교 지원 요구 분석	
현안-⑥	늘봄지원실장 지원 동기 및 경험에 관한 연구	

◎ 현장 연구과제(3과제)

순	연구과제명	비고
현장-①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원 복지 증진 방안 연구	
현장-②	인천광역시교육지원청 초등 보결전담 순회강사 실태 분석 및 개선 방안 연구	
현장-③	초등학교 교육과정에 기반한 현장체험학습 유형화 및 코스 개발 연구	



◎ 협력 연구과제(1과제)

순	과 제 명	비고 (협력기관)
협력-①	시·도교육청 데이터 기반 교육정책 추진 사례 및 실행 방안	

◎ 종단 연구과제(2과제)

순	과 제 명	비고 (위탁기관)
종단-①	인천교육종단연구 1차 연도(2025) 역량검사 문항 개발 연구	
종단-②	인천교육종단연구 1차 연도(2025) 조사 개요 연구	

◎ 위탁 연구과제(1과제)

순	과 제 명	비고 (위탁기관)
위탁-①	인천형 학생 지속가능 정신건강 역량 강화 통합모델 구축과 확산 연구	

2025 인천교육정책연구 연차보고서

발행일 | 2025. 12.

발행인 | 인천광역시교육감 도성훈

발행처 | 인천광역시교육청

주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9(구월동) 우. 21554

전화 | 032)420-8208

홈페이지 | <http://ice.go.kr>

편집디자인 | 굿디자인 032)858-3035

이 책의 저작권은 인천교육정책연구소에 있으며 일부 또는 전부의 무단복제를 금합니다.